성북구 역사문화산책 4

보문동 · 안암동

보문동 · 안암동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김영미(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최호진(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최보민(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
고종성(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대학원생)
김민성(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대학원생)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7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7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그림 중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는대로 정식으로 게재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4

보문동·안암동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발간사 / 6
마을 여행을 한다는 것 / 8

— 1부 — 보문동

1장 | 보문동 마을여행 / 18

2장 | 보문동 역사이야기
여는 이야기 / 43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 50
일제강점기 / 71
광복 이후의 보문동 / 88
※ 보문동 한옥밀집지역과 주목해야 할 건축물 / 110

3장 | 보문동 사람들
일제강점기 보문동 사람들 / 126
현재의 보문동 사람들 / 143

차 례

— 2부 — 안암동

1장 | 안암동 마을여행 / 186

2장 | 안암동 역사이야기
- 여는 이야기 / 210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 215
- 일제강점기 / 241
- 광복 이후의 안암동 / 271
- ※ 고려대학교의 문화재 / 291
- ※ 안암동의 주목해야 할 건축물 / 296

3장 | 안암동 사람들
- 일제강점기 안암동 사람들 / 323
- 현재의 안암동 사람들 / 339

— 부록 —

보문동 지도 / 348

안암동 지도 / 350

발간사

성북문화원은 지난 2013년부터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저희 문화원은 성북구 내 각 동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수집하여 이를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발간한 정릉동과 석관동, 미아리고개 일대, 성북동에 관한 책들은 성북구민을 비롯한 여러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성북문화원의 지역사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매번 이 시리즈를 발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성북구가 그리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에 새삼 놀랍니다. 이번 책에서 다룬 보문동과 안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남쪽에 있는 평범한 주거 지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곳인데, 막상 연구원들이 문헌을 뒤지고 현장에 나가서 찾아온 결과들을 보니 지난번 연구했던 지역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와 경관, 역사를 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라는 거대 서사 아래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한 작은 이야기들이 소멸되지 않은 채 두터운 지층을 이루어 남겨져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았습니다.

보문동 지역의 이야기들은 탑골승방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과 골목,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빠른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그 형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것들로 미루어 그

동안 보문동이 겪은 변화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안암동 역시 여러 문헌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변화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 또한 모호하거니와 아직 그 연구 방법론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성북문화원이 수행하는 연구들은 앞으로 지역사 연구 붐을 일으킬 좋은 촉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앞으로 이루어질 성북학 연구는 물론 전국의 도시지역사를 연구하는 데 요긴한 참고 자료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성북문화원 직원 여러분과 각자 녹녹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연구와 집필에 참여해 주신 외부 필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7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마을 여행을 한다는 것

낙산 정상에 올라 성 밖으로 나오면 성북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낙산은 쉽게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시작해 혜화문(동소문)에서 끝나는 긴 모양을 떠올리게 하지만, 생각보다 낙산 자락은 깊고 넓다. 낙산 정상에서 한성대의 뒤편을 지나면 낙산을 산이라고 느낄 수 없게 만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그 아파트 숲을 지나 명신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동신초등학교 오른편을 지나 다시 언덕을 오르면 숭인근린공원 정상에 이른다. 그 끝엔 작은 정자 하나와 사당이 있다.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定順王



后 송씨宋氏를 기리는 사당이다. 한때 국모의 자리에 있던 그녀는 대비大妃의 위치까지 오르지만, 단종이 유폐되며 궁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천인의 신분까지 신분이 격하된다. 그런 그녀가 남편을 그리며 유배지 영월을 바라보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 전한다. 영월이 동쪽에 있으니 동쪽을 바라보던 봉우리라 해서 이곳에 붙은 이름이 동망봉東望峯이다.

기구한 왕비의 사연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간다. 다시 아파트 숲이다. 끝이 나지 않을 듯한 아파트 숲의 끝에 갑자기 낮은 한옥과 빌라가 뒤섞인 꽤나 유서 깊어 보이는 마을이 나온다. 한옥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쭉 뻗은, 넓은 골목도 이채롭다. 보문동의 중심지에 온 것이다. 보문동은 사대문 밖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다.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흔한 도시형 한옥과 넓고 곧은 골목은 이런 도시 계획의 산물이다.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보문시장의 역사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오랜 마을 한 모퉁이에 '좋은 일만 있었'던 소설



성북동 전경
(2010년, 출처: 성북구청 포토갤러리)



보문동은
낮은 한옥과 빌라가
뒤섞인 마을이다.

가 박완서의 집이 있었다.

골목의 한옥들을 구경하며 북쪽으로 향하면 보문역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고풍스러운 문이 보인다. 보문사 일주문이다.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아파트가 이 사찰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이 맞다. 보문동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바로 이 사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또 다른 왕실 여성, 바로 궁녀들이 살았던 곳이다. 왕실의 궁녀들은 궁에서 나와서도 여염집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었다. 왕의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구니가 되어 말년을 보내야 했다. 그런 그들이 말년을 보내던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보문사이다. 보문동은 세계 유일의,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종단, 보문종의 본산이다. 보문사의 사연도 그러하지만, 경주의 그것을 모방한 석굴암과 월정사의 것을 재현한 팔각구층탑도 제법 볼 만하다. 경내에 조성된 산책로는 서울의 번잡함을 잊을 수 있는 명상의 장소이다.

보문사를 나와 조금만 걸으면 미타사가 나온다. 고려 광종대에 조성되었다는 이 사찰은 크진 않지만 단정하다. 무엇보다 경내에 있는 작은 탑이 흥미롭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고졸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물론 단지 천년의 세월을 머금었을지 몰라 흥미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미타사는 보문사와 함께 탑골승방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탑골', 즉 탑이 있는 골짜기라는 이름이 어쩌면 이 탑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길을 걸어 내려간다. 이번엔 동쪽으로 향한다. 동쪽에는 안감安甘내, 혹은 안암천으로도 불린 성북천 줄기가 흐른다. 지금은 잘 정비되어



보문동과 안암동의 경계인 성북천

주민들의 여가공간이 된 성북천 주변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1980년대까지 서울로 올라온 가지지 못한 자들의 터전이었다. 그뿐 아니라 3·1운동 당시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 시위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도 성북천은 무심한 듯 유유히 흐르지만, 그 물줄기마다 담긴 사연에 마냥 무심해지기는 어렵다.

성북천을 건너면 안암동이 시작된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가운데 한 곳이다. 안암동은 성북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지명이기도 하다. 조선 태조대부터 등장하는 이 이름은 개운산 끝자락 지금의 대광아파트 단지에 20명 정도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앉일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세종의 다섯 째 아들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궁리宮里라는 또 다른 이름도 붙어 있다.

성북천을 건너면 야트막한 언덕을 만난다. 개운산 자락이다. 언덕을 넘어 나오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향하면 커다란 사찰이 하나 보인다. 개운사開運寺다. 무학대사가 창건했다는 이 사찰의 원래 이름은 영도사永導寺였으며, 본래 위치는 현재의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부근이었다고 한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의 무덤 인명원仁明園이 그곳으로 위치를 정하자, 영도사는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옮긴 곳이 지금의 자리였고, 이름도 그 즈음에 개운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개운사는 근대에 그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근대 불교의 대표 석학 박한영 스님이 이곳에서 머물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승려는 아니지만 서정주, 조지훈, 김동리, 신석정 등이 모두 그의 문하생이었으니 그 공력을 알 만하다. 탄허呑虛 스님은 개운사의 암자인 대원암에서 불경을 번역하였고, 1981년에는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에 자리 잡았다. 근·현대 불교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개운사를 나가 더 깊은 산자락으로 들어가면 탄허 스님이 머물렀다던 대원암이 나온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박한영 스님이 머물던 암자가 있었다는 작은 안내판이 있다. 대원암은 규모가 작은 암자이지만 큰 사람을 머물게 했던 큰 암자이기도 하다.

대원암 바로 옆에는 보타사가 있다. 보타사 역시 작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안암동이 얼마나 유서 깊은 마을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마애여래좌상은 말 그대로 큰 돌 기슭의 한 면을 갈아 앉아 있는 부처님 상을 만든 것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부처님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안암동의 역사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안암동 지역은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에서 남경인 지금의 서울로 오는 중요한 교통로 주변에 위치한 곳이었다. 개운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타사는 언제 가도 계절을 듬뿍 눈에 담고 올 수 있다.

보타사에서 나오면 들어갈 때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보인다. 하숙과 자취를 홍보하는 간판, 잰걸음, 혹은 뛰박질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 바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다. 보성전문학교로 시작한 고려대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 온 것은 1934년의 일이다.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만든 사립학교였다. 학생들이 모여들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식당, 술집, 하숙집 등 주변에 캠퍼스 타운이 형성된 것이다. 고려대학교 주변 '캠퍼스 타운'의 역사도 학교만큼 유서 깊다.



종암동과 개운산 전경
(2009년, 출처: 성북구청 포토갤러리)

안암동의 모든 이야기를 끼고 있는 산이 개운산이다. 해발 134m의 낮은 이 산은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졌다. 안암安岩, 종암鐘岩, 돈암敦岩과 같은 마을 이름은 모두 개운산의 돌 이름에서 비롯했다. 이 낮지만 넓은 산은 한때 돈 없는 이주민들의 안식처였고, 지금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개운사, 보타사, 고려대학교 모두 이 산자락에 의지하고 있으니, 개운산은 오는 사람 누구나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다.

서울 속 작은 두 개의 행정동을 잠시 걸었다. 그 작은 공간에 고려시대부터 현재 우리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 이곳이 계속 사람이 살던 공간이기 때문이다. 역사란 사람이 만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마을은 사람들이 살아간 역사가 담겨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이다. 마을 여행은 이것을 찾는 여정이다. 마을에 관심이 없으면 몰랐을 언덕 너머에 담긴 이야기, 개천가의 사연, 골목 사이 이웃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살았을까? 마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다. 보문동과 안암동 여행도 이렇게 시작한다.

(박수진)

보문동·안암동





1부

보문동

보문동 마을여행

#보문역_사거리

1111번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벌써 세 번째 목격하는 중이다. 10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한 M이 아직 오지 않은 까닭이다. 어느 스님이 쓴『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다.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만은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면 떠오르는 글귀다. 평소 출근길에 버스 차창 밖으로 흘끔 보고 지나치던 이 장소를 오늘따라 눈여겨보게 된다. M이 더 늦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오전 10시, 보문역 사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그리 많지 않다. 출근 시간 신설동 방면으로, 동망봉 터널을 지나 창신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로 한창 붐볐을 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투명한 햇살에 잠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하다. 사거리의 동쪽은 높은 산이나 건물이 없는데다 하천이 흐르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사거리 근방은 볕이 잘 들어 늘 밝은 표정이다. 오늘도 어제처럼 무덥겠지만 어제와 달리 가로수 아래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그럭저럭 견딜 만한 더위일 거라 예상한다. 사거리 남쪽으로는 키 큰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호위한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다. 도로 끝에 어렴풋이 신설동 로터리의 높은 빌딩들과 대형광고판이 눈에 들



보문역 사거리



보문로의 야경

어온다. 학창 시절 미술 시간에 배운 원근법이 떠오른다.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원근법은 서양 근대 회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일관된 시선 속에 드넓은 풍경을 잡아두는 방법. 그런 점에서 이 사거리의 풍경은 '보문'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고색창연함과 달리 굉장히 근대적이다. 남북으로 뻗은 1km 가량의 쾌적한 원근. 이 원근법의 화폭 위에 점 하나가 들어오더니 햇살 속에 길게 늘어난다. M이다.

#보문사

오늘 여행의 첫 목적지는 보문사이다. 보문사는 안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보문동에 들어올 때 정면에 보이는 곳으로, 숲 한가운데 하얗고 기다란 구층탑이 돋보이는 절이다. 보문동의 동명을 이 절의 이름에서 따왔다고도 하니 언제 한 번은 꼭 가 보마하고 다짐해 두었더랬다. 그곳을 오늘에야 M과 함께 방문한다.

보문역 1번출구 앞에서 발을 뗀 지 거의 1분 만에 절의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은 이층 누각으로 지어졌는데 편액을 '호지문護持門'이라고 하였다. '불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문'이란 뜻이다. 지방의 여느 산사들처럼 길고 호젓한 진입로가 없는 대신 보문사 경내에는 많은 길들이 이곳저곳으로 잎맥처럼 뻗어 있다. 범종루 아래를 지나 대웅전으로 가는 길, 석굴암과 구층탑으로 가는 길이 나뉘어져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숲이 우거진 명상의 숲으로 올라가는 작은 산길이 있다.

먼저 대웅전으로 가 본다. 크지 않은 규모에 단청이 화려한 대웅전 안에는 부처님(불상)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 뒤로는 색이 바란 탱화 석 점



보문사 대웅전과 앞마당

이 걸려 있다. 내부가 어두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신발을 벗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서 본다. 집착을 버린 지극히 자유로운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이런 것인가? 이심전심. 깨달음은 말보다 먼저 미소와 몸가짐만으로도 전해진다. 가만 보니 부처님 뒤에 걸려 있는 탱화에도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불상과 다른 점은 부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 제자, 신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탱화 속 부처님은 깨달음을 미소가 아닌 말, 즉 설법으로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듯한데 부처님을 둘러싼 무리는 각자 다른 자세로 서 있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한데 어울려 앉고 선 모습이 퍽 조화롭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탱화에서 원근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의



보문사 석가불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경지가 높을수록 위대한 존재일수록 크게 그려진다. 조선의 화가들에게는 풍경의 원근보다 마음의 원근이 더 중요했나 보다.

대웅전과 그 밖의 부속건물로 둘러싸인 네모난 뜰은 넓지 않다.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집 마당보다도 좁다. 그러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품? 아니 손바닥이라 생각해 보니 재미있다. 손오공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작은 세계. 어쩌면 우리를 감싼 이 서울도 지구도 대우주도 부처님의 손바닥에 다름 아닐 것이다. 나와 M은 그 손바닥 어디쯤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복잡한 마음이 한결 여유를 얻는다. 떠나기가 망설여진다. 조금만 더 오래 이 뜰의 고요를 호흡하고 싶다. 그런데 보문사의 볼거리는 따로 있다지. 석굴암과 구층탑 같은. M이 다가와 소매를 잡아끈다.

이제 다른 곳에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타사

30분 정도 보문사 경내를 둘러보다가 일주문을 나와 바로 옆의 미타사로 발길을 돌렸다. 미타사는 보문사와는 엄연히 다른 절이지만 별칭은 같다. 뭔고 하니, '탑골승방'. 미타사 일주문 옆에 세워둔 안내판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 950년에 혜거국사가 미타사를 창건하고 1047년에 석탑을 세우는데 이 때 세운 탑이 이 근처의 상징이 되어 조선시대에 이곳을 탑골(塔洞)이라고 부르면서 미타사를 보문사와 함께 탑골승방이라고 일컫게 된다.
> 이로 인해 미타사는 옥수동의 두뭇개승방, 석관동의 돌곶이승방, 숭인동의 새절승방(청룡사)과 함께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성 밖의 4대 승방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된다.

'탑골'이라는 말이 왠지 귀에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M에게 비치니 '탑골공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 그래, 탑골공원이 있었지. 종로2가 원각사 십층 석탑 주변에 만든 공원의 이름. 억불抑佛의 나라 조선의 서울에서 몇 안 남은 불탑들은 아들 많은 집의 고명딸마냥 귀한 대접을 받았으리라. 그래서 탑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동네면 '탑골' 혹은 '탑동'이라 부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 탑골승방의 탑은 어디에 있을까? 수수께끼의 답을 나와 M은 미타사 대웅전 뒤편 언덕 높다란 계단을 올라가서 찾



미타사 석탑

았다. 귀퉁이가 여기 저기 깨어진 아담한 돌탑.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탑들처럼 높고 균형 있는 탑은 아니다. 그러나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훌륭한 탑들보다야 작지만 엄연히 나와 M의 키보다도 큰, 아니 나와 M의 키를 합해도 미칠 수 없는 높이에 탑의 상부가 있다. 하지만 그 높이와 생김새보다는 탑이 품은 시간의 깊이에 더 매력을 느낀다. 탑의 모양새를 보니 탑신과 지붕의 비례가 약간 허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호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탑은 거의 천 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온갖 눈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는 것이다. 천 년이란 시간은 일상의 감각으로 느껴 보기는 어려운 아주 긴 시간이다. 역사나 전생이란 개념을 들고 와야만 비로소 설명 가능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시간의 원근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들을 나누며 나와 M은 탑을 만져보기도 하고 주위를 돌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점심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화제는 '보문동의 맛집은 어디 있나?'로 흘렀고 이런 저런 정보를 주고받은 끝에 우리는 서둘러 탑이 있는 언덕을 내려왔다. 인간의 시간이란 결국 밥으로 시작되는군. 다시 속세를 향해 바삐 걸어 나가는 우리를 내려다보는 미타사 돌탑의 표정은 어땠을까? 나와 M은 그걸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미타사를 빠져나왔다.

#동망봉_산신각_가는_길

점심식사는 보문역 사거리 근방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안동반점에서 먹기로 정했다. 1970년 개점 이후 48년 동안이나 영업을 해오고 있는 보문

동의 이름난 음식점이다. 나와 M은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짬뽕을 먹으며 다음 목적지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 날씨가 더우니 보문동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망봉 산신각에 들른 다음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다른 장소들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그런데 산신각은 어디에 있나? 2014년엔가 산신각이 있는 마을이 재개발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지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후 찾아가 본 적은 없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에서 검색해 봐도 찾을 길이 없다. 별 수 없이 보문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새로 생긴 보문동 자이 아파트 101동 옆, 그러니까 동망봉 숭인공원 내 공공화장실 조금 못 미처 왼쪽으로 빠져 내려가는 길 옆에 있다는 친절한 설명. 자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도 동망봉 숭인공원은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 금방 찾아갈 수 있겠다 싶었다. 다행이었다.

땡볕이 내려쬐는 데다 공원까지는 긴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하므로 우리는 식후 커피 값을 아껴 보문동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기로 했다. 택시를 탄 후 "동망봉 숭인공원으로 가 주세요"하니 기사님이 잠시 어리둥절해 하신다. 다시 말을 바꿔 "그럼 보문동 자이아파트 101동 쪽으로 가 주세요"하니 기사님은 그제야 감을 잡으셨는지 안정감 있는 주행을 시작하신다. 택시는 아까 우리가 갔던 보문사 앞을 지나 좌회전, 동망봉 터널 위로 난 좁은 오르막길을 오른다. 좌우로 다세대주택들이 100미터 쯤 이어지다가 곧 큰 아파트 단지 하나가 나타난다. 정식 이름은 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지난 2013년에 이 언덕바지에 있던 주택들이 철거되고 솟아오른 아파트 단지로 2017년 1월부터 입주민이 들어왔다고 한다. 대체로 20층 정도의 층수에 117동부터 101동까지 17개동. 성북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풍긴다. 한옥이 많았

던 옛 보문동의 경관을 의식해서였을까 흰색과 기왓장의 진회색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외벽이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들도 90년대식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양이다. 단지는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단지 뒷길이 곧 동망봉 능선이 된다. 능선 저 너머로 보이는 동네는 창신동이다. 얼마 안 가 눈에 익은 공원의 입구가 보였다. 택시를 멈춰 세우고 내렸다. 기본요금이다.

#동망봉_산신각

동망봉 산신각은 아파트 단지 옆 넓지 않은 곳에 남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나무로 엮은 가로 2칸 세로 1칸짜리 몸체 위에 단정한 맞배지붕을 올렸다. 한자로 '동망각東望閣'이라 쓴 현판의 글씨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문은 가운데 큰 문과 그 왼쪽으로 작은 문 하나가 달렸다. 뒤편의 자이아파트가 완공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목재의 결과 색이 아직 살아있다. 안에는 동망봉 산신령과 정순왕후 송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을 것이어서 문을 열고 보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들은 다가오는 10월 산신제가 있는 날 활짝 열릴 것이니 그때 다시 오면 내부 구경도 할 수 있을 것이다.

M은 가져온 DSLR 카메라로 산신각 주위를 돌면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진 찍을 마음이 별로 나지 않는다. 없어진 옛 산신각을 찍어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새로 지은 산신각이야 앞으로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담아 둘 기회가 많을 것이나 없어진 산신각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지난 2013년 10월 보문동 산신제를 취재하면서 제



지금은 없어진
옛 동망봉 산신각
(2013)

사 때 딱 한 번 방문하여 찍어둔 사진이야 있지만 그 사진들이 옛 산신각의 분위기를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산신각을 두른 담장 일부는 헐려나갔고 주변의 주택들이 대부분 철거되어 산신각은 사막 같은 황량한 풍경 속에 위태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부랴부랴 사진을 찍어두긴 했지만 그 사진들은 옛 산신각의 본 모습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언덕바지 빼곡한 주택들 사이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호위무사 삼아 엄숙하게 앉아서 보문동을 내려다보는 이끼 낀 옛 산신각의 모습은 지금은 어느 누구의 사진첩 혹은 기억 속에나 존재하리라.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아파트 옆 인적 드문 공지에서 셋방살이하고 있는 듯한 새 산신각은 뭔가 허전한 느낌을 준다. 차지한 평수가 넓어지고 더 좋은 목재로 지은 튼튼한 한옥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이 장소에는 시간의 원근이 없다. 오직 현재, 현재만 있을 뿐이다.



새로 지은
동망봉 산신각
(2017)

이런 생각을 M에게 비치니 M이 반문했다. "하지만 산신각을 아예 없애지 않고 옮겨 지을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닐까? 재개발이라는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과거의 유산을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보존하고 가꾸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야. 옛 건물, 옛 골목 이런 것만 따라다니며 보존이 잘 되었다느니, 시간의 깊이가 느껴진다느니 하며 감탄하는 것은 너무 우리 위주의 생각, 아니 느낌만 앞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 결국 그런 옛스러운 경관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박제된 과거뿐일 거야. 이젠 원근법의 시대도 지났어. 원근법이란 게 알고 보면 하나의 시각만을 진리로 삼아 풍경을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현실은 관점들이 충돌하고 뒤바뀌는 곳이거든. 천 명이 있으면 천 개의 시선이 있고, 만 명이 있으면 만 개의 세상이 있는 거거든. 이 산신각에서도 그런 다양한 시선들이 오고갔을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시선들을 찾고 연결해 보는 것 아닐까?"

오오! 탁견이다. 그래, 동망봉이라고 해서 동쪽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지.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위도 아래도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된다. 자, 그런 유연한 시선으로 유유히 보문동을 둘러보자구, M.

#박완서_집터

다음 목적지는 소설가 박완서의 집터다. 학창 시절 좋아하는 소설가의 리스트에 박완서가 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때 나는 박완서가 1990년대 말에 쓴 단편소설 몇 편만을 읽어 보았는데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책장을 덮었다. 때문에 이후 더 찾아 읽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느낌표'인가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말고는 박완서의 소설을 추천해 주는 이도 없었다. 더구나 박완서의 소설들은 텔레비전 덕에 자주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을 오르락내리락했으므로 베스트셀러는 일단 제쳐두고 안 사보는 내 괴팍한 독서 취향과도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박완서를 좋은 소설가로 여기게 된 때는 『그 남자네 집』이란 장편소설을 '향토사 연구'라는 의무적인 계기로 읽고 난 후였다. 그런데 학창 시절 재미없게 읽었던 그 박완서 소설이 아니었다. 작가 특유의 수다스러운 문체가 주인공의 삶과 잘 어울려 있는 것이 마치 내 옆에서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이 소설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그중 작중화자의 이웃집 소녀로 나오고 나중엔 '양공주'가 되어 미국으로 떠난 춘희가 있다. 화자는 이 여성의 삶을 같은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로서 보고 접한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시선이 리얼하면서도 따뜻했다. 많은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양공주는 현대사의 질곡이 낳은 비참

한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소설 속 춘희는 화자의 이웃사촌이자 동생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화자와 춘희 간에 유지되는 그 다정한 거리감이 좋았다. 더 나아가 화자는 소설 말미에서 춘희의 삶을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려고 시도하는데, 이를 위해 그는 지난 시절 양공주와 같은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상당하며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마땅히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고 써나간다. 이 대목에서 나는 충격과 감동을 함께 느꼈다. 박완서의 소설은 그저 재미있기만 한 소설이 아니었다. 일상과 역사를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솜씨가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토록 단단하고 따뜻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작가를 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봤을 때 왜 그동안 박완서를 모르고 그녀의 소설을 읽지 않았는지 후회되기도 하였다.



박완서 장편소설『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초판 표지

『그 남자네 집』이란 소설도 그렇지만 1960~70년대의 보문동은 많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자주 배경으로 나온다. 말할 것도 없이 1960~70년대에 박완서가 보문동 한옥에서 살았던 까닭이다. 이 보문동 집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낳아 길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대가족의 살림을 도맡아했다. 그런 와중에 1970년 그녀의 나이 마흔에『나목』이란 소설로 등

단한 후 부지런히 소설을 써서 발표했다. 그녀는 주부로서의 삶의 조건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소설을 썼다. 가솔들을 다 직장으로 학교로 내보내고 난 후 조용한 방안에서 또는 깊은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와중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도 타자기도 없는 그때 그녀는 원고지 위에 한 자 한 자 소설들을 써 나갔다. 1970년대 한국인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바로 서울 보문동의 박 모 소설가라 답하면 될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녀의 소설 속에는 그녀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그에 얽혀 있는 보문동 사람들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다. 또한 그녀의 소설에는 그 시절 여성들이 겪은 폭력과 차별이 일상화된 삶, 거대화되고 메말라가는 도시 속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중산층 소시민들의 군상이 동시대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사진보다도 정확하게 담겨 있다. 지금 나와 M은 바로 그런 한국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박완서의 집이 있던 곳은 그녀의 연보에 따르면 보문동6가 427번지로 나와 있다. 스마트폰 지도 앱에 주소를 입력하니 한 지점을 가리켜 준다. 산신각에서 그리 멀지 않다. 가파른 계단과 내리막길을 내려와 왼쪽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2분 정도 더 걸으니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런데 짜잔! 주소지에 있는 것은 3층짜리 붉은 벽돌조 다세대주택 한 채. 예상은 했었지만 조금 실망이다. 박완서 가족이 살았던 집의 흔적을 쬐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다행히 필지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다. 박완서가 시장으로 혹은 시내로 오고갔던 길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차가 다니는 큰길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보문시장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요즘 대한민국의 골목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도 한

낮이라 조용한 편이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다.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박완서 소설 속 보문동은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M과 싱거운 사진 몇 장 찍고 발길을 돌렸다.

#한옥밀집지역

박완서 집터에서 큰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지붕이 낮은 오래된 집들이 많이 보인다. 저 위쪽 아파트 단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미로 같은 골목들 안에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문동6가의 보문로13라길 10번지 일대로 서울시가 2016년 3월에 이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단다. 한옥도 있고 양옥도 있는데 한옥밀집지역이라



1990년에 촬영한 보문동과 안암동



보문동 한옥밀집지역



보문동
한옥밀집지역의 골목

이름 붙인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M에게 얘기했더니, M은 일정한 면적 안에 한옥이 일정 비율 이상 남아 있으면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서울시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준다.

언젠가 1990년에 찍은 보문동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실로 장관이었다. 보문동에서부터 안암동까지 온통 진회색 한옥 지붕들이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진 풍경. 그 장관을 지금은 볼 수 없다. 2000년 즈음 무슨 일로 안암동을 잠깐 지나쳤을 때는 한옥들이 지붕을 맞대고 이어진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옥들은 벽돌로 지은 다세대주택들 사이에 띄엄띄엄 남아 있을 뿐이다. 아직 이곳에 한옥이 그런대로 남아 있다고는 하나 사진에서 보던 풍경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지붕에 온전히 기와를 이고 있는 한옥을 찾기 힘들다. 지붕 전체를 기와 무늬를 넣은 함석판으로 덮었거나 그것도 안 되면 거무튀튀한 비닐천막으로 감싼 집들이 더 많아 보인다. 요즘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 흔히 나오는 게스트하우스용 한옥처럼 말끔한 지붕과 대문은 찾기 힘들다. 한옥은 한옥이되 누추한 한옥이다. 한옥의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음을 알겠다. 부수고 새집을 지을 여유는커녕 전통방식으로 수리할 비용도 없으니 그냥저냥 헌옷 기워 입듯 그때그때 새는 곳만 고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간혹 가까이 가서 보면 대문에서부터 주춧돌, 기둥, 창틀, 지붕까지 나무랄 데 없이 말끔한 집도 몇 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집들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인간적인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집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나날이 애쓴 집주인의 노력이 집의 외형과 표면에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그렇듯 잠시만 주인의 관심이 멀어지면 먼지에 덮여 고물이 되고 마는 법이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

며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문동의 한옥과 그 집주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듣고 전해줄 만한 것이 아닐는지.

#성북천_가는_길

다음 목적지는 성북천이다. 박완서 소설에서 '안감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왔던 바로 그 하천이다. 큰길로 내려가 건널목을 건너 안암동 방면으로 가면 금방 나올 것이다.

가는 길에 보문동 치안센터가 눈에 띄었다. 문득 김재규의 집이 이 근방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정확한 주소지가 떠오르지 않아 스마트폰을 꺼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소를 검색했다. 검색창에 '보문동 김재규'라고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름 : 김재규金載圭 / 생년 : 1926년 / 본적 : 경상북도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134-10' 그밖에 그가 현역 시절 거쳐 간 여러 보직들. 10·26사태의 장본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확실하다. 출처를 확인하니 1977년에 발행된 역대국회의원총람이다. 늦어도 1977년 이전부터 그가 보문동에 살았다는 것을 알겠다.

주소지를 따라갔다. 한옥들이 모여 있는 좁은 골목들 어디인 것 같은데 정확한 주소지는 스마트폰 지도 앱에도, 대문 앞 주소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운명과 함께 주소지도 없어진 걸까?'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M과 함께 잠시 남의 집 대문 앞 계단에 걸터앉아 다리쉼을 하고 있는데 저만치 할머니 한 분 걸어오신다. M이 일어서서 할머니를 멈춰 세우고 물었다. "어르신, 여기 김재규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딘지 아세요?" 망설임 없



보문동7가 김재규 집터



보문동의 너른 골목

는 할머니의 대답. “저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빌딩 있는 자리요. 요기로 나가서 돌아가면 금방 나와요. 옛날에는 그 옆집들도 김재규가 다 사들였어.” “고맙습니다. 어르신!” 당대 세도가의 집을 이런 좁은 골목들 사이에서 찾고 있었다는 게 우스웠다. 공사가 한창인 옛 김재규의 집터 앞은 승용차 두 대가 자유롭게 통행할 만큼 넓었다. 대광고 앞 삼거리와도 꽤 가까운 거리였다. 차만 타면 서울 이곳저곳을 단시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주거나 교통 면에서 그가 하는 일에 딱 어울렸을 그런 위치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집 주변의 다른 집들도 사들였을까? 보안 때문에? 재산 증식을 위해서? 보문동7가를 자신의 영지처럼 만들고 싶어서였을까? 폐쇄된 연구실과 달리 현장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가는 차량을 피해 사진 몇 장을 급히 찍고 성북천으로 걸음을 옮겼다.

#성북천

천변에 나갈 거면 보문시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게 좋겠다는 M의 제안을 마다하고 나는 굳이 대광고 정문 앞 천변까지 내려가자고 했다. 이 하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지점은 오직 그 한 장소뿐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그렇게 M을 설득하는 사이 어느새 대광고 앞 신설동과 안암동을 잇는 작은 다리인 안암2교에 다다랐다. 다리 한가운데에 서니 시야가 탁 트이며 멀리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보현봉에서 칼바위를 지나 만경대, 백운대, 인수봉까지. 오후의 햇빛을 받은 여름산은 쪽빛으로 빛난다. 성북천의 반듯하게 흐르던 물길은 대광초등학교 부근에서 완만하게 휘며 햇빛을 반사하고, 하상의 물풀들은 여름의 습기와 열기



해질녘 안암2교에서 바라본 성북천과 북한산

속에 번성하고 있다. 그 위로 하얀 물새 두어 마리가 낮게 비행 중이다. 남서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신설동과 동대문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멀리 남산타워가 살짝 눈에 들어온다. "어때? 멋지지 않아, M?" "응, 멋져. 모든 개인 취향은 존중 받을 필요가 있지." "뭐야? 반응이 미지근한데. 예상한 바야. 근데 보문시장까지는 어떻게 가지?" "저 멋진 풍경들 감상하면서 열심히 걸어갈 생각 아니었어? 근데 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무척 땡기는데." "어? 존중 받을 만한 개인 취향인데!" 나와 M은 가까운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안동반점을 나온 이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보문동을 누볐던 것이다.

#보문시장

시장 어귀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무렵이었다. 해는 동망봉 능선 위까지 왔지만 아직 한낮의 열기는 가시지 않았다. 서산에 비낀 햇빛이 시장 좌판 위의 물건들을 비추고 있었다. 나와 M, 좌판 위 물건들의 긴 그림자가 평행을 이루었다. 시장은 조용했다. 뭔가 바쁘고 복잡한 시장 특유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상인들은 대개 자신의 간판이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포 사이 길거리에 따로 자리를 내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었다. 보문로 쪽 입구에는 '보 · 문 · 시 · 장'이라고 적어 놓은 커다란 철제 아치가 두 개나 있는데 이는 보문시장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상설시장이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구조물이다. 우선 나



보문시장 입구의 철제 아치

와 M은 갈라져서 시장 각 점포들의 간판 이름들을 모두 수첩에 옮겨 적기로 했다. 옮겨 적는 데만 약 30분 정도 걸렸다. 다음은 그 결과다.

서울 양곡 센타, 보문 반찬 전문점, 보문 반찬, 우리네 사철탕 삼계탕, 벽지 장판 할인매장, 부러나 부동산, 충북 쌀, 백양BYC, 유진슈퍼, 시골농산방앗간(고추가루/참기름/들기름), 푸른바다 생선, 동흥 토종축산물전문점, 쌍방울트라이, 일미축산, 아리랑포차, 태일회수산, 포장마차 곱창전문점, 신흥방아, 남해산 곰장어, 그린팜마트, 진 스몰큰옷전문, 맛동산 떡볶이, 보문토탈매장 사계절, 보문야채, 보문주방가구, 만능설비, 복권판매점, 로돈꽃집, 애견용품할인점, 기영상회(혼수 침구류), 휴대폰 할인마트, 대감네 야채집, 빵굽는마을, 종합법률상담소, XO헤어, K II 부동



보문시장의 과일가게

산, 談笑壽石圓, 동해수산, 금성크리닝, 운명감정소, 화순식당, 연화암, 쌍둥이네식당, 뉴타운부동산, 옥화네 옷수선, 미래김치, 지리산뱀사골생고기전문, 옥돌집 유황한방오리, 장충왕족발보쌈, 오복떡집, 신앙촌상회, 대한 휴먼재가장기요양기관 간병사협회, 김밥왕돈가스, T월드, AGA JJANG, 종합보수공사, 에이스공인중개사사무소, 아울렛 생활용품의모든것, 색색연필 문방구, 삼화분식(본점), 성신건강원, 대박PC방, 해원암, 엽기꼼닭발, 피자노베, 기분좋은날, 독일안경, 엘레강스 스포츠, 예츠, 스카이부동산, 밀알원표구화랑, 인당철학관, DS건축인테리어, 과일직판장, 태능갈비, 시장철물건재, 리폼아트

조용해서, 조그만 시장 또는 퇴락해 가는 시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점포명들을 옮겨 적고 보니 무시 못할 규모의 상권임을 알 수 있었다. 간판이 있는 점포 개수는 모두 77개에 달한다. 또한 점포의 이름과 품목들을 보노라니 보문동 사람들의 생활필수품 다수가 여기서 공급될 뿐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도 즐겨 이용하는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M이 말했다. 겉만 보고는 알 수 없군." 내가 대답했다. "응, 맞는 말이야. '보문시장은 살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어느새 긴 여름 해가 서산 너머로 떨어졌다. 여행을 마친 나와 M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까 봐 둔 성북천변의 어느 포차를 찾아갔다.

(백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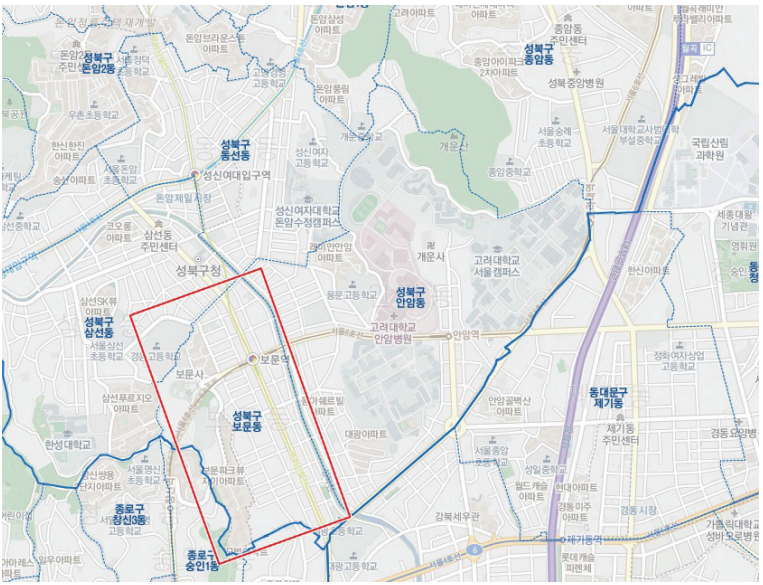
보문동 역사이야기

1. 여는 이야기

산과 하천, 그리고 사람들[1]

현재의 보문동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낙산이 서쪽 대부분의 경계가 되며, 동북쪽은 성북천이 경계가 된다. 북쪽으로는 삼선동, 남쪽으로는 숭인동과 신설동이 경계가 된다. 현재의 보문동 지역이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속했다.

보문동의 서남쪽 경계를 이루는 낙산은 한양도성의 내사산內四山 가운데 동쪽에 해당하며, 남쪽 끝자락에 흥인지문(동대문)이, 북쪽 끝에는 혜화문(동소문)이 위치한다. 현재의 낙산은 낙산공원을 제외하면 모두 주거지로 개발되어 '산'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지만, 조선시대의 낙산은 산과 계곡이 좋아 이름난 별장 단지를 형성한 곳 중 하나였다. 숙종 때 우의정을 역임한 신숙필申叔弼의 개석당介石堂,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지은 이수광李睟光의 비우당庇雨堂과 함께 삼양헌三陽軒, 최락당最樂堂 등의 별장 이름도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조선의 4대 문장가로 불리기도 했던 이정귀李廷龜(1564~1635)는 "낙산 기슭에 명원名園이 많다."[2]라 기록하고 있다.



보문동의 모습
긴 직사각형이며 낙산과 성북천을 경계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다음지도)

낙산에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타사에 남아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랜 기간 이 지역의 상징이었던 듯하다. 보문동은 탑골, 탑동 등으로 불렸는데 모두 미타사에 있는 탑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이 탑은 고려 문종 1년(1047)에 건립되었고, 충숙왕 1년(1314)에 중수된 것으로 970년의 세월 동안 보문동을 지켜왔다.

낙산이 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정순왕후 송씨의 사연이다.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단종과의 혼인으로 왕비가 된 그녀는, 남편이 상왕이 되며 대비大妃의 지위까지 오르지만, 곧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

되며 군부인郡夫人으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서인으로, 그리고 다시 천인의 신분까지 격하된다. 대비에서 천인까지 파란만장한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 그녀가 낙산과 관련을 맺은 것은 궁에서 쫓겨난 이후였다. 궁에서 나온 그녀는 낙산의 청룡사 부근에 거처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자지동천紫芝洞泉은 정순왕후가 생계를 위해 염색을 하려 하였는데, 염색을 위해 집 근처 샘에 천을 넣었더니 그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녀가 단종이 그리울 때마다 그가 있던 영월(강원도)을 바라봤던 곳의 이름은 동망봉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남아서 영조는 이곳에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낙산의 바위에 새겨 놓았다(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낙산이 현재와 같이 주거지로 개발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원인은 도시의 확장이었다. 일제의 소위 '근대화' 정책은 지방 농민들의 토지 상실로 인한 농민층의 빈곤을 가져왔고, 농민들은 토지를 이탈하여 빠르게 임금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식민지 수도 경성으로 모여든 이들은 옛 한양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낙산 자락도 그 중 하나였다. 낙산 바로 아래 자락에 위치한 현재의 창신동은 1927년에서 1938년까지 조선인 가구만 약 1,500여 호가 늘어 당시 경성에서 가장 조선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곳 가운데 하나였다.

농촌과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빠르게 자리 잡았기에 주거 환경은 좋지 않았다. 낙산 자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토막'으로 불리던 기초적인 주거 시설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흔히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토막민들의 삶은 힘들었다. 이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1926년 1월 25일 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극



極度의 困窮을못이여
女子五名의 自殺企圖
舊韓國時代陸軍參領의 遺族

일가족 5명의 자살시도 소식을 다룬 기사
『동아일보』 1926년 1월 25일

도의 곤궁을 못 이겨 여자 5명이 자살시도." 소제목은 '추운 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참상. 그중에는 방연 17세의 꽃 같은 처녀도 있다.'였다. 이들은 대한제국 당시 육군참령을 지낸 이홍선李興善의 가족이었다. 이홍선이 죽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이들은 낙산을 찾아 그곳에서 얼어 죽고자 했던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범죄도 일어났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숨어들기도 했다. 1930년 9월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낙산에 거주하던 토막민 김태석은 시장에서 행인의 돈을 빼앗다가 경찰 및 소방대원에게 격투 끝에 체포된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사는 곳을 '낙산 밑 토막'이라고 굳이 적은 것으로, 토막민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그보다 앞선 1927년 12월 8일에는 조선공산당 만주총무국 소속의 박응칠이란 사람이 낙산 자락으로 숨어들어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이야 '공산당'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당시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였고, 일제에게는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경찰을 박응칠이라는 자를 잡아 그를 단서로 핵심당원들의 정보를 알아내어 그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박응칠이 숨어든 곳은 낙산 일대였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는 낙산이라는 공간은 낯선 사람이 찾아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하지만 박응칠은 곧 체포된다. 아마 일본 경찰은 핵심당원들의 정

보를 알아내기 위해 박응칠을 '취조'했을 것이다. 그 취조의 방법이 가혹했을 것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취조 기록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낙산은 도심과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였으며, 언제든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이었다.

낙산은 현재에도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다. 낙산공원과 성곽 주변 일부를 제외하면 바로 밑까지 주택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한양도성 주변의 몇 남지 않은 성곽마을인 장수마을과 이화마을이 모두 낙산 자락을 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행정구역의 변천

조선시대 보문동 지역이 속한 행정구역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 27년에 발행된『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과 고종 4년(1867)에 반포된『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보문동 지역이 한성부 동부 숭신방 신설계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95년 제도개혁 당시 한성부 동서東署 숭신방 동문외계 신설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이때 신설동은 지금의 신설동과 보문동을 포함한 지역이었다.

늦가을의 보문사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보문동 지역

의 행정구역은 많은 변화를 맞이한다. 1911년에 일제는 5부 8면제를 실시한다. 이때 한성부를 축소하여 경기도에 예속시켰다. 보문동 지역은 여전히 한성부에 속하였으나 행정구역은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신설계 탑동 우선리로 바뀐다. 1914년에는 경성부 자체를 축소시켰다. 이때 신설동이 속한 숭인면은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된다. 보문동 지역은 경기도 숭인면 신설리로 이름이 바뀐다. 보문동 지역이 다시 경성부로 편입된 것은 1936년 대경성계획大京城計劃의 일환이었다. 이때 경성부는 기존 면적의 3.5배가 확대되는데, 보문동 지역이 속한 신설동은 다시 경성부로 편입되었으며 일본식 이름은 신설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다시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할 때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해방 후에도 행정구역 변동은 계속되었다. 먼저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신설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洞會 제도가 시작될 때 고사남부동, 고사북부동, 신설동이 설치되어 신설동 지역을 관할하였는데, 이때 고사남부동과 고사북부동이 관장하던 곳이 지금의 보문동 지역이다. 고사동高沙洞이라는 동명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문시장 부근에 있는 마을을 모래가 많아 '모래말'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신설동에서 보문동이 분리되었다. 이때 보문동의 법정동은 난계로(지금의 보문로)를 중심으로 그 지리적 조건에 의해 1·2·3·4·5·6·7가로 나뉘었으며, 행정동이었던 고사남부동과 고사북부동은 보문 제1동과 보문 제2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보문동이 다시 변화를 겪은 것은 1975년이다. 10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79호에 의해 법정동으로서 보문동1가~보문동7가 일원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같은 날 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행정동인 보문 제1동과 보문 제2동도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문동이 성북동으로 들어온 순간이다. 이어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에 의해 행정동인 보문 제1동과 보문 제2동이 통폐합되며 보문동으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박수진)

2.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보문동 탑골승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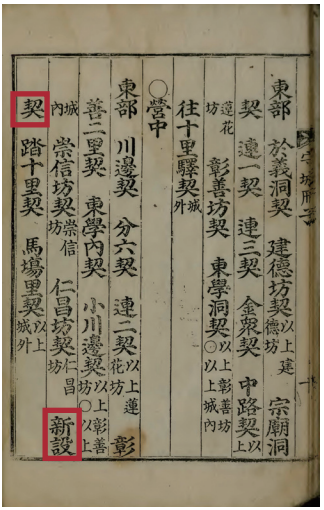
안암천 서쪽 지역 일대에 위치한 보문동普門洞은 보문동3가 168번지(보문사길 20)에 위치한 보문사普門寺의 이름을 딴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보문동이 속한 숭신방崇信坊은 한성부漢城府에 속했다.[4] 그리고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수성책자守城册子』의「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과 1867년(고종 4)에 반포된『육전조례六典條例』등에 이 지역은 한성부



보문동 전경

동부 숭신방 신설계新設契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보문동 · 신설동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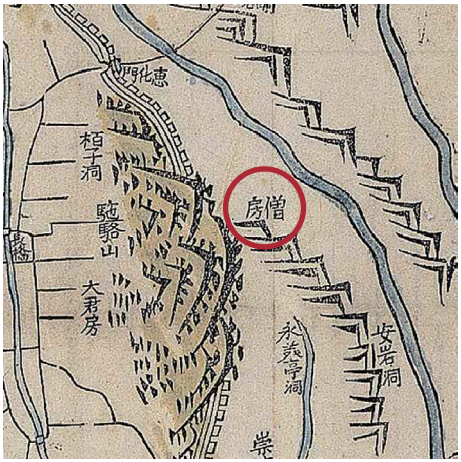
불가에 의하면 온갖 덕을 갖춘 것을 보普라 하고, 쓰임이 나타나는 곳을 문門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문普門이란 보살이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 · 시기를 따라 그 묘용妙用을 보임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5] 따라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문동이 이름을 따온 절인 보문사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보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수성책자』, 「도성삼군문분계총록」 (1751, 美 UC 버클리 소장)
붉은색 상자 안에 한성부 동부 '신설계'라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 후기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와 『도성도都城圖』 등을 살펴보면 흥인문 밖 동부 숭신방 근처 낙산駱山 일대에 '승방僧坊' 혹은 '니사尼寺'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승僧'은 스님을, '니尼'는 비구니를 뜻하는 말이다. 이를 그대로 이해하면 곧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는 수행공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도성 근처에 이러한 수행공간이 자리 잡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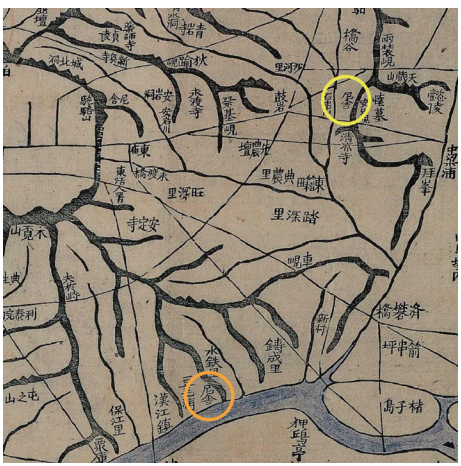
조선의 궁궐에는 왕과 왕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필하는 수많은 궁녀들이 함께 살았다. 이 궁녀들은 궁중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 모시던 상전이 혼인 또는 병으로 인한 요양 등으로 궁을 떠나게 되면 함께 출궁해야 했다. 또는 궁녀 본인이 중병에 걸려 위독해졌을 때에도 출궁하여 요양토록 했다. 때로는 나라에 큰 가뭄 등의 재해가 닥쳤을 때 이를 젊은



『수선전도(首善全圖)』(186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보문동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확대해보니 '승방'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있다.(붉은 원 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도성도(都城圖)』
(186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마찬가지로 보문동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니사'라는 두 글자가 적혀있다.(붉은 원 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도성도(都城圖)』
(186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보문동 지역의 탑골승방 외에 석관동
돌곶이승방(노란 원)과 옥수동 두뭇개승방(주황색 원)이
'니사'라 지도에 표기되어있다.

궁녀들이 시집을 못 가 한을 품어 생긴 일이라 하여 대거 출궁시키기도 했고, 왕이 승하하면 그를 섬기던 궁녀들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출궁을 당한 이들은 남들처럼 여염집에서 생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른바 '왕의 여자'였기에 궁에서 나와서도 남들처럼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없이 비구니 승방에 모여 삶의 마지막을 쓸쓸히 보냈다.

이렇게 궁에서 방출된 궁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성과 근접한 곳에 승방이

마련되었다. 옥수동의 두뭇개승방(미타사彌陀寺), 석관동의 돌곶이승방(청량사淸凉寺 · 연화사蓮花寺), 창신동의 새절승방(청룡사靑龍寺), 그리고 보문동 탑골승방 등이 조선시대 4대 승방으로 꼽혔다. 이 중 보문동의 탑골승방은 비구니들의 절인 보문사와 미타사의 소재지가 본디 탑동塔洞, 즉 '탑골'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이 사찰들이 조선시대에 4대 승방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하여 조선시대에 창건된 것은 아니다.

불교는 고려의 국교國敎였다. 국가 전체의 사상이 불교로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불교는 보다 대중적으로 변모했고, 크게 부흥했다. 또한 불교 사찰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찰에서 지방 귀족들이 주관하는 각종 불교행사와 수많은 불사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2,000~3,000천여 개의 사찰이 창건되었다.[6] 고려의 삼경三京 중 하나인 남경南京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제영題詠 십영十詠에 실려 있는 서거정의 「장의심승藏義尋僧」이라는 시에 '전 왕조의 옛 절이 8백 곳'이라는 구절이 있는데,[7]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한성부, 즉 남경에 번창했던 사찰이 상당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8] 여기에 속하는 것이 바로 950년(광종 1)에 창건된 미타사와 1115년(예종 10)에 창건된 보문사다.

미타사彌陀寺

미타사는 탑골승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절이다. 탑골승방의 두 절인 보문사와 미타사 중 규모 면에서는 보문사가 압도적이지만, 미타사 대웅전 뒤편 언덕 위에는 '탑골'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석탑 1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타사 입구

미타사에 있는「미타사기彌陀寺記」에 의하면 이 절은 고려 950년(광종 1) 혜거국사惠居國師가 창건하여 '미타사'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047년(문종 1) 석탑을 조성하여 탑골승방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1314년(충숙왕 1)에 혜감국사慧鑑國師가 중수重修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는 1459년(세조 5) 단종端宗의 왕비인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가 중수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미타사 서쪽의 정업원 · 동망봉 · 자지동천 등에 정순왕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어 1801년(순조 1)과 1836년(헌종 2)에 거듭 중수되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현재의 「미타사기」는 훗날인 1992년, 주지 자원慈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탑골'의 유래가 된 육층석탑의 아래 3단이 고려시대의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미타사기(彌陀寺記)」



미타사 육층석탑

현재 미타사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 총 다섯 점이 봉안되어있다. 미타사 아미타후불도彌陀寺 阿彌陀後佛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8호), 미타사 지장시왕도彌陀寺 地藏十王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9호), 미타사 신중도彌陀寺 神衆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0호), 미타사 칠성도彌陀寺 七星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1호), 미타사 백의관음도彌陀寺 白衣觀音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2호)가 그것인데, 모두 19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하던 화풍을 띠고 있어 불교 미술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9]



미타사 아미타후불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8호



미타사 지장시왕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9호



미타사 신중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0호



미타사 칠성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1호



미타사 백의관음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2호

보문사普門寺

미타사가 탑골승방을 대표할 수 있는 절이라면 보문사는 보문동을 대표하는 절이라 할 수 있다. 보문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문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보문사는 고려시대인 1115년(예종 10)에 담진曇眞 스님, 즉 혜조국사慧照國師에 의해 창건 되었다고 전해진다. 1962년 근현대 불교학자인 퇴경 권상로退耕 權相老가 쓴 『퇴경당전서退耕堂全書』의 「보문사일신건축기普門寺一新建築記」에 의하면 담진이 창건한 이후부터 비구니들이 머물며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성을 기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건 당시부터 17세기까지 기록이나 유물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웅전이 영조 재위기(1721~1776)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졌으나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지붕을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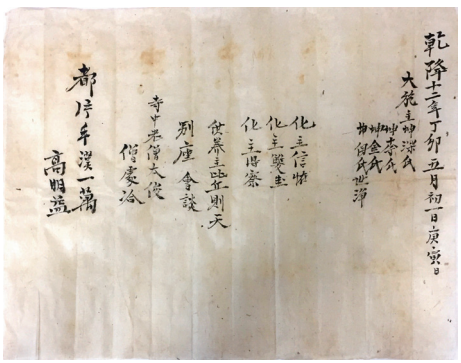
보문사 일주문

하는 과정에서 상량문上樑文 3종과 주화 100점, 복장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건물의 공사나 보수 과정을 기록한 글인 상량문 3종은 각각 건륭乾隆 12년, 도광道光 4년, 동치同治 4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각기 1747년(영조 23), 1824년(순조 24), 1865년(고종 2)에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대웅전이 1747년에 처음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으며, 1747년 상량문에 작성된 시주자가 모두 여성인 점과 1824년 상량문에 소임자가 모두 비구니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보문사가 비구니 승방이었음이 규명된 셈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해방 이후 주지 송은영宋恩榮이 취임하면서 불사 중흥과 건물 중창에 노력하여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비구니의 독립적 권리와 능력을 인정받고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을 설립하였고, 이어 비구니와 여성의 위상을 드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불교 보문종을 창종하여,



보문사 대웅전


2017년 9월 대웅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 1종.
건륭 12년(1747, 영조 23년) 작성된 것으로,
보문사 대웅전이 이 시기 건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세계 유일 비구니 종단의 총본산으로 자리 잡았다.

보문사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2년 여에 걸쳐 사찰 뒤쪽 돌산에 조성된 석굴암을 들 수 있다. 이 석굴암은 경주의 신라 석굴암石窟庵을 축소 재현한 것으로 당시 이목을 끌었다. 또한 석굴암 앞에 위치한 팔각구층사리석탑은 1978년 조성된 것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내부에 봉안되어 있다. 더불어 송은영 주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은영유치원 건물 5층에는 만 명의 불상을 봉안한 만불전萬佛殿이 있다.



보문사 석굴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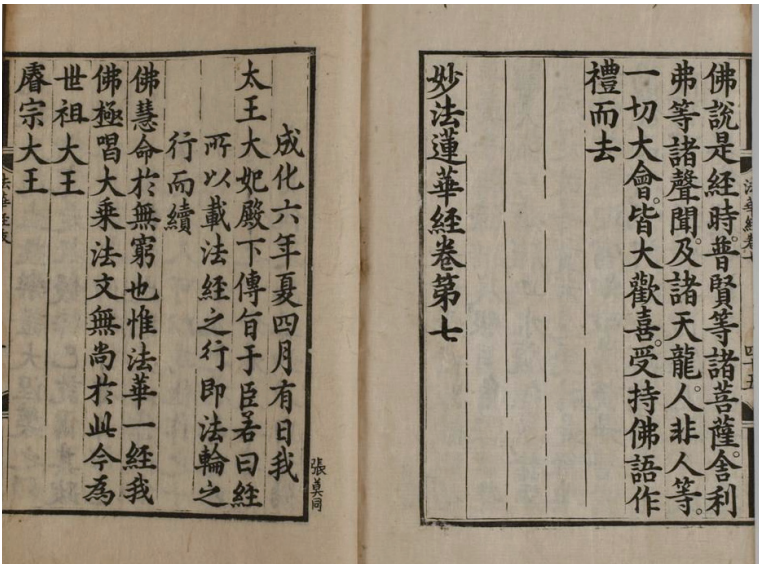
보문사 석굴암 내부

보문사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 1점과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 3점이 보관되어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3~4, 권5~7(보물 제1164-2호), 보문사 석가불도普門寺 釋迦佛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보문사 신중도普門寺 神衆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9호), 보문사 지장시왕도普門寺 地藏十王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0호)가 그것이다.



보문사 팔각구층사리석탑

이중 보물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3~4, 5~7妙法蓮華經卷三~四, 五~七'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주도하여 간행한 불경이다. 서두에 남아있는 김수온金守溫(1410~1481)의 발문에 간행 시기와 연유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보존상태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또한 당대 일류 각수刻手들이 판각에 참여하여 정교하고, 정밀


佛說是經時普賢等諸菩薩舍利
弗等諸聲聞及諸天龍人非人等
一切大會皆大歡喜受持佛語作
禮而去

妙法蓮華經卷第七

成化六年夏四月有日我
太王大妃殿下傳旨于臣若曰經
所以載法經之行即法輪之
行而續
佛慧命於無窮也惟法華一經我
佛極唱大乘法文無尚於此今爲
世祖大王
睿宗大王

보문사 묘법연화경
보물 제1164-2호

하게 인출하여 먹색이 진하고 고르다.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한 불교 경전으로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는데,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보문사 소장의 묘법연화경은 글자의 깨짐과 계선의 마멸 상태로 보아 초인본은 아니고, 성종연간(1470~1494)에 간행된 후인본으로 보인다. 동일한 판본으로는 보존상태가 온전하고, 인쇄 상태와 지질도 뛰어나므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10]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석가불도, 신중도, 지장시왕도 등은 모두 기록을 살펴보면 대웅전이 중건된 지 2년 후인 1867년(고종 4)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 그림 모두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화의 모습을 띠

고 있으면서도, 구도構圖 상에 특이한 부분이 더러 엿보이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 불화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중 신중도에는 화기畵記가 남아 있어 불화 조성과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름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궁尙宮의 시주로 불화 조성 경비가 마련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 사찰의 불사에는 상궁을 비롯한 궁중여인들의 시주가 눈에 띄는 경향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11]



보문사 석가불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보문사 신중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9호



보문사 지장시왕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0호

동망봉에 얽힌 이야기

보문동6가와 종로구 숭인동 사이 청룡사 앞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가 있다. 조선시대 단종端宗이 어린 나이로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멀리 강원도 영월로 귀양 가 있을 때,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가 정업원淨業院(현재의 청룡사로 추정)에 머물며 매일 봉우리에 올라 단종이 머물던 영월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이에 영월이 있던 동쪽東을 바라보던望 봉우리峯, 즉 동망봉東望峯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12]



단종의 상상어진
김호석 화백, 2009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은 세종世宗의 손자이자 문종文宗의 아들로, 1452년(문종 2) 문종이 사망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나이가 어렸고,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대신들과 능력 있는 숙부들이 많아 단종의 왕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치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고, 2년 뒤인 1455년(단종 3) 왕위를 빼앗기에 이른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숙부 수양대군이 바로 조선의 제7대 왕인 세조世祖이다.

정순왕후 송씨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단종과 혼인한 것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뒤인 1454년(단종 2)이다. 정순왕후의 나이는 15살이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처음엔 상왕上王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그의 존재가 반란의 단초가 될 것을 염려한 세조에 의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당했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길을 떠났다. 그리고 단종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단종의 정비였던 정순왕후 역시 왕비의 지위를 잃고 일반 부인으로 강등당했다. 정순왕후는 신분이 강등된 후에도 정업원에 머물면서 매일 청룡사 앞의 봉우리에 올라 단종이 유배 간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정순왕후는 1521년(중종 16)까지 생존하여 비교적 장수하였기에 정순왕후에 관하여 구전되는 이야기가 여럿 남아 있다. 특히 정순왕후가 강등된 이후 생활이 매우 곤궁했고, 염색업과 채소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염색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소도 남아 있다. 낙산 자락에 위치한 '자지동천紫芝洞泉'이 그것이다. 정순왕후는 생계를 잇기 위해 자줏빛을 띠는 풀인 자초紫草를 이용하여 비단에 물을 들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이때 화강암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비단을 빨아 자색 물을 들였는데, 바로 이 샘물을 '자주우물' 또는 '자지동천'이라 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이를 따서 자줏골, 자주동이라 불렀다고 전한다.[13] 항간에는 이 곳의 물에 흰 비단을 담그자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바위 위 '紫芝洞泉' 네 글자가 새겨져있다.



'자주동샘' 표석

채소 장사에 관련된 장소도 존재한다. 동망봉에서 내려와 동묘로 향하면 '여인시장' 터가 있다. 현재는 번잡스러운 시장 거리일 따름이지만, 과거에는 끼니를 잇기 어려웠던 정순왕후를 돕기 위해 마을 여인들이 금남禁男의 채소시장을 열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곳이 금남이었던 이유는 왕후 일행을 감시하는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한다.[14]

정순왕후와 단종에 얽힌 이야기들은 매우 불행하게 느껴져 절절하게 다가온다. 왕의 정비라는 높은 위치에 있던 여성이 남편과 지위를 동시에 잃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감정을 일으켰다. 이러한 시각은 근대 시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숭인동(崇仁洞). 숭신방(崇信坊)의 '숭'자, 인창방(仁昌坊)의 '인'자를 따서 숭인동이라 지은 이름이다. 여기는 단종대왕비의 뼈에 맺힌 눈물의 팔십 평생이었고 최후까지 모시던 시녀 3명의 단성(丹誠) 어린 생애가 있다. 정업원(淨業院)이 바로 거기다.

대왕비 송씨(宋氏)는 나중 노산군(魯山君)이 되신 대왕이 영월에서 죽음을 당한 후에 영빈(英嬪)으로 봉함을 마다하고 중이 되어 이 정업원에 머무르며 팔십 평생을 부처님 앞에서 지냈다.

국모(國母)의 지극한 영화로부터 이제는 한낱 비명에 죽음을 당한 남편을 위하여 수절하는 승이 되어 베옷 입은 송씨를 시녀 3명이 평생을 모시고, 거리에 나가 받아오는 시미(施米)로 입에 풀칠을 하며 늙었다.

삶이 워낙 이렇게 구차한지라 채소나마 제때 입맛대로 드릴 길이 없어 시녀 3명의 눈물이 마를 날 없으매 동리 여인들이 왕비께 진공(進貢)하라고 일부러 동묘 옆에 나물장을 버리고 철 찾아 채소를 진공하더니 이

로 연유하야 여기 채소시장이 생겨서 오십 년 전까지도 여기는 여인의 나물장으로 유명하였다.[15]

이처럼 정순왕후와 단종을 동정하고 명복을 빌어왔던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불행하고 어려운 삶만이 강조되었다. 특히 정순왕후를 한 많은 삶, 사랑 잃은 여성의 모습, 그리고 신분이 수직 하락함에 따라 간신히 연명했던 존재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정순왕후는 1521년(중종 16)에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3년 전인 1518년(중종 13)에 중종에게 상언을 올려 정미수鄭眉壽의 아내 이씨에게 재산을 상속하길 청했다. 정미수는 단종의 친누나인 경혜공주敬惠公主의 외동아들로 문종의 마지막 혈육이었다. 또한 1509년(중종 4) 정미수를 시양자侍養子로 삼아 후사로 세우고 유산을 상속하겠다 밝힌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정미수가 후사 없이 1512년(중종 7)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순왕후는 정미수 처 이씨에게 별급하겠다는 상언을 올린 것이다.[16] 그렇기에 정순왕후는 사후 정미수 집안의 선산인 경기도 양주 건천면에 묻혔고, 정미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미수는 성종 대부터 관직에 올라 중종반정中宗反正에도 참여하여 정국공신 3등으로 책록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종1품 의정부 우찬성까지 오르는 인물이다. 이런 정미수가 정순왕후의 시양자가 된 상황에서 정순왕후가 궁핍한 삶을 살며 직접 생업에 나서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순왕후가 머물렀다 전해지는 정업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녀는 스스로 '정업원 주지'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업원은 사대부의 집안이나 궁중의 여자들이 출가하여 머물던 승방 중 하나로, 여기에 머물던 비구니들은 대부분 상당한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정순왕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미수에게 상당한 양의 재산을 상속하였다.[17]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금껏 구전되어 온 정순왕후에 얽힌 이야기는 상당히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순왕후가 단종을 향해 가졌던 애틋함과 그리움, 절절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 내 몸이 또한 후사가 없는 과부로서 몸이 죽은 후의 여러 가지 일을 의탁할 데가 없어서 밤낮으로 슬퍼하여 울고 있던 차에, …[18]

이는 정순왕후 송씨가 1518년(중종 13), 후사를 부탁하며 남긴 글이다. 이는 정순왕후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유일하게 남긴 발언이며, 이를 보아 단종의 죽음이 어떤 고통을 끼쳤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측은하게 여긴 것일까? 1771년(영조 47) 6월 이 곳에 방문한 영조는 정순왕후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청하여 들었다. 그 후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정업원 터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석을 세우고, 정순왕후가 매일같이 올랐던 봉우리에는 '동망봉東望峯'이라는 세 글자를 직접 써서 바위에 새기도록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



동망봉 산신각

했다.[19] 현재 「정업원구기」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동망봉'이 새겨진 바위는 남아있지 않고, 일제강점기 채석 작업 중 사라졌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동망봉의 동쪽, 보문동 자이아파트 단지 끝자락에 '동망봉 산신각山神閣'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재액을 예방하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리는 '동망봉 제례'를 지내고 있다. 이 제례의 대상이 바로 정순왕후와 동망산신령이다. 이 동망봉 제례는 비운의 삶을 살았던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고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원하여 시작되었다는 설화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민문기)

3.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 반듯한 골목 속 도시형 한옥[20]

보문동의 골목으로 들어서면 다소 생소한 풍경이 펼쳐진다. 곳곳에 보이는 한옥과 30년은 훌쩍 넘겼을 것 같은 '양옥'과 곧고 넓게 뻗은 '골목'이 보여주는 묘한 이질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주상 복합 건물, 거대한 아파트 단지 끝자락에 위치한 전통사당(동망각)은 이곳이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공존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여러 시대가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곳,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볼거리가 되는 이 마을의 현재 모습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1914년 총독부는 한양을


반듯하게 뻗은 골목


골목 안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 도시형한옥

경기도에 속한 하나의 부府로 격하시키고, 영역도 줄였다.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해 있던 보문동 지역은 이때 경기도 숭인면 신설리에 속하게 된다. 보문동이 다시 경성에 속하게 된 것은 22년이 지난 후였다.

조선총독부는 경성의 개발을 두고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다.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도 총독부, 경성부, 서울 거주 일본인, 조선인 지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성의 개발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1921년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조직된 것이 경성 도시계획 논의의 시작이었다.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전문가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속한 모임이었고, 자연히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제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경성 도시계획은 여론 환기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안의 작성까지 나갔지만, 대공황과 맞물려 재정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총독부에서도 반대하여 실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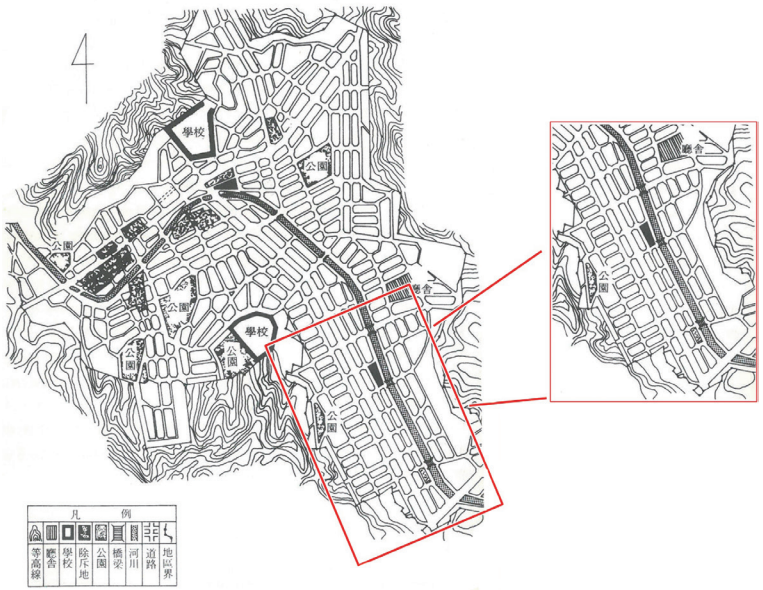
1930년대 총독부는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조선을 본격적인 군사적·공업적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도시 계획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국책적 의제'로 설정되었다. 이때 '시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도시가 자연 발생한 것이라면, 시가지는 대륙 침략을 위한 공업화 같은 '국책적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거점이었다. 1920년대의 그것이 '도시계획'이란 이름으로 준비되었다면 1930년대 총독부의 계획은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명명되었고, 경성 역시 '시가지'로 개발을 준비했다.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이 발표됐다. 옛 도심을 현상 유지하며, 새로운 지역을 편입시켜 통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1965년까지 인구 110만의 '대도시'를 건설하려는 것도 이 계획의 목표 가운

데 하나였다.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넓어야 했다. 기존 도심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 새롭게 경성으로 편입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편입 구역은 크게 경성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 한강 이남 세 지역으로 나누고, 이 세 지역은 동부는 청량리, 왕십리, 한강리 세 곳, 서부는 마포와 용강, 연희와 신촌, 은평의 세 곳, 한강 이남은 영동과 노량진 두 곳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보문동은 이 중 청량리 쪽에 속하며 다시 경성으로 편입되었다.

보문동 지역은 단순히 서울로 편입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돈암동, 성북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일부 지역과 함께 '돈암지구'로 명명되어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구 내 토지의 불규칙한 구획을 정리하고 공공시설물을 축조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는 1937년부터 진행되었다. '경성시가지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같은 해 시작된 중일전쟁과, 이어지는 태평양 전쟁 등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돈암지구는 같이 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등포지구(공업지구)와 함께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 보문동의 길이 곧게 뻗은 것은 이때의 결과물이다.

부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39년과 1940년 사이에 도시형 한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졌다. 1939년 8월 현재 동대문경찰서 건축계에는 매일 40여 건의 주택 신축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194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40년 조선총독부가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1,000호의 도시형 한옥이 들어섰다. 도시형 '한옥'이 건축된 것이 보여주듯 주민들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본래 총독부는 돈암지구를 '근린주구'이면서 '내선인' 혼주 지구로 계획했다. 하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
(출처 : 『성북구지』, 332쪽)
오른쪽은 현재의 보문동 지역을 확대한 것

지만 내선인 혼주 지구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지는 일본식 주거에 맞춰 장방형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들어선 건물들은 조선식의 도시형 한옥이었다. 자연히 새로 유입된 사람들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곳에 필지를 분양받고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1942년 7월, 돈암, 안암, 신설정의 전체 인구는 6만 9,904명이었는데 이중 일본인은 1,001명(1.43%)에 지나지 않았다.

도로의 건설과 시장의 설치

〈표 1〉 1939년도 성북구 지역의 도로망[21]

등급	유별	번호	로폭	연장	기점 중요경유지 및 종점
대로	3	5	25	3,050	신설동-돈암동
		6	25	4,800	원남동-돈암동-종암동
		7	25	1,140	신설동-안암동광장-제기동
		8	25	1,890	안암동광장-용두동-하왕십리동
		10	25	2,000	제기동-종암동지내 시경계
중로	1	9	20	450	안암동광장-제기동
		15	20	1,750	종암동-임업시험장 남쪽-회기동
	2	12	15	860	혜화동광장-성북동
		13	15	950	돈암동-성북동
		14	15	1,850	돈암동-돈암동
		15	15	1,220	신설동-안암동
	3	15	12	1,920	창신동-신설동-돈암동
		17	12	1,130	돈암동-돈암동
		20	12	720	안암동 광장-개운사앞
		21	12	2,120	제기동-종암동

보문동은 한양도성의 동대문인 흥인지문으로 나와 신설동을 거쳐 동쪽으로 가는 길과, 동소문인 혜화문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어 동북으로 향하는 길의 중간에 위치한다. 또한 종암동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했다. 양 교통로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는 없으나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도 아니었다. 다만 도로 정비는 매우 부실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 창경원-돈암정 구간이 개수되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교통수단이었던 전차가 처음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98년이다. 미국인 콜브란Collbran, H은 고종의 홍릉洪陵 행차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세우고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 8.1㎞의 단선 전차 궤도를 부설했다. 첫 운행은 1899년 5월에 시작됐다. 이 노선은 자연히 현재의 신설동역을 지나갔다. 지금도 신설동역에서 보문동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되니 보문동 지역은 근대 초기부터 전차라는 교통의 세례를 받은 지역이었다.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 1941년에는 혜화로터리에서 지금의 성신여대입구역까지 전차 노선이 연장되기도 했다.

버스도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버스의 도입은 전차보다 거의 30년이 늦었다. 1928년 2월 경성부가 운영하는 부영府營 운행 계획이 세워졌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4개 노선 운행도 이때 결정되었다. 버스는 개설 초반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전차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차츰 전차는 시내, 버스는 교외를 운행하는 것으로 역할이 조정되었다. 보문동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도 이런 흐름에서 생겨났다. 1930년대까지 경성 시내에서 개운사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왕복운행을 하였는데, 이 버스의 노선은 자연 보문동을 지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가 각각 안암동과 보문동에 생기자 점차 노선도 연장되었다. 1935년~36년 사이 안암동까지 가던 버스는 종암동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당시 버스는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보문동 지역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신설동까지 걸어가서 전차를 탈 수도 있었고, 버스를 타고 돈암동으로 나아가 전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다. 이태준의 단편 「장마」를 보면 돈암동에서 온 버스가 창경궁과 창덕궁 앞을 지나 시내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22] 이는 버스 자체로도 충분히 운송기능을 다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버스는 태평양 전쟁 이후 부족해진 기름과 고무,



일제강점기의 버스
지금의 버스와는 다른 모습이다

부속품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진다. 다시 버스가 제대로 운행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학교와 시장도 계획되었다. 돈암토지구획정리계획평면도를 보면 두 곳의 학교부지와, 두 곳의 시장부지가 보인다. 현재 두 곳의 학교부지에는 돈암초등학교와 경동고등학교가, 두 곳의 시장부지에는 돈암시장과 보문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네 곳 모두 당시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의 설치는 다소 늦어졌다. 구체적인 돈암지구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42년이었다. 당시 계획은 이듬해인 1943년에 시장을 여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시장이 열린 것은 1944년 5월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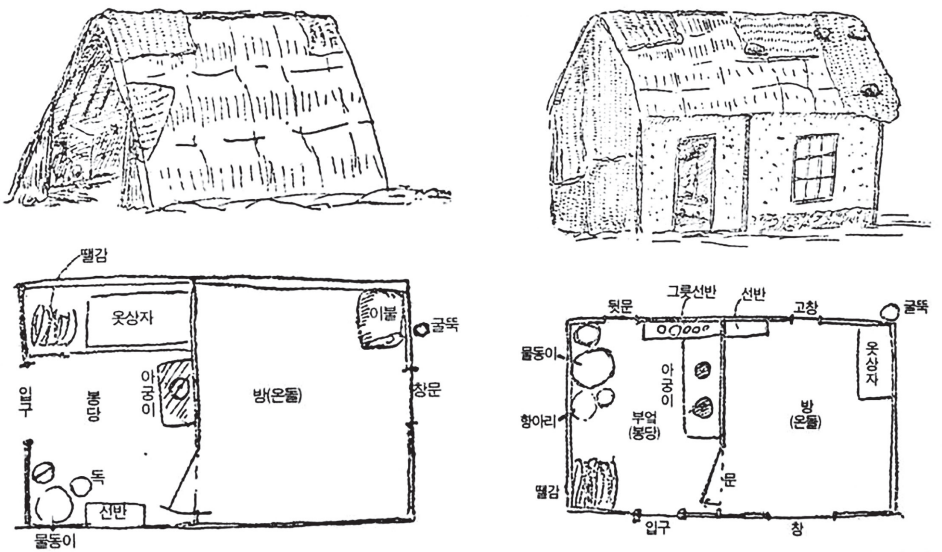
도시개발의 그늘[23]

보문동 지역은 근대화되면서 반듯하고 넓은 골목과 깔끔한 도시형 한옥으로 채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슬픈 일들도 벌어졌다.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토막민으로 대표되는 도시 빈민은 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토막이 국유지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경성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20년에 25만 명이었던 경성부의 인구는 1926년에는 33만 6천명으로 34.43%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24] 인구는 급격히 늘었지만, 경성에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주택이 없었고 그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당시 경성부로 몰려든 사람들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곳에 아주 기초적인 주거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토막'이라고 불렀다. 안암정과 신설정(현재 보문동을 포함)에는 토막이 많이 존재했다.

> 경성부내에는 삼천여 호 토막이 산재하였고 세궁민의 증가에 따라 연년 증가의 상태로 경성부 당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와 병행하여 이의 영구적 방책으로 세민지구(細民地區)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중략) 돈암지구 내에 신설정, 안암정에는 현재의 하천부지(河川敷地) 등에 칠백 호의 토막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면적부조 공유지 오천이백 평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로 되었는데 (후략)
>
> —『동아일보』, 1938년 10월 28일

이 기사에 따르면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1938년 당시 경성부 내의 토막은 총 3,000여 호였는데 이중 1/4에 가까운 700여 호가 안암천을 중심으

로 현재의 안암동과 보문동 지역(나아가 신설동까지)에 산재해 있었다. 이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보고서에서는 토막을 '하룻밤 사이에 가마니, 나무판자 조각 등을 대충 모아 재생한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다.[25] 물론 온돌 등이 갖춰진 곳이 많아 위의 묘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허름한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 토막은 매우 협소했다. 좁은 곳은 1평~1.5평 내외의 1실(단칸 방) 구조가 대부분이었으며, 방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1인당 평균 평수는 0.6평 이하가 전체의 79.4%에 달했다. 기본적인 온돌 시설마저 없는 곳도 6%나 됐다.[26] 한 세대에 4~6인이 사는 경우가 전체에 57.9%에 달했고, 한 세대의 평균 인원수는 4.8명이었다. 이태준 소설 「달밤」 속 황수건은 일곱



A형토막(왼쪽)과 B형 토막(오른쪽)
(사진출처 :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박현숙 엮음, 『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2010, 177쪽과 179쪽)

식구가 한 집에 산다고 하였는데, 당시 그의 집이 토막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토막민 평균보다 더 많은 식구가 한 집에서 사는 셈이었다.

자연히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전체의 51.8%는 전용 화장실을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었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가 22.6%, 두 달에 한 번하는 경우가 29.1%였고, 단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보지 않은 경우도 11.5%에 달했다. 물론 목욕탕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씻지도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 이외에 전신을 다 씻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27]

그럼 이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1910년에 약 1천 3백만 명이었던 경성의 인구는 1930년에 2천만 명을 돌파하고, 1930년 중반에는 2천 3백만 명에 육박한다. 25년 만에 약 77%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28] 이런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것도 아니었다. 1930년 조사를 보면 경성의 무업자無業者는 무려 65.32%에 달했다. 물론 당시의 무업자에는 학생, 지주, 종속자 등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의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을 곧 실업률로 볼 수는 없다.[29]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직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유업자有業者, 즉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경성부 인구의 34.58%였는데 이것을 일본인과 조선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그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가운데 직업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3.9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사도우미, 여급, 간호원, 전화교환원, 점원 등으로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회 분위기도 이에 한 몫을 했다. 이케다 키요시는 '말을 바꾸어 직업여성에게 다시 고한다. -

장래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직장을 버리고 여성 본래의 사명인 가정으로 돌아가 심창深窓의 현모양처 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30] 이 글은 당시 사회가 여성의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다. 직업도 많이 없고,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특히 조선인 여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인 여성에 비하면 조선인 남성들의 상황은 나은 편이었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 취업률로만 보면 남성 유업자의 비율은 53.52%로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조선인 남성의 경우 거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단순한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지위가 높은 공무 자유업 종사자는 9%에 불과했다.[31]

하층으로 가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1940년의 자료이긴 하지만 토막민으로 불리는 당시 사회 최하층 사람들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남성은 736명이 유업자임에 반해, 여성은 83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성 유업자에 40%가 넘는 301명은 날품팔이 노동자였다. 나머지 직업도 수레꾼, 마차꾼, 청소 인부, 운송 인부, 운반 인부, 화물운반 짐꾼, 구두공, 넝마주이 등 단순 노동에 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직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래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다. 여성의 경우 작부酌婦와 여급 등이 직업으로 확인되었다.[32]

한 세대 당 유업자 수는 1명인 경우가 63%, 2명인 경우가 26%로 합하면 거의 90%에 육박했다.[33] 조사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그들의 기술에 상응하는 직업이 가까이에 없기 때문'[34]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세대 당 유업자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전체적인 유업자 비율이 낮은 것

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들의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1940년 기준 토막민 남성 유업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1.30원이었다. 재봉사, 벽돌공, 미장이 등 기술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토막민들이 그 외의 조선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았으며, 막노동과 인부 등 힘쓰는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수입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나마도 전체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35] 가난은 그들의 운명처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위의 신문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을 그냥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세민지구, 즉 이들을 수용할 빈민지구를 따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성부는 이들을 위해 5,200평의 부지를 내어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일견 제국주의 권력인 경성부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소외될 도시 빈민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 경성부에서는 지난 2일 부내 373번지의 수필의 국유지에 거주한 토막민 400여 호에 대하야 돌연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어 청천의 벽력을 만난 듯한 동 주민 일동은 크게 낭패하여 한문희(韓文熙) 외 전 주민 400여 명이 연서하야 지난 8일부로 당해 부당국과 도당국에 대하야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처하여 달라는 요망을 하였다는데 부에서는 신년도 계획으로 신설정 관통도로를 신설하게 되면서 동 국유지 2,343평을 부내 안암정(安岩町) 함학운(咸學震)에게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로 공동주택건축을 조건으로 대부허가를 하고 십수 년간 거주하는 연고자에게 대하여 그와 같

이 돌연 철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데 전기 함학진은 재작년 중에 동정 369번지에 200여 간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바 전기한 바 도로계획으로 인하야 그 일부의 철훼를 당하게 되고 그 댓가로서 전기 국유지를 빈민구제의 명분하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는 조건으로 전기 국유지 대부를 받은 것 이라는데 전기 한씨는 기왕 건축한 주택에서 매간에 대하야 3원 30전 내지 3원 60전의 월세를 증수하고 있는 터인데 과연 그의 사업이 명실공히 빈민구제의 사업이 될지도 의문일 뿐더러 400여 호의 토막을 철훼하고서까지 강행하려는 그의 사업전도에는 문제가 횡재하여 있을뿐더러 문제가 문제인만큼 그 진행여하는 실로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8년 4월 19일

다소 장황하게 인용한 위의 기사는 앞선 기사보다 6개월 이상 앞선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4월 2일 경성부는 전격적으로 신설정 지역에 있는 토막 4백여 호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다. 이에 반발하여 전주민은 경성부와 경기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경성부가 이들 토막의 철거를 결정한 것은 신설정을 관통하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였다. 더 주목되는 것은 토막민들에게 함학진이라는 개인이 이미 지어놓은 주택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도 적혀 있듯, 그는 한 칸마다 3원 30전에서 3원 60전까지의 월세를 받는 일종의 임대사업자였다. 기사에서도 이런 정책이 빈민구제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음을 꼬집고 있다. 당연히 주민들을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끊임없이 저항했다.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도 손 놓고 지켜 볼 수는 없었다. 토막민은 계속



돈암지구 토막 강제철거 현장
『동아일보』, 1939. 7. 6.

늘어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했다. 거기에 더해 토막민들은 도시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한 공급원이었다. 이전의 대책은 이들을 마냥 외곽으로 내모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항도 계속 되었다. '세민지구' 설립계획은 이런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 나온 계획이었다.

토막민을 쫓아낼 대상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한 당국의 인식 전환은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이것은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다. 세민지구 정책을 가장 먼저 시범실시하기로 한 곳이 바로 돈암지구였는데,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일제강점기 말에 간신히 끝날 정도로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세민지구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책정됐던 국가보조금도 기대할 수 없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은 군비 지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세민지구 조성계획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절됐다.

토막민을 필두로 하는 도시빈민 대책에 대한 당국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 이번에는 작년부터 착공하여 3개년 계속 공사로 목하 진행되고 있는 돈암지구 정리구역 내에 있는 700호의 토막이 또 문제가 되어있으니 돈암정 신설정 안암정 등지에서 공사개시 이래 벌써부터 토막촌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거듭해왔던 바 이제는 거기서 물러나 종암정 모래강변에다 130여 호나 모여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부 토목과에서는 다시금 이들을 철퇴하고자 이 삭풍한설 혹한 중에 강제철훼를 시작하여 그네들 중에는 정신상실자까지 있었고 호소애원하는 소리는 일장의 참경이었다고 하니 (후략)
>
> —『동아일보』, 1938년 12월 23일

위의 기사는 강제철거를 다루고 있다. 10월에 세민지구 이야기가 나오고 겨우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12월은 한 겨울이었다. 더구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들은 돈암, 신설, 안암동 지역에서 이미 쫓겨나 종암동에 다시 자리잡은 상황이었다. 갈 곳이 없는 것은 당연했고, 추운 겨울은 얼어 죽는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는 시점도 아니었다. 호소하고 애원하다, 그것도 안 되니 정신을 잃은 사람도 생겼다. 상상만 해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일제 당국의 인식 변화는 서류상의 것으로 그쳤다.

해방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심해졌다. 독립이 되자 해외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분단의 전조 속에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서울에 자리잡았다. 해방 직후 겨우 90만 명을 웃돌던 서울의

인구는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약 142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36]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번듯한 집을 마련할 리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서울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했다.

1950년대 서울시 무허가 정착지 분포

위 치	지 역
도심 2km 이내	양동, 도동(후암동), 오장동, 남창동, 충무로, 남산동, 효자동, 필동, 낙원동, 관철동, 인현동, 초동, 청계천, 충정로, 정동
도심 2~5km	광희, 신당, 옥수, 왕십리, 동선, 동소문, 삼선, 보문, 창신, 숭인, 신설, 효창, 용산, 원효로, 신계, 서빙고,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도화, 공덕, 마포, 만리, 아현, 북아현, 대현, 대흥, 냉천, 현저, 홍제
도심 5~10km	금호, 행당, 돈암, 종암, 성북, 전농, 제기, 마장, 답십리, 용두, 청량리, 뚝섬, 면목, 이문, 휘경, 노량진, 흑석, 상도, 대방, 신길, 영등포

위의 표를 보면 삼선, 보문, 삼선, 동소문, 돈암, 종암, 성북동 등이 서울시의 무허가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무허가 정착지는 주인이 번듯하여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사유지였을 가능성보다, 관리가 소홀한 국유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토막촌은 해방 후 서울의 무허가 정착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해방은 되었지만, 가난과 전쟁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과, 이재민과 전쟁 난민들에게 정착할 시유지(혹은 국유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히려 무허가촌을 증가시켰다. 무허가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서울시는 김현옥 시장의 주도하에 '무허가건물 연차별 정리계획(1965~1970)'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1967년에

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불량건물 정리계획(1967~1969)'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계획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시 외곽에 대단위 정착촌 건설 및 무허가 건물 거주자 집단 이동 ②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을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민에게 지원 ③ 시민아파트의 건립이다.

하지만 모두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부작용을 낳았다. ①의 경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본적인 제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추진되었으며, 그것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③의 부작용을 보여준 것은 와우아파트의 붕괴였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려했던 사업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그래도 계획은 계속되었다. 목동, 상계동, 중계동, 사당동, 천호동 등 도시 외곽에 대규모 집단이주 정착지가 조성되었다. ②번의 계량 및 양성화 사업도 진행되었다. 1982년까지 성북구의 많은 무허가건축물이 이때 양성화되었다.

이제 보문동 지역에서 토막을 찾을 수 없다. 무허가건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천변은 잘 정리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 북적이는 시장, 높이 솟은 아파트는 삶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때 이곳이 그 누군가의 힘겨운 삶의 터전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중요한 방편일 것이다.

(박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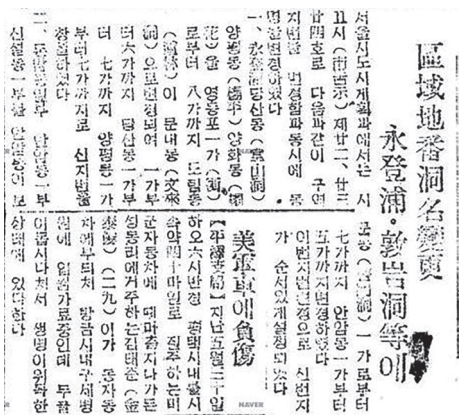
4. 광복 이후의 보문동

보문동1~7가(1947) : 동대문 밖 신흥주택지

보문동이란 행정동(동장 관할 구역, 1960년대 후반까지는 동회)이 생긴 것은 1955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보문동이란 명칭은 쓰이고 있었다. 이를 다음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돈암동 일부, 안암동 일부,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1가로부터 7가까지, 안암동1가부터 5가까지로 변경하였다. 이번 지번 변경으로 신(新)번지가 순서 있게 설정되었다.
>
> —『동아일보』1947년 6월 4일「구역지번동명(區域地番洞名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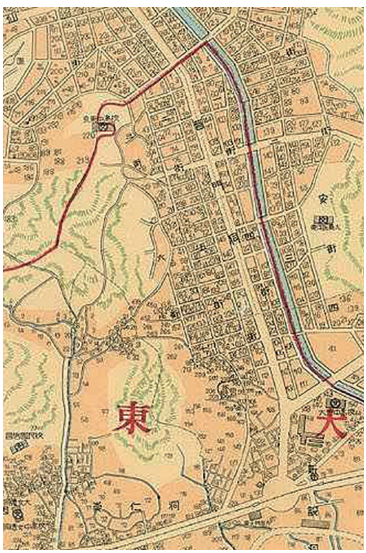
1936년 일제에 의해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고 광복 후인 1947년 서울시가 이미 조성된 택지를 분할하여 동명과 지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돈암·안암·신설동 일부 지역을 떼어 보문동1~7가와 안암동1~5가라는 명칭으로 구획 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보문동이란 행정동(동회)이 생기기에 앞서 이미 보문동1~7가라는 이름의 법정동이 존재하였다는 말이 된다.


區域地番洞名變更
永登浦·敦岩洞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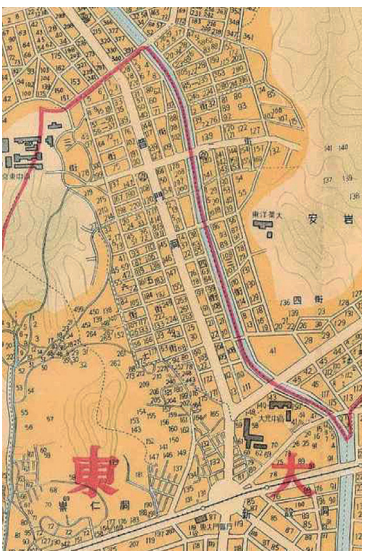
「구역지번동명(區域地番洞名變更)」
『동아일보』1947년 6월 4일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법정동과 행

정동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른다. 다만 보문동이란 마을 이름의 연원이 보문동이라는 행정동명에 앞서 1947년에 제정한 보문동1~7가라는 법정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동명의 탄생이 오늘날 보문동의 도로와 골목과 필지를 결정지은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늘날 분당, 일산, 동탄, 운정 같은 수도권 신도시의 이름들이 신도시의 계획과 조성 과정에서 미리 관청에 의해 새롭게 부여되고 그것이 계속 도시의 이름으로 쓰이면서 지명으로 굳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다시 말해 보문동이란 이름은 8·15 해방을 전후해 서울 동대문 바깥에 조성된 작은 신도시의 이름이었다고 보면 된다. 신도시의 이



『지번입서울특별시가지도』
(1958년, 1:9,000, 77.0×107.2cm, 서268)의
보문동 부분



『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가도』
(1968년, 1:9,000, 78.5×108.6cm, 서14465)
의 보문동 부분

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던 관리가 인근의 사찰 보문사에서 힌트를 얻어 지었을 따름이다. 70년 묵은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의 조상뻘, 바로 보문동1~7가다.

동대문구 고사남 · 북부동(1946~1955) : 모래벌판 신흥주택지

일제에 의해 신도시, 당시 말로는 신흥주택지로 조성된 보문동이었지만 1950년 무렵 이 지역은 오늘날처럼 조밀한 주택지대가 아니었다. 그 무렵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고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는' 허허벌판과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37] 그도 그럴 것이 1946년부터 1955년까지는 이 지역에 설치한 동회(지금의 행정동)를 고사남부동高砂南部洞과 고사북부동高砂北部洞 등 '모래 사砂'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는 지금의 보문시장 부근을 '모래말'이라 불렀던 데서 제정한 동회명이었다.[38] 보문동 경로당 박신원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보문동 일대는 조금만 파면 모래가 많이 나왔고 그 모래의 질이 아주 좋았으므로 건설 자재로도 나갔다고 한다. '질 좋은 모래가 나는 땅'이란 뜻에서 '고사高砂'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었을까?

1946년 서울시의 통학구역표를 보면 창신국민학교(현 창신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숭인, 창신동부, 창신북부, 창신서부, 신설정고사남부, 고사북부'라고 되어 있는데[39] 이로 보건대 고사남부와 고사북부는 아직 독립된 동회로 분화되지 않은 채 신설정(동)에 속한 작은 마을 정도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학권과 생활권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감안한다면 고사남 · 북부는 신설 · 숭인 · 창신 지역과 연결된 생활권 안에 있었음도 알 수 있다.

1958년에 발행된 서울 지도 역시 1950년대 보문시장 부근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려 준다. 지도를 보면 보문동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1~7가로 나누었을 때 주로 신설동 로터리와 숭인동과 가까운 6~7가에 지번들이 밀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문동 가운데서도 신설동에 가까운 쪽에 주택들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 '모래말'이라 부르던 보문시장 근방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1940년대 조성한 택지가 주택들로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인 1955년 무렵에 와서야 오늘날과 같은 보문동(행정동)의 경계와 동명이 새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동대문구 보문동(1955~1975) : 플라타너스, 도시형 한옥, 판자촌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가 신흥주택지 보문동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바탕이 잡혀가는 시기였다면 이후 1955년부터 1975년까지는 보문동이 점차 채워져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보문동을 채워갔던 것은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녹음과 더불어 평지의 수많은 도시형 한옥들과 천변과 산비탈에 들어선 판잣집, 무허가 주택 들이었다. 이러한 보문동의 변화는 당시 주요 일간지들에 보도된 여러 사실들에 힘입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다.

전쟁 이후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대문 바깥 보문동 인구도 급증했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는 단정한 도시형 한옥들이 미리 구획된 택지 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폭넓은 도로(지금의 보문로)에 심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이제 제법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보문동은 지난날 모래 휘날리던 신도시의 황량함을 벗고 쾌적한 주택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곳곳에서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960년 8월 13일자 『경향신문』에 보문동 주민 최요안 崔要安 씨가 투고한 기사를 보자.

> 돈암교와 신설동 사이를 가로지른 아스팔트 도로에는 플라타너스의 가로수가 우거진 녹음을 짓고 단정히 늘어서 있는데 동편의 안암동과 서편의 보문동은 서로 마주보며 조밀한 주택지를 이루고 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는 교통사고가 드물었는데 근자 1, 2년 사이에 갑자기 사고는 빈번해졌다. 버스, 합승, 택시 등 교통량의 급증과 더불어 인구가 는 탓이리라. (중략)
>
> 그러던 하루 도로에서 약 50미터 들어선 필자가 사는 보문동 주택지 일각에 갑자기 버스 시발(始發) 주차장이 생겼다. 버스가 들어설 만한 공지가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토건업을 하는 어떤 개인 집의 담과 창고를 허물어 그 집 뜨락을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었다. 100평 남짓한 좁은 그



보문동 항공 사진(1972)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평지의 한옥 지대와 산동네 주택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뜨락에는 겨우 몇 대의 차가 수용되고 십여 대에 달하는 나머지 차들은 골목 연변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팔십 명에 달하는 운전사, 조수, 기타 종업원을 상대하는 노점 음식점이 쇄도하여 일야축성격(一夜築城格)으로 도처에 닥치는 대로 판잣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주택가는 하루아침에 장바닥이 되고 말았다.

인근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여 평소에는 인사도 없던 사람들이 같은 걱정거리를 의논하기 위하여 웅성웅성 모이게 되었다. 소음, 지동(地動), 먼지, 화재의 우려, 풍기문란 등 각기 이야기하였는데 그 모든 것은 차라리 참을 수 있었다. 가장 큰 걱정은 천사와 같이 무심한 어린 아이들이 그 놀음터를 빼앗기고 이삼 분마다 주택가를 꽉 차게 내왕하는 버스의 위험 밑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경향신문』 1960년 8월 13일 「버스주차장과 천사」

근래 보문동의 인구와 주택이 늘면서 교통량 또한 급증하고 그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차고까지 불법적으로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하소연이다. 버스의 왕래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과 먼지에 시달리게 되었음은 물론 주변에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으니 이로 인해 아이들의 놀 장소마저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글이다. 신도시 보문동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에 시내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경향신문』 1961년 1월 31일자의 기사다.

30일 상오 서울시장실 앞 복도에는 약 200명이 밀려들어 많은 경관이 동원되었다. 보문동과 안암동의 주민들이 "글쎄 무슨 놈의 관청일이 6개월 전부터 진정서를 내도 버스를 안 넣어주니!" 분개가 보통이 아니었다. 현재 동대문구청 앞에서 서울역으로 나가는 시내버스를 돈암동 쪽으로 1,200미터 더 들어오게 해 달라는 것이 진정의 골자 "돼먹지 않은 것이 대표가 와서 말하면 업자의 앞잡이처럼 생각하니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동민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데모의 연유.

—『경향신문』 1961년 1월 31일 「증거 보이자고 데모」

당시에 서울 도심과 왕래하는 시내버스가 신설동 로터리만 지나기 때문에 신설동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보문동과 안암동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도심과 보문동, 돈암동까지를 잇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진정의 골자였다. 돈암동과 신설동 사이 보문동과 안암동의 인구와 주택이 늘어난 결과로 생겨난 주민들의 불만이었던 셈이다. 어쩌면 지금 보문동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들은 이때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덕분에 생겨난 것일는지 모른다.

위에서 든 사례들이 보문동 주민 가운데서도 중산층, 그러니까 주택 한 채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라면 그보다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바로 판잣집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1960년대 초반 보문동의 판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로 성북천변이었다. 이들 판잣집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물로서 당시 서울에는 홍은동, 보문동, 동부이촌동 등지에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대부



보문동 성북천변 판자촌(1980)
(출처: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보문동 성북천변 판자촌(1980)
(출처: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분 농촌에서 상경하여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천변 토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군사정부 하의 서울시는 1962년 초겨울, 이들 서울의 판자촌들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보문동 성북천변의 판잣집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약간의 보상금을 주거나 구로동의 난민주택 입주를 알선해 준다는 보상책을 내걸긴 했지만, 하루벌이로 생활하는 대다수 판자촌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생활 터전을 잃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보문동 판자촌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당시 최고 권력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좀 더 너그러운 조치를 기대하고 갔던 것이다.

> 26일 밤 서울 동대문서는 박의장 공관 앞에서 판잣집 철거 보류 데모를 하려고 한 이인수(23=보문동 204)씨 등 5명을 연행했다가 밤늦게 돌려보냈다. 이들은 보문동 개천 옆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 77가구(약 350명) 주민들로 주민 30명이 함께 이날 밤 8시 반쯤 박의장 공관 앞에 몰려가 데모를 하려다 경찰제지로 해산되었다. 동대문구청은 27일 보문동의 판잣집 철거에 착수했다.
>
> —『동아일보』 1962년 11월 27일「판잣집 철거 반대 진정 소동」

그러나 이와 같은 보문동 판자촌 주민들의 철거 보류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은 그해 11월 27일 성북천변의 판자촌 철거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이들 보문동 판자촌 주민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이후 1960년대 후반의 기록들을 보면 보문동에는 성북천변뿐 아니라 숭인 · 창신동과 연접한 산비탈 지대에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낙산이나 동망봉 같은 서울의 야산이란 야산은 판잣집들로 덮여가고 있었는데 보문동 역시 예외일 리 없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산비탈 지대의 판잣집들, 다시 말해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해서도 결코 온정을 베풀지는 않았다. 다만 '철거'라는 무시무시한 용어 대신 '양성화'라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애매한 용어를 들고 나왔다. 1966년 '불도저 시장' 김현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임명된 후의 일이었다. 1967년 서울시는 시내의 무허가 주택 13만 6,650동 가운데 4만여 동을 보수 · 양성화하고 나머지 9만여 동의 주민들은 새로 건립할 시민아파트와 경기도 광주대단지로 이주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는 보문동 산비탈 지대의 판잣집들도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66년말까지 등록된 무허가불량주택중 일부를 개량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 대상지역과 동수 및 양성화 기준을 확정, 각 구청에 29일 시달한 서울시는 제1차로 제방 도로부지 공사용지 고지대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105개 지역의 35,260동의 무허가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 양성화 기준을 보면 ①새로 짓는 건축물의 건평은 15평을 최저로 할 것 ②지붕은 기와나 슬레이트로 하되 반드시 유색으로 할 것 ③벽체는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벽돌로 할 것 ④굴뚝은 네모지게 쌓아올리도록 되어 있다. 구역별 양성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략)

◇ 동대문구 : ▲숭인동 산1, 56(650동) ▲보문동6가 209(150동) ▲보문

동 산7(218동) ▲청량리동 9(255동) ▲청량리동 2, 195(285동) ▲용두동 625(200동) ▲전농동 493(84동) ▲전농동 605(80동) ▲회기동 산4(126동) ▲답십리동 372, 222(268동) ▲답십리동 산12, 13, 40(340동) ▲휘경동 263(121동) ▲면목동 산53(173동) (이하 생략)

—『경향신문』 1968년 4월 29일「3만5천동 양성화」(※밑줄은 필자)

1968년 4월, 보문동 산비탈 지대의 무허가 불량주택 368동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양성화의 기준이란 게 까다로웠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15평 이상, 지붕은 반드시 기와나 슬레이트, 벽체는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 네모진 굴뚝. 당시 무허가 주택 거주자 가운데 15평 이상 되는 게 어디 흔할 것이며 또 있다 해도 이를 부수고 번듯한 새 집을 지을 만한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철거'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살던 집을 버리고 나가라는 소리였다. 그렇게 보문동 산비탈 지대 판자촌 사람들은 다시 변두리로 흩어졌다. 1971년 6월에도 서울시는 그런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보문동6가 198, 209번지 일대의 무허가 주택들이 포함되었다.[40]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양성화 사업이 오래 지속될 리는 만무했다. 1970년 시범아파트인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거주민의 이주를 강제하는 양성화 사업은 노동자와 빈민들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1972년 3월부터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을 대폭 수정·확대하여 '현지개량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사업은 일종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와 골목의 확장, 하수도 정

비, 축대 쌓기 등 공공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비용은 무허가 주택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토지를 해당 건물주들에게 유상으로 불하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철거나 양성화 사업보다는 해당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얼마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사업이었다. 1973년 1월 보문동6가 33번지 일대 67동이 이 사업의 시범 지구에 포함되었다.[41] 이후 보문동의 산동네에서 이러한 현지 개량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비록 많은 주민들이 떠나고 새로 유입되기를 반복했지만 예전 판자촌의 누추한 담장과 지붕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성북구 보문동(1975~1990) : '우리 골목의 변모'

1975년 보문동은 정들었던 동대문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북구로 편입되었다. 앞선 동대문구 시절이 보문동이 채워져 갔던 시기라고 한다면 성북구 시절은 그전까지 채워졌던 것들이 변모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지의 개량 한옥들이 하나 둘 양옥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갔고, 산비탈의 판자촌과 무허가 주택들은 지속적인 개량화 사업으로 정돈된 분위기를 찾아갔다.

이 시기에 박완서가 발표한 수필과 소설 중에는 1970년대 보문동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이나 관계들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당대의 충실한 기록이 되는 작품들이 많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보문동의 어느 골목, 어느 집, 어느 인물들로 시선을 옮겨 보는 것도 1970년대 보문동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먼저 수필 「노인」(1977)[42]의 한 대목부터 읽어보자.

벌써 10여 년 전쯤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통 사귀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에 친목이 대단했었다. (중략)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 간에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날의 인심에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박완서 산문집1『쑥스러운 고백』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10여 년 간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 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도리에 재목이 좋은 한옥이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으레 맞붙은 한옥 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티쯤 내 쌓았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완공될 임시도 또 싸운다. 2층에서 남의 집 안방이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여도 안 내다보면 될 게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으레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엔 쇠꼬챙이가 솟고, 차는 있건 없건 서터 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곤 사뭇 단수가 달라 뵈고 사람까지 달라 뵈서 상종들을 안 하려든다.

— 박완서 수필, 「노인」(1977) 중에서

수필은 한옥을 밀어내고 보문동에 들어서기 시작한 양옥들의 특징이 그 폐쇄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서가 보기에 한옥은 열림과 닫힘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골목에서 대문으로 마당으로 마루로 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이웃끼리 오고 가며 정을 나누는 공간. 반면에 양옥은 사생활과 사유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이었다. 그런 집의 구조에 적응한 사람들은 자연히 이웃 간의 왕래에 소홀해졌고, 동네마다 형성되었던 이웃끼리의 네트워크에서도 쉽게 배제되기 마련이었다. 주택 양식의 변화는 비단 외형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동네 인심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불쑥 들어서는 양옥들에 이질감을 느꼈던 보문동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내심 저 양옥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했다. 박완서는 한옥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무수한 불편들이 실은 한옥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어느 소설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부엌에서 안방까지 넘어야 할 높은 턱들, 겨울이면 벽창호와 문틈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외풍과 한기, 지붕과 벽에서 수시로 떨어져 내리는 흙덩이, 끊임없이 수리와 교체를 필요로 하는 질 낮은 자재들, 보장되기 어려운 사생활……. 이 모든 불편을 초래하는 한옥이 주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몸을 옥죄는 형틀 같은 것이라고 소설가는 말했다. 어떤 주부가 이 형틀을 벗고 싶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고 보면 그 시대 주부들의 구원은 오직 아파트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파트 분양 소식은 이곳 보문동 사람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아파트는 서울의 집집마다 숨어든 신神과 같은 존재였다. 이제 그 신 앞에서 보문동을 신흥주택지라 부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970년 중반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즈음, 보문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구舊 동네'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처음 갖는 집을 아파트로 하느냐 단독주택으로 하느냐엔 올케와 어머니의 의견이 대립했다. 올케는 아파트 편이었다. 첫째 난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 구공탄을 가는 구질구질한 일을 면할 수 있고, 부엌 등 모든 시설이 편리하니 식모가 필요 없고, 잠그고 외출할 수 있고, 이웃과 완전히 차단된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등등이 아파트를 편드는 이유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이 독립성이라는 걸 겁내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살인사건 같은 걸 다 이 냉정하고 철저한 독립성에 그 까닭을 두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론대로라면 이 나라에선 살인사건은 꼭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할 판이었다.

이웃끼리 고사떡 찌는 냄새도 훌훌 넘어오고, 지짐질 하는 소리도 지글지글 넘어가 서로 나누어 먹고 대소사를 서로 의논하고 도와주고 해야 사람 사는 동네라는 거였다.

올케와 나는 마주보고 눈을 찡긋했다. 나는 올케 편이었다. 나는 이웃사촌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이 구(舊) 동네가 싫었다. 도대체가 남의 집 일



보문동6가 산동네(1990)

> 에 너무 관심들이 많았다. 뉘 집 아들이 일류대학이나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서로 제일처럼 신이 나고, 떨어진 집엔 심란한 얼굴로 위로를 하러 몰려가고 노인네들 생일엔 서로 청해서 먹고 노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남의 집 내막을 알아내서 풍기고 흉을 보는 데도 선수들이었다.
>
> — 박완서 소설, 「닮은 방들」(1974)[43] 중에서

구식 집들로 가득 찬 구식 동네이니 집이라도 아파트를 닮은 신식 집을 짓는 게 당연한 듯 보였다. 한옥들 사이로 들어선 양옥들이 차츰차츰 보문동의 조감도를 변모시켜 갔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동네를 어느 날 박완서는 한옥 지구 서쪽에 있는 산동네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변해 가는 동네

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 이 산동네에 올라서면 이 산동네의 품에 삼태기에 담긴 듯이 안긴 우리 동네가 한눈에 들어온다. 원래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의 아름다운 동네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뚝 솟은 양옥 사이에서 이 빠진 자국처럼 밉다. 엉터리 사장님들의 허풍까지를 포함한 이런저런 추함들이 바로 우리 근대화의 한 모습일는지도 모르겠다.
>
> — 박완서 수필, 「우리 동네」(1977) 중에서

산동네에 올랐으니 바로 코앞 산동네 집들이 변해 가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 우리 동네의 서쪽은 산이다. 본래는 산이었지만 지금은 빈틈없이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산동네다. 이 산동네가 또 재미있다. 루핑이나 함석을 덮은 판잣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붉은 벽돌의 2층 연립주택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골목은 미로처럼 좁고 꼬불탕꼬불탕하고 연립주택 그늘엔 판잣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주택은 시에서 시멘트랑 벽돌을 거저 줘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이 누구에겐 가고 누구에겐 안 가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아무튼 연립주택 때문에 판잣집들이 한층 초라해 보일 뿐이다.
>
> — 박완서 수필, 「우리 동네」(1977) 중에서

앞서 서울시가 1973년부터 추진한 '현지개량 사업'의 실제 결과들이



보문동1가의 한옥(1990)



보문동 전경(1997)
1990년 사진과
비교했을 때 경관이
확연히 바뀌었다.



보문동6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동네(2013)



보문동6가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 단지(2017)

작가의 시야에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박완서가 올라갔던 산동네는 보문동의 서쪽 산비탈, 그러니까 지금 자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이었다. 1970년대 중반이면 1960년대 이 산비탈에 게딱지처럼 붙어 있던 널빤지, 루핑, 함석을 잇댄 판잣집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벽돌조 단독주택이나 2층 연립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 지은 집들 역시 2013년부터 시작된 재개발로 사라지고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산 → 판자촌 → 연립주택촌 → 아파트단지. 보문동은 큰 변화들은 단 70년 만에 일어났다. 이와 같이 빠른 변모를 겪은 동네는 서울에서 비단 보문동뿐만이 아니었다. 박완서가 썼듯이 보문동 골목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인 것이다.

성북구 보문동(1990~현재) :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보문역

1990년대 초만 해도 보문동에는 꽤 많은 한옥들이 남아 있었다. 박완서가 살았던 1970년대 후반에 드문드문 양옥들이 들어서면서 지난날의 경관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옥 지대와 양옥 지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마 그때의 한옥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1990년대의 경관이 유지되었더라면 보문동은 종로구의 북촌이나 가회동 같은 관광명소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보문동의 경관들이 급속히 바뀌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정부가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붐이 일었는데 보문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점차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 3층 이상 다세대주택과 연립주



동망봉 터널
(2002년 개통)

택들이 야금야금 평지의 한옥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확산 속도는 1970~80년대에 양옥이 들어섰던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보문동과 안암동에서 한옥이 밀집한 경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1994년은 보문동에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해로 기억된다. 이 해 10월 보문동6가에 아남아파트 단지가 선보였다. 15층짜리 아파트 3개 동에 218세대가 들어선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다. 이후 2003년에는 보문동3가 탑골승방 앞에 보문 아이파크 아파트(7개 동, 431세대)가 입주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보문동4가 보문시장 남쪽에 보문하우스토리(2개 동, 162세대), 2013년에는 보문동3가 동신초등학교 뒤편에 e-편한세상 보문 아파트(7개동, 440세대)가 들어섰다. 2017년에는 보문동6가 옛 산동네 연립주택 밀집지대를 재개발한 구역에 보문 파크뷰 자이아파트 단지(17개동 1186세대)가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보문동1가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착수에 들어가 곧 기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8개 동, 지상 15층 규모로 46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0년 12월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의 영업 개시와, 2002년 12월 동망봉 터널의 개통은 보문동의 교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 보문동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 체증이 심한 신설동 로터리를 경유하거나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을 이용할 도리밖에 없었으나 보문역과 터널이 생기면서 도심과 왕래하기가 한층 편리해졌다. 게다가 2017년 9월에는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하면서 보문역이 환승역이 됨으로써 보문역 일대의 상권은 더 활기를 띠어갈 전망이다.

1940년대 보문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거쳐 신흥주택지로 거듭났을 때만 해도 아무도 보문동이 오늘날과 같은 경관을 가지게 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은 바둑판 같이 정연한 골목 위에 문화주택 혹은 도시형 한옥들이 정렬한 단정한 신흥주택가, 마치 일본 교토京都의 어느 골목을 가져다 놓은 듯한 동네를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문동은 지난 70년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층 복잡한 경관을 띠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확산, 재개발 및 아파트 단지의 건설, 지하철과 터널의 개통으로 보문동의 경관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백외준)

보문동 한옥밀집지역과 주목해야 할 건축물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보문동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한옥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량으로 지어진 한옥은 우리나라 근대기 주택유형 가운데 하나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다.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지역 중 보문동 일대, 성신여대 주변은 서울특별시에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1950년대 보문동, 안암동 일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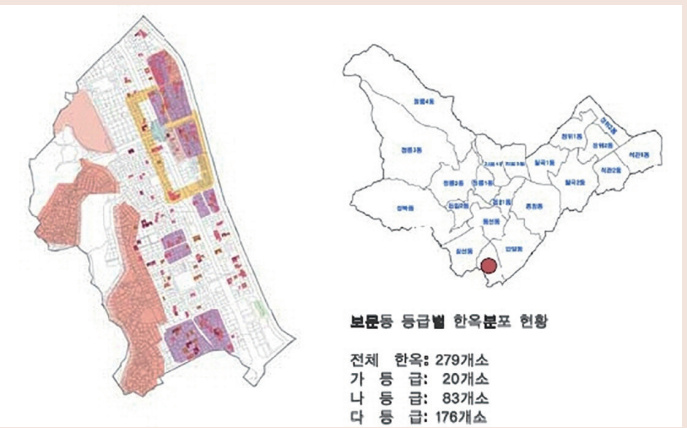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돈암지구 계획도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최종보고서, 41쪽)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나, 양호한 한옥을 철거하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이 이루어져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어 한옥 및 골목길 보전이 필요하여, 한옥 및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 보전·회복과 한옥 보전·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다.

보문동은 동쪽은 안암동 산자락, 서쪽은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긴 골짜기 형태를 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번지(보문동6가) 일대로 23,305㎡의 면적으로 한옥 비율은 전체 건물 중에 23.5%이다. 보문동 전체에 한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한옥 지원을 위하여 밀집도를 고려한 지역이 선정된 것이다. 특히나 보문동 일대는 많은 한옥이 남아있으나, 변형이 심하고, 개별 필지를 합치면서 건물 신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한옥 멸실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13년 성북구의 한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북구 내 여러 지역이 밀집지역 대상으로 제안이 되었으며, 이 중 몇 곳이 한옥밀집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보문동 등급별 한옥분포 현황
(자료 : 성북구 한옥전수조사, 2013)



서울시정사진총서 8(1974-1978 2) 사진 187(200-201쪽)
보문동4가 한옥밀집지구(1976.09.09) - 현재 보문역과 신설동역 사이의 한옥밀집지역이다. 서쪽으로는 보문로가 지나고,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흐르는 지역이다. 현재는 1/4 가량만 남아있다.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보문동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2013년 성북구 한옥전수조사 보고서에는 보문동6가의 한옥밀집지역 해당 구역에 대한 특징과 상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로 나뭇가지 모양 골목길이 존재하는 특색이 있음.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의 건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위치도 및 한옥 분포도

한 옥 동 수(38동)		
가급	나급	다급
7	12	19

※ 가급 : 양호, 나급 : 보통, 다급 : 불량



보문동6가의 서울시 지정 한옥밀집지역 전경
(사진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보문동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골목이 나뭇가지처럼 뻗어있으며, 그 사이 골목과 한옥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보문로13라길 10-10에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석재 마감의 대문 안에는 1966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2층 건물과 1941년 지어진 한옥이다. 특히 한옥의 경우는 109.09㎡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옥밀집지역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의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안마당을 가지고 ㄱ자형 한옥이 오른쪽으로, 2층의 부속건물인 양옥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한옥의 서쪽으로 붙어 나란히 남향으로 지어진 한옥이 있다. 전형적인 도시형 한옥의 배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이한 것은 골목에 면한 바깥채의 지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획된 필지에 집과 집이 간격 없이 붙어 있고 지붕이 연결된 모습은 밀도 높은 주거지역에 한옥이 적응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인다.



보문로13라길 10-10 주택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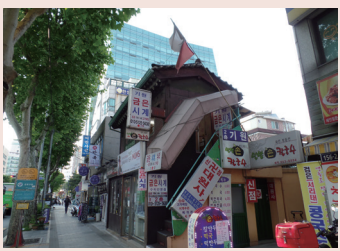
보문로9길에 연속된 지붕의 한옥들

주목해야 할 건축물 ① 보문동 2층 한옥

신설동과 돈암동을 연결하는 보문로에는 2층 한옥이 많이 남아있

다. 대부분 경동고등학교 입구 교차로와 성북구청 사이, 행정구역으로는 삼선동5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수가 사라지고 외관이 많이 바뀌었으나 근대 가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가로변 2층 한옥은 대부분 점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층 한옥의 옆으로 작은 골목을 들어가면 뒤편의 단층 한옥이 붙어서 배치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상업가로의 특성상 단층 한옥 역시 주거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보문동1가 218번지에는 2층 한옥이 남아있다. 보통의 2층 한옥은 점포로 사용되며 가로에 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한옥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물대장의 기록으로 1936년 10월 12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와있다. 1층 11평, 2층 5평 규모의 한옥이다. 전면으로 두 칸의 길이가 일반 도시형 한옥보다 길고, 2층 지붕에도 서까래와 부연이 골목에 적절하게 빠져나와있으며, 2층에는 소로 수장까지 되어 있어, 도시형 한옥의 형태적 특징에 더해 2층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성까지 더해진 집이다. 세 개의 골목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어, 골목에서 보는 풍경에 단연 눈에 들어온다.



보문로의 2층 한옥




보문동1가 218번지의 2층 한옥

주목해야 할 건축물 ② 손응성 가옥

보문역에서 보문사로 가는 길의 뒤편으로 규모가 있는 한옥이 남아있다. 이 집은 서양화가 손응성(孫應星, 1916-1979)이 살던 한옥이다. 손응성은 강원도 평강 출생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인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정물화를 입상시키며 등단했고, 일본 다이헤이요 미술학교에 유학하며 서양화를 공부했다. 홍익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미술문화회, 목우회 활동을 했다. 창덕궁의 비원을 그려 비원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등 사실주의 풍경화와 정물화를 남겼으나, 타계할 때까지 한 번도 개인전을 갖지 못했다. 소설가 최인호는 손응성 누이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최인호는 한 산문을 통해 외삼촌인 손응성을 가리켜 평생 '조선의 빛깔과 영혼'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손응성은 일제강점기 말에는 단광회(丹光會)를 결성하고 조선징병제실시기념화 집단 창작에



손응성 가옥 정면



손응성 가옥 전경

참여하는 등의 행적을 보여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미술 부문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손응성은 1948년 이 집을 매입했고 이후 1979년 서거할 때까지 약 30여 년 간 이 집에서 살며 작품 활동을 했다. 이 집은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옥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이 가옥은 방형이 아닌 대지의 형상에 따라 ㄱ자형으로 대문채와 안채가 붙어있고, 대문채가 마당 바깥으로 두 번 꺾여 들어간 공간이 붙어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서쪽에서 대문을 진입하면 안쪽으로 마당이 있고, 마당 내부에는 큰 향나무가 서 있다. 저층의 한옥이 동남향을 하고 앉아 있으나, 보문로 가로변의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고립된 형태의 단층 한옥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주목해야 할 건축물 ③ 보문사 선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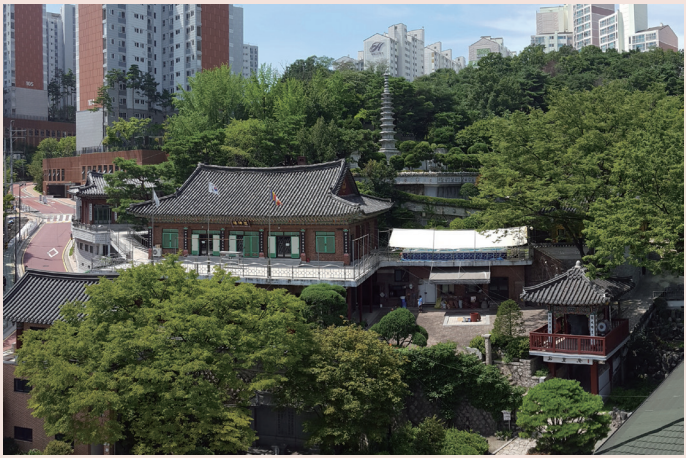
근대기 보문사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 문루(門樓)를 세우고 도량석축을 쌓음.
1958년 : 선불장(選佛場)을 세움.
1962년 : 산영각(山靈閣)을 세움.
1969년 : 범종각(梵鐘閣)을 세우고 대종(大鐘)을 신조(新造).
1970년 : 극락전(極樂殿), 보광전(普光殿), 호특문(護特門), 십왕전(十王殿)을 세움.
1971년 :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 설립, 시자원(施慈苑)을 세움.
1972년 : 법보전(法寶殿)을 세움, 대한불교 보문종 창종(創宗), 석굴암 조성.
1977년 : 동원정사(東苑精舍)를 세움.
1978년 : 팔각구층사리탑을 세움.
1986년 : 비구니 법준(法俊) 스님이 대웅전 앞 좌승당(左僧堂)을 신축하면서 묘승전(妙勝殿)이라 명명.
1987년 : 은영유치원 설립.
1988년 : 보문사 전통사찰 등록.
1994년 : 은영어린이집 설립.
1998년 : 불교회관 동원정사를 세움.

보문사 연혁 (출처: ㈜아란테크 http://aranta.co.kr/sachal/seoul/bomoonsa.htm)

보문사 선불장은 이 건축설계사무소의 이병균 설계로 알려져 있다. 이병균은 일본 시바우라(芝浦)공업대학을 졸업하고, 30년 이상 건축설계 분야에 종사하며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서울식품, 동양모직, 대한모방 등의 건물과 경기대학교와 인창고등학교 등을 설계하였다. 오랜 기간 연륜을 통해 보문사 선불장은 특이하게 사찰 건물로 당시 관심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보문사는 도성 밖에 위치한 왕실 원찰 중 4대 승방이라는 비구니 사찰로의 독특한 역할과 함께 비구니 교육의 중요한 사찰로 성장하였고,



보문사 선불장 권역 전경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서울의 확장과 함께 경사면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은영스님이 주지를 맡으며 현재 보문사 대웅전의 남측 토지를 확보하여 영역을 넓혔고, 이 자리에 1958년 선불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선방으로서 시방세계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든 선객들이 낱낱이 무위를 배우는 곳이다. 1958년 조성된 선불장은 상하 2층 205평의 건물로 1층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사무국과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 그리고 보문사 종무소가 있고, 그의 우측 끝에 대중방과 한 계단 사이에 대형 식당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선방식 법당과 법당 마당이 널찍하게 닦아져 있다.

200여 명이 넘는 대중이 모여 살 때는 이 선불장에서 아침저녁 발우공양을 했으며 조석예불 후에는 전 대중이 참선정진을 하던 이름 그대로의 선불장이었다. 지금은 큰 법회의 법회 장소로 쓰이고 있지만 예전엔 절 안의 대소사가 행하여지던 큰 방 역할을 하던 곳이다.

보문사 소개 (출처: 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 http://www.bomunsa.or.kr/php/menu2_1.php)

2층의 선불장은 아래층은 강학 공간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예불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선불장은 중층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위층 인법당의 수평 구조부까지는 철근콘크리트로, 지붕틀의 범위부터는 목조로 구성하고 지붕은 한식기와로 마감하였다. 아래층과 위층 모두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선불장은 현재 많은 도심형 사찰들이 하부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아래층의 공간 이용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건축재료의 도입이 사회적 인식으로나 종단의 인식으로나 쉽지 않은 시절, 새로운 기능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 형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최호진)

※ 참고문헌

『한국공간예술인집-건축계편』, 1972.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의 건축』, 발언, 1995.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한국현대건축총람 2 -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기문당, 2002.
손세관 외 2인, 「우리나라 공동주택 도입기에 등장한 중·소규모 아파트의 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11.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성북구, 2013. 12.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8.
김현섭, 『고려대학교의 건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5.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도서출판 집, 2017. 11.
홍병화, 「성북구 보문사 선불장의 건축적 가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11.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보문사 홈페이지
한국건축가협회 DB

주석

1_ 이 부분은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한양도성 역사산책』의 낙산 부분(149~157쪽)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한 것임.

2_ 이정귀,「송월헌기(松月軒記)」,『월사집(月沙集)』

3_ 보문 제1동은 보문동4가 · 보문동5가 · 보문동6가 · 보문동7가 일대를 관할하였고, 보문 제2동은 보문동1가 · 보문동2가 · 보문동3가 일대를 관할하였다.

4_ 『태조실록(太祖實錄)』 권9, 5년 4월 19일 병오, "令漢城府建五部坊名標: 東部十二坊曰燕喜、崇敎、泉達、彰善、建德、德成、瑞雲、蓮花、崇信、仁昌、觀德、興盛, …"

5_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 8 : 城北區篇』, 서울특별시(1983), 111쪽.

6_ 전영준,「고려시대 사원불사와 조력자」,『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66쪽.

7_ '三峯亭亭削寒玉 前朝古寺多八百 …'

8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서울2천년사 10 : 고려시대 사상 문화와 남경』, 서울특별시(2014), 29쪽.

9_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6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각 문화재 사진 출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미타사 아미타후불도', '미타사 지장시왕도', '미타사 신중도', '미타사 칠성도', '미타사 백의관음도'.

10_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묘법연화경 권3~4, 5~7'.

11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서울의 문화재 5 : 불교문화재 (1)』, 서울특별시(2011), 26-31쪽;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문사 석가불도', '보문사 신중도', '보문사 지장시왕도'.

12_ 이 동망봉과 짝을 이루는 것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있는 망향탑(望鄕塔)이다. 단종이 유배생활을 할 때 앞 날을 근심하면서도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워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막돌을 주워 쌓아 올렸다고 전해진다; 서미화,「'정순왕후 송씨'를 둘러싼 기억과 그 거리」,『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2, 2016, 150쪽.

13_ 서미화,「위의 논문」, 2016, 150-151쪽.

14_ 서미화,「위의 논문」, 2016, 151-152쪽.

15_ '京城洞名點考(경성동명점고) (3)', 동아일보 1936년 3월 21일.

16_ 탁효정,「15~16세기 정업원의 운영실태: 새롭게 발견된 端宗妃 定順王后의 고문서를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82, 2017, 40-42쪽.

17_ 탁효정,「위의 논문」, 2017, 55-60쪽.

18_ 박경 · 여권화 저, 박엽 역,『국역 장릉지』, 세종대왕기념사업편찬회, 1979,

67-68쪽; 서미화, 「위의 논문」, 2016, 156-157쪽에서 재인용.

19_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7, 영조 47년 9월 6일 계묘.
'癸卯/上率王世孫, 詣昌德宮, 仍詣淨業院。是時, 上因思陵陵役, 訪問思陵舊事, 承旨任希教以前參判鄭運維詳知其事蹟仰對, 上命運維來待於淨業院入侍。上曰: "聖后何時來住此地?" 對曰: "年紀無可徵文字。而其時光廟憐定順王后孤孑無依, 欲賜第於京中, 后願得東門外望東地居之, 命賜材木造成, 卽淨業院基址。而師兄尹氏名惠闈處衿得者, 今其文案, 尙在臣家, 故知之。文書中, 有祠堂三間, 熟設廳二間之文, 聖后之親行端廟祭祀於此處明矣。以臣先祖名眉壽, 定侍養, 後移御臣祖家, 蓋未定侍養之前, 稱淨業院住持魯山君夫人, 此非崇信佛氏也。" 上曰: "卿祖於聖后, 爲何親?" 對曰: "臣先祖, 卽文廟外孫, 而敬惠公主子也。是故, 聖后以臣祖定侍養, 而禮陟於臣家矣。" 上曰: "其時卿家, 在於何處?" 對曰: "卽今光恩副尉 金斗性家也。" 上仍命鄭運維加資。先是, 上聞淨業院遺址之在此, 故竪碑識之。及碑成, 上先詣昌德宮, 口奏竪碑事於眞殿, 仍幸淨業遺址, 奉審碑閣, 行四拜禮於閣前, 曰: "聖后陟降之靈, 今日必臨於此矣。" 親書東望峰三字, 命鐫於院之對案峰石上, 峰卽定順王后登臨望寧越之處也。回鑾時, 歷臨東關王廟及光恩副尉 金斗性家。仍詣毓祥宮。上之歷臨主第時, 以前後廂之不爲留駐, 侍衛之直過洞口前, 特罷兵曹判書具善行, 以趙曮代之。竝遞諸承旨, 以鄭運維 · 金致讓 · 李壽鳳 · 申尙權 · 呂善德 · 申大顯代之, 善德, 時以通禮, 陪駕故也。'

20_ 이 부분은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근대적 도시 중산층 커뮤니티의 탄생」과, 『성북구지』, 「교통」의 내용을 정리 · 보완한 것임.

21_ 서울特別市 城北區, 『城北區誌』, 1993, 예문사, 557쪽.

22_ 이태준, 「장마」, 『이태준전집2』, 2015, 소명출판, 59~60쪽.

23_ 이 글은 염복규, 「도시계획의 두 얼굴, 빈민의 구제와 배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2016, 이데아; 박수진, 「이태준의 눈으로 본 1930년대 성북동」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2015, 성북문화원; 서준석, 「도시개발과 빈곤의 연대기」 『레디안』, 2018.01.18.의 글을 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밝힘.

24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79~81쪽.

25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74쪽.

26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73~182쪽.

27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86쪽.

28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38쪽.

29_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인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5, 491~492쪽.

30_ 이케다 키요시(池田淸士), 「여성들이여,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 『중앙공론』

제281호, 1936.8(김효순 외『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도서출판 문, 51쪽에서 재인용).

31_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5, 499쪽.

32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41쪽~146쪽.

33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46~147쪽.

34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46쪽.

35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위의 책, 149~151쪽.

36_ 서준석, 「개발과 빈곤의 연대기」,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8258

37_ 성북문화원 편,『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139쪽.

38_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지명사전』,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9.

39_ 「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해 미취학아동의 취학부터 실시키로」(『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1946년 4월 19일 문교부)

40_ 『경향신문』 1971년 6월 5일「서울시, 142곳 2만4천채 무허건물 양성화」.

41_ 『경향신문』 1973년 1월 26일「올해 105지구 2만여 동 완공」.

42_ 1977년에 발간한 박완서 수필집『꼴지에게 보내는 갈채』에 수록되었다가, 2015년에 발간한 박완서 산문집 1권『쑥스러운 고백』(문학동네)에 재수록되었다.

43_ 단편소설「닮은 방들」은 1974년『월간중앙』6월호에 발표되었으며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권『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문학동네, 2013)에 재수록되었다.

보문동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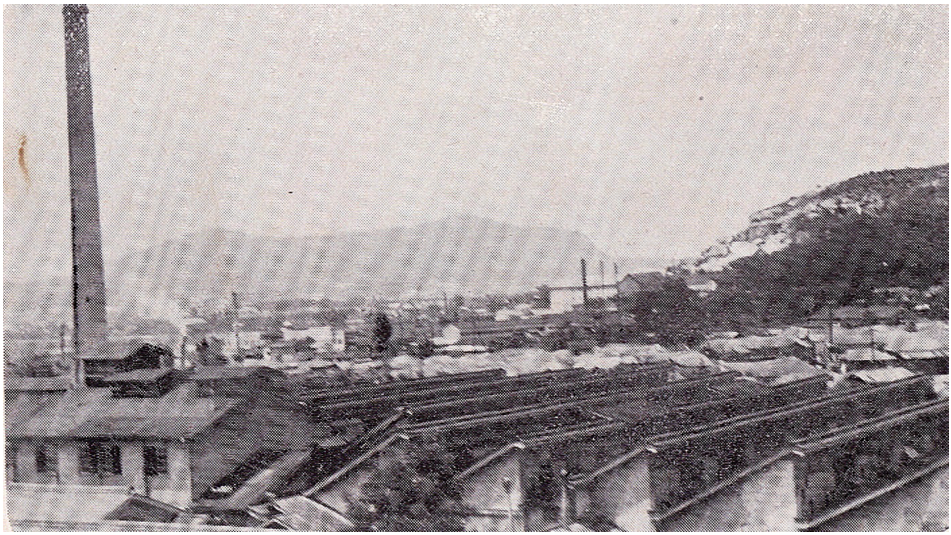
1. 일제강점기 보문동 사람들

신설리 여성노동자들의 파업

1933년 9월 21일 오전 8시 동대문 밖 신설리 종연방직회사 경성제사공장京城製絲工場에 삼엄한 분위기가 돌았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500명이 총파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총파업 소식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경관을 급파하고 주모자로 보이는 여성 노동자 5~6명을 취조하기 시작했다.[1] 파업을 단행하려는 여성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일제 경찰이 종연방직 경성제사공장 파업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종연방직 경성제사공장 파업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1933년 9월 19일 숭인면 신설리에 있었던 서울고무회사 공장 여성노동자 120명이 무리한 작업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었다.[2] 일제 경찰은 비슷한 시기 인접 공장에서 연달아 파업을 단행한 것을 심상치 않게 느꼈던 것이다. 신설리 일대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은 일제 경찰에게 위협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동대문 밖 신설리 부근에 공장이 생긴 것은 1920년대 중



종연방직 공장 전경(1938)
종연방적주식회사는 1925년 동대문 신설리에 제사공장(製絲工場)을 건설했다. 이 공장은 경성의 제사업을 대표하는 공장이었으며 많은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했다.(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약진조선대관')

반부터였다. 전차역과 철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동대문 외곽 지역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공장 가운데 서울고무회사 공장과 종연방직 경성제사공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4년 백성환, 장두현, 정완규, 백홍균 등의 협력으로 서울고무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경성을 중심으로 상업에 종사했던 인물로 서울고무회사는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자본가들의 합자회사였다.[3] 이들은 서울고무회사를 설립하고 그 공장을 신설리에 자리 잡은 고학당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4] 이후 고학당은 신설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서울고무회사 공장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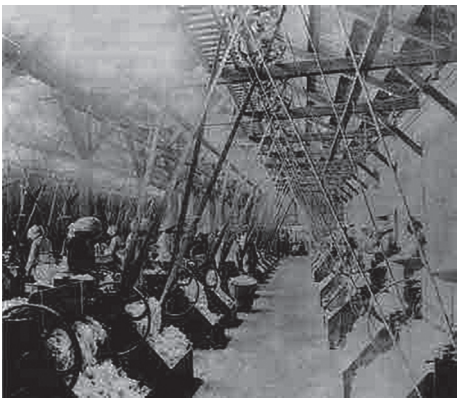
한편 종연방적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설립한 회사로 미쓰이三井 그룹의 계열사였다. 1887년 자본금 100엔으로 설립된 종연방적은 러일전쟁 이

후 면방적綿紡績 및 견방적絹紡績 관계회사를 끊임없이 흡수하며 일본의 6대 방적업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종연방적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25년 11월 경성에 제사공장製絲工場을 설립하면서부터다.[5] 종연방적이 공장을 설립한 곳은 동대문 밖 신설리였다. 이후 신설리 종연방적 제사공장은 1930년대까지 종연방적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고무공장과 종연방적 제사공장은 신설리에 세워졌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두 공장 모두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공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은 192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1920년 이전 거의 없었던 공업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은 1920년 1만여 명을 돌파한 것을 기점으로 1940년에는 8만여 명까지 늘어났다.[6] 여성 노동자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남성 노동자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이었다. 공업 중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한 분야는 섬유공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920년대 초부터 제사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85~90%에 이르렀는데, 이는 식민지배가 끝나는 1940년대까지 유지됐다.[7] 그 정도로 제사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고무공업 역시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한 분야였다. 전반적으로 화학공업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고무 분야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60~7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8] 고무 분야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사와 고무 분야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였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성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일제강점

기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자본가들은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대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9]



일제시대 여성 노동자들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은 경공업이었다. 특히 제사공장을 중심으로 한 면방직 공장들은 식민지시기 초기 산업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노동자들이 있었다. (출처 : '노동자역사 한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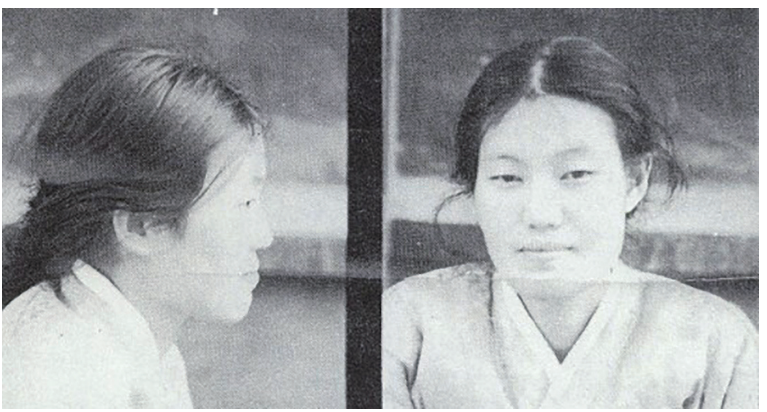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우선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는 물론 조선인 남성노동자들과도 큰 차이가 있었다. 1929년 기준 하루에 일본인 남성노동자가 2.32원, 일본인 여성노동자가 1.01원, 조선인 남성노동자가 1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조선인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0.59원에 불과했다. 조선인 남성노동자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밖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노동시간에 있어선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 있었던 공장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던 분야가 방직이었는데 방직 노동자의 82%가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 특히 조선인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긴 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10]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인격모독, 남성 감독들의 성추행 등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와 같이' 공장에 나가는 것이 싫었지만 먹고살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에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부당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했고,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1920년대부터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임은 1930년대 들어서면 더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을밀대에 올라 처절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임금을 인하하려는 자본가 측의 의도를 비판했던 평양 고무 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11]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1930년대의 흐름 속에서 신설리 공장의 여성노동자들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틀 간격을 두고 일어난 서울고무회사 공장과 종연방적 경성제사 공장 파업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당시 서울고무공장 파업은 허마리아를 중심으로 지순이, 맹계임 등이 주도했고,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은 이병희와 이효정, 이순금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다.[12]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을 꼽자면 이병희와 이효정을 들 수 있다. 이병희와 이효정은 친인척 관계로 이병희가 이효정의 고모였으나 나이는 이병희가 이효정보다 다섯 살 어렸다. 각각 경북 봉화와 서울에서 태어난 이효정과 이병희는 이경식, 이동하, 이병기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집안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자랐다고 한다.[13] 10대 후반과 중반 서울로 유학 온 이효정과, 고모 이병희는 각각 동덕여자보통학교와 서울여상에 재학했으나 학교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내 학교를 떠나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1933년 9월 종연방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면에서 이끌었다. 파업 이후 이효정은 국내에 남아 지속



1937년 일제에 체포된 이병희의 모습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이병희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학교를 떠나 신설리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에 입사했다.
입사 후 이병희는 공장 안에서 노동운동에 종사했고 1933년 파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병희는 후일 베이징 감옥에서 이육사의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제에 체포된 이효정(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이효정은 이병희의 조카지만 나이는 5살 더 많았다. 1933년 신설리 공장 파업이 일어났을 때
이효정은 노동운동가 이현상과 협의하며 파업의 확산을 논의했다.

적으로 노동운동에 종사했고, 이병희는 베이징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이병희는 북경에서 사망한 이육사 시인의 시신과 유품을 수습해 온 장본인이었다.[14]

1933년 신설리 지역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에는 이효정과 이병희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이 파업에는 여성노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배후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재유와 이현상이었다. 당시 이재유와 이현상은 소위 경성 트로이카를 구성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혁명적 노조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서울의 공장지대를 중요한 운동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설리 지역 공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고무회사 공장 파업을 주도했던 허마리아, 지순이, 맹계임 등은 경성 트로이카 그룹의 멤버였으며, 종연방직 경성제사공장 파업을 주도했던 이병희, 이효정, 이순금 등도 경성 트로이카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15] 즉 1933년 신설리 지역 공장의 파업은 여성노동자들과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1933년 9월 19일 서울고무회사 공장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회사 측은 전면 휴업으로 대응했다. 또한 일제 경찰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주모자로 지순이, 엄익, 맹계순 외 6명을 지목하고 곧바로 인치했다.[16] 회사 측과 일제 경찰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에게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후 파업의 양상은 신문 지상에 상세하게 보도되진 않았다. 다만 쌍방타협으로 1933년 9월 22일부터 작업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9월 21일 무렵에는 파업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17]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타협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 파업 과정을 살펴보자. 1933년 9월 21일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회사 측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파업에 나선 500명의 노동자들 모두 해고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18] 경찰 역시 여성노동자 5명을 체포하며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19] 회사 측과 경찰의 대응에도 여성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성제사공장 여성노동자 56명은 경찰서로 몰려가 체포된 여성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회사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20]

여성노동자들의 강경한 태도에 회사 측은 1933년 9월 23일 직공모집 광고를 붙이고 24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는 모두 해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회사 측은 엄포에 놀란 노동자 대부분이 다시 출근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21] 그러나 회사 측의 예상과 달리 여성노동자들은 강경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새로운 방법을 구사했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이다. 회사 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복업을 요구하는 한편 남성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노동자들은 따로 여성노동자들을 모으고 회사 측에서 요구조건을 승인했으니 작업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했다.[22] 남성노동자들의 말을 믿은 일부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측이 파 놓은 함정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복귀하자 회사 측은 요구조건 승인을 말한 것은 남성노동자들이 자의적으로 말한 것일 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파업의 힘이 약해지자 자신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아직 복업하지 않았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 증액, 대우개선 등 13개 조건을 제출하고 다시 파업을 전개했다.[23]

그러나 남성노동자들의 배신으로 깨어진 단결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파업을 주도했던 이병희, 이효정, 허마리아 등의 여성노동자들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또한 배후로 지목된 이재유 역시 신설동에 마련했던 아지트에서 탈출해 이곳저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934년 1월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서 신설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은 안타깝게 실패로 일단락되었다.

무산자 교육기관 고학당苦學堂

일제강점기 신설리에서 일어난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1923년 10월부터 1926년 초까지 있었던 고학당苦學堂의 설립이다. 고학당은 1923년 이준열李駿烈의 계획에서 시작했다. 이준열은 1889년 충남 아산군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911년 상경하여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다닐 무렵인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인물이었다.[24]

3·1운동 이후 경성공업전문학교 동창생인 최의창崔毅昌과 함께 대중 교육사업을 구상하던 이준열은 대구에서 대한광복회 회장이었던 박상진의 아들인 박응수로부터 사업자금을 얻게 되었다. 생각지 못한 돈을 얻게 된 이준열은 곧바로 상경하여 『조선일보』 사장인 남궁억을 만났다. 남궁억과 논의한 끝에 이준열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고학당 설립 계획을 세웠다. 이준열은 고학당 설립 취지에 대해 "학생이 공

부하기 힘든 때이니, 전부 경비로 삼아 학교를 설립하고, 고학생을 수학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25]

그러나 고학당의 개교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고학당 설립 자금의 일부가 대한광복회 회장 박상진의 운동자금이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것을 문제 삼았다. 곧바로 고학당 설립 자금 일체를 압수하고 설립 계획을 세웠던 이준열을 조사했다. 설립 자금 일체를 빼앗긴 이준열은 자신의 가옥을 처분해 학교 설립 경비를 마련했고 한일은행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교사로 삼았다.[26] 이준열의 희생으로 간신히 고학당은 1923년 5월 2일 개교할 수 있었다.


苦學堂의實現

고학당 설립을 보도한 신문기사
(『조선일보』 1923. 4. 2.)
무산자들을 위한 학교인 경성 고학당은 1923년 4월부터 입학 원서를 받아 같은 해 5월 개교하였다. 당시 신문은 고학당의 설립을 고학생들의 행복이라고 보도했다.

입학금과 월사금의 부담없이 무상제로 운영되는 '무산자 중등학교'라는 전례없는 학교였던 고학당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왔다.[27] 1923년 제1회 모집 당시 입학정원에 5배가 넘는 500명의 사람들이 지원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학당에 지원했다. 그만큼 당시 민중들은 교육에 목말라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교육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대다수 민중들에게 사치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교육에 대한 욕구는 억누르기 어려운 것이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병행하는 사

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학생苦學生이 탄생한 것이다.

1920년대 대부분의 고학생들은 우유 배달업소, 신문 배달업소, 여관, 이발소에서 노동을 하며 취업과 숙박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공부를 위해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상당한 비용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고학생들은 도시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설기관이나 강습소 같은 '주변부' 교육시설에 취학하기도 했다.[28]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과 월사금이 면제되는 고학당에 고학생을 비롯한 많은 민중들이 호응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1923년 5월 개교 직후 고학당은 우선 학생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고학당은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조달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학당에서는 집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학교재정을 전담할 기구로 '고학당협회苦學堂協會'를 발족했다. 협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교사들이었으며 학생들 역시 학우회를 매개로 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29] 고학당협회는 안정적인 학교재정 조달을 위해 빵공장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30]

그러나 고학당의 재정난은 여전했다. 고학당은 없어질 때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설립인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학당협회를 통해 빵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지만 재정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학당 측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1923년 6월 18일부터 공평동 야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시장 사업은 부족한 경험과 미숙한 회계처리, 잦은 도난사고 등을 겪으면서 실패로 돌아

갔다.[31]

야시장에서의 실패는 고스란히 고학당의 재정난으로 돌아왔다. 설강가상으로 훈정동에 마련한 교사가 강제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주였던 한일은행이 사전통보 없이 일본인에게 건물을 매각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수업 도중에 철거 용역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학당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고학당은 잠시 가회동 천도교당에 임시 교실을 마련했다가 10월 무렵 동대문 밖 신설리로 이동했다. 고학당이 정착한 곳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실이었던 곳으로 과거 도축장이 있었던 곳이었다.[32]

신설리에 정착한 고학당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실 건물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했다. 교실에는 바닥에 긴 나무 걸상을 놓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밤이 되면 교실은 학생들이 숙식하는 기숙사가 됐다.[33] 그러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학생 가운데 남성들은 효자동 갈돕회 기숙사에서, 여성들은 안국동 상조회 기숙사에서 머무르며 통학했다.

한편 교사에 머무르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고투를 벌여야 했다.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추위였다. 쫓겨나듯 옮긴 처지에 변변한 방한 대책이 있을 리 만무했다. 시멘트 바닥에 볏짚을 올려두었지만 냉기와 습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이 추워지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한기가 돌았다. 결국 학생들은 월동준비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학교 뒤편에 움막집을 지어서 숙식을 해결했다.[34] 움집은 간신히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하기 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고학당은 자신

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고학당 구성원들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선생들은 학생들의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두 장사를 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부근의 노동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다.[35] 고학당 구성원들은 스스로 살길을 개척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한편 고학당협회를 중심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됐다.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1924년 봄 조선인 자본가 백인기 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근처에 서울고무공장을 유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100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취업한 학생들은 낮에는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학습을 병행했다. 학생들의 한 달 임금은 30원 수준으로 1920년대 조선인 성인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동일한 수준이었다.[36]



苦學堂에 고무工場設置

고학생을 구제할목뎍으로

동대문(東大門)밧신설리(新設里)에잇는고학당(苦學堂)에서는금번백인긔(白寅基)장두현(張斗鉉)정완규(鄭完圭)류두환(柳斗煥)백홍균(白弘均)량형식(梁亨植)씨등여러유지들의발긔로『서울고무工社』라는고학생작업공장을설치키로하야 류리 방황하는여러 고학생으로 하야금 한공장안에 한교실안에서 일뎡한방법으로 사회생활의 규률과 완전한 훈련을밧게할 뿐만아니라 그제조품을 판매하야그것으로서학생들의 생활비를 일부충할작뎡이라는데 이제다시 방침을드러보건데아래와갓다더라

一、製品은一流技師의監督下에서堅固優美한朝鮮一이됨을目期함

二、各地方에特約店을置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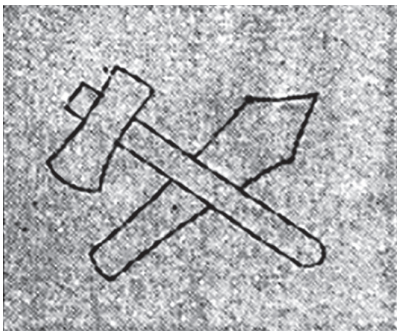
三、一般職工及學生에게는特別割引으로提供함

경성 고학당에 설치된 고무공장(『동아일보』 1924.12.28.)
재정난을 겪으며 신설리로 이전한 경성 고학당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생계를 위해 학교 근처에 서울고무회사 고무공장을 설치했다. 이 공장의 설치로 학생들의 생계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고학당 학생들의 고용문제와 함께 학교의 재정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재정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자 고학당은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고학당학우회 주최로 지방순회연극회를 개최했고, 1924년 8월에는 고학당의 교지인『고학苦聲』을 창간했다.[37] 그리고 같은 해 노동야학기관인 광성학원光星學院을 부설하면서 동대문 일대의 빈민 계층을 상대로 무상 초등교육을 실시했다.[38] 이런 고학당 구성원들의 노력에 인근 동리 사람들도 고학당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고학당의 노력과 헌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설리 시절을 거치며 고학당은 명실상부한 무산자 교육기관이자 중등학교로서 입지를 다졌다. 1925년 제3기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 고학당의 학생수는 200~300명에 달했다.[39] 이처럼 고학당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학당만의 독특한 학교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학당은 학생이 단순하게 수업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했다. 개교 당시부터 학생들이 고학당협의회에 참여하며 학교 운영에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192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학생자치제가 실시되어 교양과 운동, 서무, 재부의 각 부서 등이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었다.[40] 이것은 오랫동안 모든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재정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고학당의 민주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고학당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또한 '노동과 학습의 병행'도 고학당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일제강점기 많은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졌지만 학교 차원에서 '노동과 학습의 병행'을 강조했던 것은 고학당이 유일했다. 이런 고학당의 분위



경성 고학당 학우회 마크
(『조선일보』 1931년 7월 16일)
경성 고학당 학우회는 펜촉과 도끼가 X자 형태로 교차하는 문양을 마크로 사용했다. 이것은 일하며 배우는 경성 고학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기는 고학당 학우회의 깃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학당 학우회는 펜촉과 도끼가 X자 형태로 교차하는 문양을 깃발에 사용했다.[41] 이것은 노동을 상징하는 도끼와 지식을 상징하는 펜촉을 겹쳐 놓은 것으로 고학당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과 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노동자들도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고학당 학생들 역시 일반 노동자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높게만 보였던 교육의 담벼락을 낮춤으로써 다수의 민중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것, 이것이 고학당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학교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신설리에 마련한 움집교실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고학당은 새로운 교사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25년 4월 고학당협회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교사 설립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충북 지역의 유지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아 숭인동에 새로운 교사 부지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하기 방학을 맞아 전국 순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교사 공사비를 모았다. 물론 시공비가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42]

새롭게 마련한 교사는 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방 12칸과 80평의 기숙사와 6개의 교실, 사무실, 부속실, 화장실, 이발소, 취사장, 인쇄소

등이 갖춰진 곳이었다.[43] 어엿한 학교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고학당을 후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지 1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고학당유지회가 만들어졌다.[44] 대내외적으로 고학당의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교사를 이전한 후 고학당은 무산자 교육기관으로서 더 계급적인 색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고학당의 구성원들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파'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고학당을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이준열이 '서울파'에 가담했고,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도 다수도 '서울파' 세력에 가담했다. 1927년 2월 교장의 집에서 조선학생혁명당이 결성됐고 이 조직은 1929년 3월 조선학생전위동맹으로 개편됐다.[45] 고학당 구성원들이 중심이 됐던 조선학생전위동맹은 1929년 9월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만세시위에 주도 세력으로 참여했다.[46] 1920년대 후반 학생비밀결사 운동에서 고학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無産敎育九個星霜
苦學堂解體宣言
客觀的情勢와內部的矛盾으로
今日에悲壯한解散式
端川에怪候濃霧가不晴

경성 고학당 해산선언 (『동아일보』 1931. 7. 9.)
무산자들의 학교인 경성 고학당을 일제는 못마땅해 했다. 특히 고학당이 사회주의 세력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했다. 일제는 꾸준히 경성 고학당을 탄압했고 결국 1931년 7월 경성 고학당은 해산되었다.

그러나 고학당의 이런 활동은 일제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일제는 1929년 서울지역 학생시위를 계기로 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결합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특히 무산자 교육기관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 학생비밀결사 운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했던 고학당은 일제의 목표가 되기 충분했다. 일제는 고학당을 '극좌파 학생들의 아지트'라 파악하고 고학당을 폐쇄시켰다.[47] 교사와 학생들은 다시 학교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931년 7월 8일 "무산학생 교양소로서 존재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울분과 비분강개 속에 고학당은 강제 해산되었다.[48]

(최보민)

2. 현재의 보문동 사람들

도시의 마을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그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지금 보문동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로 보문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일 것이다.

마을공동체를 일궈온 어르신들 ①
"보문친목회라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구술자 박신원 (1931년생, 보문친목회 · 보문경로당 설립자)

면담자 김영미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원래 양주가 고향

나는 경기도 양주 사람이에요. 여기 동두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약한 5년 해서 서울로 올라왔죠. 시골서 농사 큰집이 짓지, 난 5남매에 막내거든. 시골서 농토를 많아서 분가해 줄 것이 있어요?[49] 그러니까 아들 하나 마누라 셋이 서울 와서 여지껏 이렇게 살아요. 마누라는 세상 떠났고 아들은 있고. 여기 온 지 57년 되었어요. 27살에 제대해가지고 시골에 한 1년 있다가 우리 아들 3살 때 올라왔으니깐 한 29살쯤에 올라왔어요. (1959년도 보문동으로 이사) 지금 87살이에요.



보문친목회 설립자 박신원 어르신(좌)과 현 보문경로당 회장 남영우 어르신(우). 보문경로당에서.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대통령을 직접 보셨나요?) 그럼요. 이승만대통령하고도 악수하고. 내가 군대생활 할 때 81미리 박격포 훈련하는 데 내가 전국에서 일등을 먹었어요. 이승만대통령이 노인이 돼서 전방을 올 수가 없으니까 웅천에다가 진지 구축을 해놓고서는 거기 백선엽 장군, 정일권, 이승만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그 앞에 내리시더라고. 추운데 야~ 미군 각기복에다가 군화도 빤짝빤짝한 거 입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 벗겨가. 한국군 거지가 또 다 되었지.

(그거 행사한다고 미군복을 다 주었다는 말씀이지죠?) 그렇죠, 그렇죠. 우수한 군인들만 뽑아서 훈련하고 끝나니까 다 벗어서 반납하고 내가 입던 옷으로 입고서. 내가 그때 중사로 제대했거든, 이등상사.

(군대에는 몇 년 계셨어요?) 4년 8개월. 그러니까 군인 가서 휴전되

어가지고 나왔으니깐. (그러면 어르신 전쟁 전에 들어가셨나요?) 전쟁 때 징집 1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1사단 창설해가지고 중공의 24사단하고 싸웠죠, 건봉사[50]에서. (왜 이렇게 오래 복무하셨어요?) 그때는 전투시니까 제대가 어디 있어요, 제대가. 폭격 맞으면은 오다가다 전쟁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제대가 어디 있어요, 제대가 없어요. 그때는 병신이 되어야 제대가 되지 멀쩡하면 제대가 없어요.

가내 공업으로 방석 공장을 시작하다

서울 와서 처음에는 가내공업을 했어요. 그때 시집가고 할 때 깔고 앉는 방석을 맨들었지. (가내공업이라는 것은) 집에서 사람 두고 그거 만드는 거죠. (집이 공장이네요?) 그렇죠. 집에서 했죠. (직접 팔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맨들어서 각 시장에서 주문 들어오면 갔다주고. 주로 의정부에 많이 나가고 동대문시장, 청량리, 수원, 안양, 인천 이런 데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대 갔다 와서 뭐 하겠어? 먹고 살기 힘드니깐 그때 남의 공장에 책임자로 있다가 내가 시작을 했죠.

문전성시를 이룬 '아성다방'

(어르신 방석 공장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한 거의 10년을 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시방 나 사는 집이 4층 건물인데 그 건물에다 내가 1층에다 다방 세를 주었어요. 다방 세 나오는 거하고, 또 아래층에서 세 나오는 것하고 그래서 먹고 살다가 그 사람이 다방을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 다방을 무척 오래했죠. 허다가 여기 6호선 나

오는 바람에 그때 그만 뒀죠. 그때는 잘 돼서 그저 아침마다 마을금고 예금하러 가는 게 일과야. 다방이 잘 돼서.

(아니 그때 무슨 동네에 다방이 그렇게 잘돼요?) 다방이 여기 보문다방하고 우리 아성다방하고 그렇게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가 동네에서 무슨 8가지 감투를 썼어요. 공화당 부책을 맡고 있었어요, 여기서. 길 이쪽은 내가 다 공화당 부책을 맡고 있었고, 새마을지도자 감사했고, 노인정 총무 했지, 또 방범위원 했지, 파출소 선진질서위원장 했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감투를 썼더니 내가 다방에 안 있고 길에서 만나면 "회장님, 다방에 갔더니 안 계시데요?" (웃음)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김일이가 레슬링 할 때, 내가 텔레비를 제일 먼첨 칼라텔레비를 놓았거든, 다방에. 그냥 그냥 김일이가 레슬링만 한다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서 탁자 우에 앉아요. 이게 이 의자가 우리 아성다방에서 쓰던 의자예요, 이거 빨간 거 다. (TV 스포츠 중계가 큰 역할을 했네요?) 그럼요. 그때는 선불이야 뭐 후불도 없어. 하여튼 김일이가 레슬링 한다면 우리 집도 장지문 다 떼어 놓고 보고. 다방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이랬어요.

1975년 보문친목회의 설립

여기 보문동에 보문친목회라고 있었어요. 한 오십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주최해서) 포항제철도 가고 제주도, 홍도, 백도 안 가본 데 없어. 보문친목회에서 안 다닌 데가 없어. (보문친목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게 기억할 수가 있나? 내가 지금 87이고 35에 (보문친목회) 총무를 봤으니까 그거 빼면 되겠네(1975년도에 설립되었다는 뜻).

(그때 친목회를 어르신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또래들이

친목회를 맨들었어요. 이상봉 씨라고 친목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안 다닌 데가 없어.

(돈이 없었을텐데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그때는 1인당 500원인가 1000원인가 매달 내가 걷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유관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찬조금을 내놓고, 동장도 도와줘서 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일 년에 두 번씩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렇죠. 봄, 가을로. 관광버스 두 개가 갈 때도 있고. 내가 그때 보문친목회 총무를 29년을 봤어요. 내가 경로당을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 내가 설립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총무를 몇 번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어도 회장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9년 6개월 총무를 했어요. 노인정에서도 놀러나가고 친목회에서도 놀러나가고 일 년에 너댓 번씩 놀러 나갔어요.

(어떻게 친목회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한 집안처럼 지냈어요, 주민들이. 지금은 이사를 많이들 들어왔고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 많죠. 그때 내가 보문친목회 총무, 노인정 총무 두 가지를 맡아가지고.

(그런데 어르신 왜 이사를 안 나가셨어요?) 붙임성이 없어서 못 떠났어요. 그리고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정이 들어서 못 떠나겠어요. 우리 아들 세 살 때 올라와서 지금 걔가 환갑인데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도 친구들이 그립고 그래서 못갔어요. (여기 어르신 친구들 많이 사시나요?) 많이 살았는데 이젠 많이 죽었죠. 이젠 많지 않아요.

(제일 처음 관광 갔던 때 기억나세요?) 첫 관광은 그때 단풍 내장산, 내장산 간 생각은 나요. 아니 속초 갈 때 그때 진부령이 그때 포장도 안됐

었거든, 그때. 그때 눈이 좀 약간 왔는데 아주 고개 넘어가다가 혼났어요. 속초로 해서 설악산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거기 갔다왔어요. (어디 가자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하고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가는 거지 뭐. 단독으로 누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음식도 쌌고, 차도 쌌어요, 그때는. 2박3일 같은 거는 50만원이면 갔다왔거든.

공화당 연수원 경험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였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내가 그때 공화당…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당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공화당 연수원에 가서 시방도(지금도) 집에 가면 그때 '마패'… (옆에서 남영우 씨가 '메달'이라고 알려줌.) 그것만 갖고 댕기면 통행금지도 없었어요. 그것만 메고 다니면 붙잡질 않았어요. (그만큼 공화당 연수 갔다 온 사람이 드물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당직자들만. 이 동네에서 무슨 쉽게 말하자면 '관리장' '부관리장' 요런 사람들만 간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연수원에 가서 우리가 계란값이 비싸다고 대통령더러 항의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비싸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냐" (웃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보문친목회가 있나요?)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다 해체됐어요. 여기(경로당)도 보문친목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일 처음 친목회 만들었던 분들은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셨나요?) 아니죠. 대개 건물 주인들이죠. 먹고 살만 하니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문동 11형제회의 조직


'11형제회' 관광사진을 보여주는 모습

그때 내가 집에서 가내공업하고 또 여기서 노인정 총무 보지, 친목회 총무 보지, 내가 또 11형제라고 또 묶었었어요. 여기 그때 대통령 뽑는…, 그때 뭐라고 했나…, 통일주체대의원, 정화위원장, 방범위원장, 청소년위원장, 또 선진질서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하고 11형제회를 모았어요. 유관단체장들끼리. 만들어서 밤마다……. 그런데 동망봉 제사 지내고 고기는 보내 주더라고.

월세방으로 시작한 노인정

여기 구연경 씨라고 곧잘 사는 분이 계셨었어요. 내가 여기 노인네들 몇 분이 경로당이 없으니까는 추녀 끝에 볕 안 드는 데 가서 그때 '뽕'[51] 먹기 내기를 하는 거야. 1등은 아무 것도 안 내고, 2등은 2,3백원 내고, 3등은 5백원 내고, 4등은 또 한두 단위로 올라가서. 그걸 해서 뽕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술들을 잡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우리 집에 요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빈 공간이 하나 있고, 마루방이. 그래 내가 구연경 씨에게 가서 "저걸 좀 저를 주십시오.", 그 분이 경기도 파주 사람인데, 그랬더니 "뭘 헐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보증금 없이 한 달에 5천 원씩을 내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을 내가 시초를 맨든 거야.

성북 최고의 노인정을 짓다

구연경 씨가 그 분이 그 전에 전차 댕길 때, 전차에 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망하게 되어서 딴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걸 돈을 많이 달라는 거야. 돈을 많이 줄 돈이 있나? 그래서 이정남 동장이라고 그 분이 (보문) 동장을 했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자면 도로부지가 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 그랬더니 구청 부지라서 못 짓는다는 거야. 이정남 동장이 그걸 구청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은 얻었어. 그래서 거기다 노인정을 짓는데 그때 노인정도 돈이 없어서, 마을금고에서 45만원을 대출을 해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노인정을 한 7, 8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지금 노인정 자리가) 보문2동 동사무소거든요, 요 자리가? 그때 인구에 비례해서 보문 1동하고 2동하고 합치는 바람에 이게 비었다고, 그때. 반충남 구청장 있을 때, 구청장이 동에 순시 왔을 때에 우리 동네 유지들이 "이걸 노인정으로 달라" 그랬더니 노인정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동 사무로서 있다가 그때 슬레이트집인데 비가 줄줄 샜어. 경비를 마련해서 130만원에 수리를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썼어요. 쓰다가 이게 합선이 되어가지고 불이 나버렸다고. 그래 불이 나서 구청에서 새로 설립해 준 게 시방 이 건물입니다. 증축한 지 21년 되었어요.

(그럼 지금 노인정 회원들은 회비를 내나요?) 한 달에 3천원. 그거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파악할려고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때 여기서 총무를 29년 6개월 할 때에는 5백원씩 받았어요. 시방은 물가가 올르니까 회비도 올랐죠.

(리모델링할 때 그때 130만원 돈은 어디서 났나요?) 기금으로 해서

돈을 모은 거죠. 그때는 구청에서 연료비라고 돈이 조금씩 나왔었어요. 그걸 절약절약해서 모으고 유지들이 좀 보태고 해서 모은 거죠.



박신원 어르신이 정리한 앨범
역대 노인회장과 부회장의 사진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노인정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드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래 윗층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드물죠. 아래층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써 붙은 거 내가 총무 할 때 다 써붙인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살아있는 동네네요.) 네.

(앨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제가 다 맨든 거예요. 초대 회장, 2대고, 이상봉 씨가 3대. (이게 어르신이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총무 때 다 해놓은 거예요. (정성껏 만드셨네요?) 예. 이 분이 회장이고, 이 분이 부회장.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다. 이게 경로당 임원이에요.

그때는 매일 노인회에서 조기청소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도시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나요? 보문동에도.) 도시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몰랐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있었죠. (뭘 했나요?) 청소도 하고. 새마을 모자도 내가 그때 감사를 봤는데, 허는 게 많았죠,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청소고 또 불우이웃돕기 이런 거 많이들 했죠. (서울은 길 넓히기 이런 건 안 했죠?) 그 무슨 사비로 넓힐 수가 있나? (웃음) 여기는 헐 수가 없죠.

(청소하는 사진을 보며) 그때는 매일 아침이면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동네에서 신임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놀러 갈 때



1970년대 노인회원들의 청소와 환경 작업 모습

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랬죠. 저 아래꺼정, 동사무소 있는 데꺼정. 여기 보문동인데 그때는 1동 2동 있었는데 지금은 보문동 하나뿐이잖아요. 거기꺼정 큰길 옆으로 해서 다 쓸고 그랬어요, 노인네들이. (지금은 청소 안하시고요?) 시방은 (웃음) 구에서 다 해주니깐 뭐.

(사진을 보며) 그때는 내가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로다가 찍어서 다 현상해놓은 거예요. (청소 대단하게 하셨는데요? 블록도 깔고) 예. 많이 했어요.

보문동의 자랑거리 - 모래가 많이 나와

(보문동의 자랑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옛날부터 모랫

말이에요. 조금 파면 아주 모래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은 보문동이지만 옛날에는 명칭이 모랫말이라고 그랬어요. 업자들은, 대개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백토'라고도 그러거든요? 그거를 갖다 많이 팔아서 이득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도 SK가 이걸(재건축) 하는 데 뭐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정서를 넣고 청와대에다가도 넣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나요?) 그렇죠. 잘 안되고 있죠. (백토는 뭐 하는 데 쓰는 건가요?) 벽돌 만드는 데 그만이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뭐 맨드는 게 아니라 흙을 파다가 자꾸 파는 거예요.

보문동을 안 떠나는 이유

(여기 나오시는 어르신들 하루에 10명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많이 나올 때는 한 20명도 나오고 그래요. (보문동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여기는. 본토백이가 시방도 많아요. 나도 여기 와서 시방 한 57년이 되는데요. (보문동을 안 떠나는 이유 무엇인가요?) 딴 데 가면 낯설잖아요. 여기서는 아침 저녁 만나서 악수도 나누는 사람이 많잖아. 또 술친구도 좀 있고.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적적하니까 안 갈려고 드는거지.

마을공동체를 일궈온 어르신들 ② "여기 60년 살았어요, 안 떠나져요."

구술자 남영우(1935년생, 보문경로당 회장)

면담자 김영미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보문동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

제 직함은 보문경로당 회장이에요. 보문동에 경로당이 많아요. 한 여섯 군데 돼요. 여기가 보문2동 동사무소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노인정은 74년부터 여기 노인정이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꽤 오래 총무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분이(박신원 어르신을 가르킴) 산 증인이에요. 이 양반이 창설한 분이에요, 노인정을. 74년도에 세를 얻어가지고 시작하더라고. 저 양반이,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동네 총무보시면서. 보문동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그때는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었지. 2동 노인정이 제일 오래되었어요. 그때는 구립이 없었고 시립이에요. 이게 시립으로 되어 있다고, 시립으로. 시립 보문 제1 노인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관광을 잘 다녔어요. 노인정 인원이 한 백 여 명 되어가지고 차가 두 대로 다녔어요. 그때 안 댕긴 데가 없어요. 일 년에 두 번 다녔으니까, 1박2일로 봄가을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다니긴 다녔지만 그때는 많이 안 다니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많이 다녔지요.

휴전하던 해에 서울 왔어요

여기 60년 살았어요. 고향은 용인이에요. 서울은 휴전과 동시에 53년도 가을에 왔어요. 전쟁 복구도 안 돼 있을 때 올라왔어요. 17살에 올라



보문2동 노인회관
1층은 여성들의 공간, 2층은 남성들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문경로당의 내부
노인정에 보관된 사진첩을 보여주는 남영우 어르신(왼쪽).

왔으니. 원래 삼선교에 살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 바로 이쪽으로 온 거죠. 1959년에. (고향 친구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왔나요?) 그때 다들 농사짓고 뭐 인척이 있어야 서울에 올라오지 연줄 없으면 서울 올라올 꿈도 못 꾸죠.

전쟁 때는 여기 많이 파괴됐죠. 그때는 성북천 개천가로 하꼬방(판잣집)이 쭉 있었어요. 저 아래 시장 끝까지. 피난민도 아니고 보통 거주자들이지. 생활터니까. 술집들을 하고 음식점이었지 주로. 자유당 말기까지 판자촌이 있었어요.

서울 와서 2000년까지 유리가게 운영

(처음 왔을 때 보문동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사업체가 별로 없어서 다 장사하고 개인사업 하고 그랬죠. 집단적인 봉제공장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세 얻어가지고 드문드문 봉제공장하고 그랬지. 지금도 (이 동네에) 봉제공장 많이 있어요.

(어르신, 젊어서 놀 때는 어디서 노셨어요?) 놀기는… 저는 놀지도 못하고 장사만 했어요. 보문 2가에서 유리가게 했어요. 17살 때부터. 그거 배우러 서울로 올라온 거지, 기술 배우러. 53년도에. 집 짓는 데 쓰는 건축유리 사업 했어요. (60년대 건축붐 타고 장사는 잘 되셨겠네요?) 장사는 잘 되었어요. 가게는 2000년도에 접었어요.

4.19에 대한 목격

주로 보문 2가에서 자주 봤죠. 차량도 별로 없었고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윽윽하며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그랬죠. 차 탄 사람도 있었고. 막 뛰고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거지 우르르 몰려 가지고. (어르신도 학생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왜 나는 그 당시 성인이었는데, 어른이었는데 뭐. 군대 갔다 오고 20대 후반이면 어른이지 뭐. (동네 사람들이 4.19 보러 밖에 나가고 그랬나요?) 아휴 나가긴 누가 나가 무서워서 집에 있었지 뭐. 학생들만 그러고. 주민들은 뭘 아나, 먹고 살기 바쁜데.

동망봉 산신제

동망봉이라고 있어요. 단종비가 제각 짓고서 영월 보고 제사지낸 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추진위원이 있고 동장이 주도하는 거죠. 자치위원장이라고 또 있고. 유명해요. 소도 잡고 구청에서 돈도 나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를 한 마리 사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망봉 올라가서 제각 앞에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소를 잡았어요. 단골 소 잡는 사람 백정이 저기서 와요.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쫙 뿌리고 그랬어.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소를 고기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사와서 제사 지내고 고기하고 뼈를 고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해요. 크게 해요. 날짜는 정해져 있고 보통 양력 11월쯤에 해요.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해마다 구경하러 갔어요. 통장들 많이 좀 모이고 소 잡을 때는 한 3, 40명 모여



2017년 보문동 동망제 모습
11월 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사진은 7일 제각으로 가는 행렬 장면이다.



산신제 장면
소머리와 4개의 우족이 진설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산신제 마지막날인 2017년 11월 8일 마을 경로잔치 장면
참가 인원이 수 백 명에 이르렀다.

요. 고기 내장같은 것으로 술들을 먹고 그랬지. 간도 먹고. 안 끓이고 소 내장 간 같은 거 이런 거 소금 찍어서 소주 먹고 그랬지.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농악을 치면서 돈을 걷고 있는 사람들 기부 좀 하고 구에서 나오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강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제사 지낼 때는 안 가고 먹으러만 갔었죠. 아휴 온 사람들 많죠. 보문동 사람들만 아니라 성북 사람 다 오나봐. 숭인동 안암 사람도 다 와. 주체는 보문동 자치위원회죠. 보문동 동회와는 다르죠. 뭐 같은 계통이지만요. (옛날부터 자치위원회가 잘 되어 있었나 봐요?) 주로 유지들이 돈을 많이 내죠. 옛날부터 해 내려오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니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잔치하는 걸 아니까 알아서 얼마씩 내죠.

보문사 뒤에 산동네 거기도 옛날에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 아파트(이편한세상 보문아파트) 들어서고 없어졌어요. 소를 잡고 그러지는 않고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절하고 제사지내고 그랬어요. 산동네 사람들이 많고 살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자연히 없어지더라고.

내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도 산에 집들 짓고 그랬지.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민들이 천막치고 살며 밤에 브로크 쌓고 그렇게 살았지 뭐. (웃음) 나중에 땅 주인이 개개인에게 땅 불하를 해주었지, 땅 팔았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거지.

보문시장의 쇠락

하우스스토리 있는 데가 옛날 시장이 있었던 데야. 잡화서부터 잡다한 거 여러 가지 팔았어요. 보문시장이지. 시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지하하고 지상 1층 상가였는데 그 상가는 몇 집 안들어 있어요, 많이 비어있고. 시장이 죽었어. 그 아파트 짓고서 비싸니까 못들어가지. 세가



2017년 보문시장의 모습
쇠락했다고는 하나 다른 지역보다는 물건이 많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비싸니까. 다 딴 데로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시장이 잘 안 돼요. 아주 죽었어. 내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장이 있었지. 이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지. 보문시장 말고는 시장이 없지. 사람들은 돈암동도 가고 경동(경동시장)도 가고 그러지.

경전철과 성북천 자랑

(보문동의 자랑이 있을까요?) 조용하고 교통 좋고 학교도 많고. 여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도 없어요. 경전철이 들어와서 동네가 더 좋아졌어요. 환승장이 있어서 좋아요. 또 노인들 오르내리기도 쉬워지고 엘리베이터 생겼으니까.

산책은 성북천 여기 사람 많이 다녀요 요새. 청계천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전거 타면 어디 못가는 데가 있나? 행주산성까지 다녀오고 그러는데. 의정부까지 자전거도로가 뚫려있는 데 뭐. 엄청 좋아졌어요.

보문동 안 떠나져

(왜 보문동을 안 떠나셨어요?) 떠나면 못 살 것 같아서요. 살다보니 오래 살아지더라고. 안 떠나져, 안 떠나져요. (그러면 동네가 좋은 거네요?) 좋은 거지. 내가 그랬잖아. 조용하고, 교통 좋고. 나이 먹고 살 데가 어디 있어. 딴 데 가서 친구들 사귈려면 힘들고.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우리 할머니의 한옥 이야기”

구술자 최우영 (1994년생, 주민 · 대학생)

면담자 김영미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은 이북이에요. 황해도 해주.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6.25때 피난 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강원에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가 성인이 되면서 일을 하시려고 서울에 오셨대요.

할머니 고향은 이천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천에 사셨다고 해요.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증조할머니는 할머니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집을 얻어 놓고 하숙하시면서 사셨대요. 그렇게 서울에 살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 결혼을 하셨나 봐요.



구술자 최우영씨

안암동, 보문동, 그리고 세느강

아빠는 어릴 때 왕십리에서 자랐어요. 그 뒤에는 신림동에도 살고 청량리에도 살다가 89년도 쯤 안암동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해서 저를 낳고 집이 좁아서 다시 보문동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빠가 어릴 때 사람들이 성북천을 세느강(프랑스 파리의 강)이라고 했대요. 이유는 모르고 그 동네 오래 산 사람들이 그 개천을 이야기할 때 세느강이라고 불러서 아빠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아니 세느강은 무슨. 똥 개천이었지 똥 개천, 더러웠어!"라고 말했어요.

아빠의 한옥 추억

아빠가 한옥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안암동에서부터였고 다음에 이사한 보문동 집도 한옥이었어요. 당시에는 아파트도 있었는데 한옥으로 이사를 온 것은 할머니 때문이라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당이 있고 그런 집을 좋아한다고 해요. 또 한옥집이 우리 같은 대가족이 살기에 집도 커서 좋았다고 하고요. 아빠에게 한옥에 대한 추억을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보문동 할머니 한옥에서 찍은 어린 시절 최우영 씨의 모습
위에 늘어진 감나무가 보인다.

"추억? 그냥 좋았지. 한옥 살 때는 마당이 있으니까 그 마당에… 한옥집이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이랑은 틀리게 지붕도 높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마당에 목련꽃도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고. 너 어릴 때 감나무 아빠가 이렇게 올라가서 따줘 갖고 감 겨울에 먹고 그랬잖아. 마당이 커서 눈 오면 눈사람도 만

들고 그랬지. 그런 게 추억이지. 니네들 키우면서는 여름에는 마당에 큰 튜브에다 물 받아서 너 친구들 불러다가 수영도 하고 그랬잖아."

내겐 너무 무서웠던

아빠가 말씀하신 기억은 없고 좀 크고 이사 간 다음 할머니네 놀러갔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집은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자주 갔어요.

대문은 엄청 크고 무거운 나무문이었는데 어릴 땐 무거워서 힘주고 몸으로 밀어야 돼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동생이 잘못 여니까 어느 샌가부터 (할머니가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2017년 보문동에서 본 예쁜 한옥
여전히 대문은 아이가 열기에 무거워 보인다.

늦은 밤에는 엄마가 심부름시켜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어요. 무서워서. 방이 많아도 할머니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안방 말고는 전부 불을 꺼놓고 계셨어요. 그럼 밖이 온통 칠흑 같아서 무서웠어요.

한번은 할머니 댁에 있다가 밤에 집에 가려고 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찾는데 너무 어두워서 신발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마루 문 닫으면 마당이 어딘지 어디가 길인지도 겨우 구분할 정도여서 지금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어두웠는지 이상할 정도예요.

할머니 집은 낮에도 왠지 으스스했어요. 사람이 자주 오가는데요. 밤에는 귀뚜라미도 엄청 울어댔는데, 밤에 마루 문 열고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그럼 진짜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어디 깊은 산골처럼 느껴졌어요.

대문 왼쪽에는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 곳이었고 대문 오른쪽에는 꽤 큰 방이 있었는데 한 번도 불 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닫이문이 반만 열려 있었는데 깜깜해서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섭게 느껴지는 방이라 동생이랑 저는 그 방이 귀신이 사는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이 많아도 쓰는 방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추억의 놀이터

여름에는 혼자 할머니 댁에 자주 갔는데 마루에 누워있으면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했어요. 또 물놀이 풀을 사서 풀에 물 채워서 마당에 놓고 동생이나 친구들 불러서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 키만한 어항에 사람 반만한 자라인가 거북이 같은 것도 키우셔서 그거 구경도 하고.



2017년 보문동에서 본 한옥. 보문동을 다니면 이런 한옥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다.
한옥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말해준다.

마당에서 계단 올라가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독대가 잔뜩 놓여 있어서 엄마가 가끔 거기서 장 같은 거 가져가셨어요. 기와지붕에는 어디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고양이가 몇 마리씩 있었어요.

또 마당에 엄청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이 열리면 아빠가 나무 타고 올라가셔서 감을 엄청 따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감이나 홍시 같은 걸 따로 사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무에서 꽤 많이 수확해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마당에 잔뜩 쌓여서 큰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안동반점 "옛날에 우리 집 짜장면 안 먹어본 학생들 없어요."

구술자 황의순 · 김기숙 부부 (1946 · 1953년생, 보문동 안동반점 운영)

면담자 고종성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대학원생)

보문동 답사를 다녀보면 마을 주민들이 하나 같이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마을 대표 맛집이 있다. 사장님이 기술이 좋아 맛은 두말할 것 없고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기한 메뉴가 있었던 중화요리집이었다, 70~80년대에는 작지만 교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알찬 식당이었다. 그 덕택에 최근까지도 유명 TV프로나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다. 하지만 그런 유명세도 세월 앞에서는 과거일 뿐, 이제는 노부부 두 분이 힘닿



보문동 안동반점 주인 황의순(좌)·김기숙(우) 부부

는 데까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처음에 구술인터뷰 요청을 드리자 "이제 곧 없어질 식당인데…." 하며 망설이셨지만 "보문동에서의 기록을 남기셔야지 않겠냐"는 간곡한 요청에 어렵게 당신들의 소중한 역사를 들려주셨다.

보문동, 어느덧 40년

(보문동에는 언제부터 계셨던 건가요?)

[황의순(이하 황)] 이야, 그때가 몇 년인가…. 우리가 그런거 생각안하고 살다보니.

[김기숙(이하 김)]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으니까.

[황] 아 맞아, 그러니까 안동반점 개점할 때 결혼했으니까 그때가 1970년도였어요. 40년이 된 거죠.

보문동에 오기까지

(안동반점 개점 전에는 어디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김] 종로, 그 비원 앞에 종로 '안동반점'이라고 유명해요 원래가.

[황] 사장이 중국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같이 일했어요. 그 분이 보문동으로 옮길 때 같이 따라왔죠.

[김] 근데 몇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우리가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중국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김] 글쎄 이름이 뭐더라

[황] 성은 장씨고 이름은 몰랐어요. 이름은 뭐,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

보지도 않고. 아 뭐 알려면 알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논산 시골소년,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종로에서는 그럼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황] 내가 17살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 고향은 그럼 어디셨어요?)

[황] 원적은 무주군이고. (아 전라도?) 그렇죠, 전라도 무주군 그리고 부남면 대소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3살 때 나왔으니까 고향은 아니지 아버님 고향이고 내가 생각하는 고향은 충남 논산군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이지? 그렇게 마치고 있다가 17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보문동의 첫인상과 살아왔던 느낌

(보문동 오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황] 아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인상따지고 할게 뭐가 있겠어요?

[김] 지금이야 다 따지고 살지? 그때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옆에 개천가가 깨끗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목욕하고 그랬어요. (사계절 내내?) 아유, 개천에 물이 많아서 우리 아들이 지금 스물아홉 그런데 어렸을 때 다 목욕하고 그랬어요.

주방에서 기술을 전수받기 까지

(장씨 사장님께 많이 배우셨나요?)

[황]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기술을 잘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막 알려

달라고 하면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결국 같이 일하면서 옆에 지인 통해서 배우고. 좋은 주방장 만나면 잘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십중팔구가 안 일러줬어요. (그럼 장씨 사장님은?) 그 분은 기술은 좋았죠, 근데 주인이라 본인이 직접 요리를 안 하고 주방장인 노씨, 노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도 실력이 좋았어요, 옛날에 요리집은 주방장하면 끗발이 최고였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지배인과 주방장 대립이 생겼었거든요. 주방장은 실력이 없으면 지배인한테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씨 아저씨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장씨 사장님 막내사위가 있었는데 그 분께 이것저것 물어보면 일러주고 해서 배웠어요.



한옥을 개조한 안동반점의 외관

번창하는 안동반점,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안동반점 한창일때는 일주일에 근무가?)

[김] 아이고 일주일에 몇 번이 어디 있어? 그냥 연중무휴로. (연중무휴로?) 그렇죠, 교대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돌았나?

(그때는 직원 숫자가?)

[황] 아유 많았죠. 나랑 집사람이랑 지배인 있었고, 카운터 직원 있었고 배달하는 사람 둘 있었고 주방에 나까지 직원이 셋이었어요. 가게는 17평으로 작았어도 대단했지요.

[김] 그러다가 지하철 공사할 때 우리 가게가 그 공사 때문에 거의 잘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 뒤에 지금 여기가 가정집인데 수리해서 옮겨왔지. (그럼 전에 계시던 가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그 역에 길 건너 이불가게 있는 데예요. 3층 건물. 핸드폰 가게도 같이 있고 그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 돌아가시고 공사하고 해서 옮겨왔던 거예요.

※ 지하철 6호선은 1980년대 착공하여 2000년에 개통.

잊을 수 없었던 고등학생들

[김]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이요?)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아유 엄~청 많이 왔지, 지금은 학교가 줄어버려 가지고 그랬지만. (어디 고등학교에서?) 용문고나 경동 또 바로 옆에 있죠. 아유, 지금 학생들은 잘 안 먹지만 옛날에 여기 짜장면 안 먹은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졸업식때?) 아니, 졸업식 때보다도 선생님들이 애들 방학 때, 반 바뀔 때, 세 팀 네 팀 막 내려와서 먹고 하면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전화로 예약이라도 하고 내려오지 학교는 그냥 와서 정신이 없죠.

재개발 공사 속에 안동반점

(보문동에 한옥이 많던데 개발이 많이 되었던 건지?)

[김] 아니야 개발이 안 되었어요, 개발이 없어서 목욕탕도 오래되었고 개발된 게 없어요.

(6호선 들어오고는 나아지지 않았나요?)

[황] 길은 넓어졌죠, 길은 4차선 들어오고, 교통은 편해지고 그렇긴 한데 거기까지지 크게 개발된 것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야 개발된다고 하는데 소식은 없고.

[김] 근데 개발이 안 된 게 또 좋아요 조용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는 조용하고 편하고 불편한 거 없이 좋아요, 그래도 옛날이 재밌지 지금보다는…. 보문동이 한옥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살 때가 재밌는 거지 문 딱 닫아놓고 빌라, 아파트…. 어휴, 댈 것 아니에요. 가게하고 이렇게 막 있으면 얼굴 알고 찾아보고 얘기하고 좋죠. 근데 딱 어디 박혀있으면 우리 같이 장사만하는 사람은 평생 장사만하다가.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는 못 살죠.

보문동의 유래와 동망제

(보문동이 보문사와 연관이 있나요?)

[김]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관련이 있는지. 근데 불교신자들은 많았어요. (옛날부터?) 네 옛날부터 많았어요. 지금은 다 떠나갔는데 옛날에는 다 불교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사를 계속하느라 마을 유래나 축제를 잘 몰라요. (동망제같은?) 그건 동사무소랑 어르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찬조를 해요.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식권정책

(IMF때는 장사가 잘 되셨나요?)

[황]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된 것은 아니에요, 먹는장사라…. 그리고 또 식권, 식권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오는?) 아니요, 그 아동, 못사는 사람들한테. (주민센터에서?) 그래요, 그 식권을 나눠줘서 그걸로 많이 나갔죠.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로 쓰죠.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안동반점의 하루일과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황] 일과요? 아유 참,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나와요! 어이구. 오전에 반죽하고, 야채, 해물 썰고 10시쯤 되면…. 우리가 잡채밥이랑 볶음밥이랑 밥이 많이 나가니까, 신문에 2번 나가지고. 그래서 밥이 하루에 20kg가 나가요.

[김] 그래서 팔을 못써요 팔을. 어깨죽지를 못써요 20kg을 혼자 볶으려니까.

[황] 그럼 이제 10시 반쯤에 밥 먹고. 11시부터 손님받고. 그 다음에 3시 반쯤 밥 먹고, 저녁 손님 받고. (영업은 언제 끝나시는지?) 영업은 8시 반에 끝내요.

[김] 그 뒤에 또 정리하고 계산하고 하면 10시, 집 가서 밥 먹고 씻고 하면 11시 금방이에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그럼 몇 시간 자겠어요? 어휴, 참!

안타까운 사장님의 실력, 사라진 귀한 레시피

[김] (황의순 사장님을 가리키며) 원래 요리 전문이거든 식사 전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능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하니까 잘 써먹지를 못했지. 아깝지, 내가 많이 아깝지 정말…. 요리를 알려줘도 요리를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요리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제 써먹지도 못하는 요리에요.

[황] 이제는 다 잊어먹었죠. 그래도 그 전복요리 중에 칼집을 내서 한 번 쪄요. 그렇게 찐 상태에서 계란 흰자를 넣으면 거품이 확 올라와요. 그렇게 바로 찌면 그 모양이 백합같이 하얗게 나오거든요, 뭐 근데 옛날에는 전복이 싸고 그랬지만은 요새 전복이 얼마나 비싸요? 요새 해삼도 없고 해서….

안동반점 인기의 비결 - 신선한 재료

(쉬는 날에는 뭐하세요?)

[김]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쉬는데 화요일은 병원가고 운동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시장가고. 야채 사러 경동시장으로 가요. 옛날에는 구리로 갔어요, 근데 구리는 멀어서 경동시장으로…. (보문시장은?) 보문시장은 옛날부터 작아서 경동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호박 같은 경우는 서산 쪽에 아는 분이 우리 준다고 키워놔요, 호박이 엄청 커요.

(호박을 어떤 메뉴에 쓰나요?)

[황] 짬뽕에. 짬뽕에 넣으면 국물이 달착지근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호박이 겨울에만 나서 겨울 짬뽕이 더 맛있어요. 계절마다 야채가 다르니까 맛도 틀려요.

[김] 3년 전까지 만해도 강원도로 직접 가서 10월 내내 양배추, 당근 같은 거 가져와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차로 가득 싣고 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2의 고향, 보문동

(사장님께 보문동과 안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황] 아유 제2의 고향이죠. 평생 여기서 보문동에서 살았는데 제2의 고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는 아버님 고향이시니까 원적이고, 논산에서 국민학교를 나왔고 그 후에는 보문동에서 살았으니, 정들고 아는 분들 많고 여기서 생활터전 잡고. 이제는 보문동을 떠날 수가 없죠. 몇 십 년을 장사를 했으니까 제2의 고향이죠. (건강히 오래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만들어야해요. 짬뽕 나오면 짬뽕 볶아야 되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해놓는 것은 짜장 하나뿐인데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씩 다 해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가죽공방 "문을 연 지 3주 되었어요."

구술자 강영건 (1992년생, 보문동 가죽공방 오도르 대표)

면담자 김영미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보문동, 사람 냄새 나는 서울

문을 연 지 3주 되었어요. (보문동에 개업하신 이유는?) 저는 여기가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한가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서울이지만 제가 시골사람이라 그런지 시골 같은 냄새가 나는 서울? 저희같이 핸드메이드(수공예품)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북적북적한 곳에 가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 드는 것에 대한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너무 한가하면 또 장사적인 입장에서 어렵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좋은 게 소비력 있는 어르신 분들도



공방 내부 풍경

많이 계시고 젊은 층도 거주 공간도 괜찮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인구 이동도 괜찮고. 사람 냄새가 나는 서울 같애서 저는 여기로 들어왔어요.

친구의 할아버지가 무료로 대여해주신 한옥 가게

원래 집은 강원도 원주예요. 서울 생활한 지는 6년차고요. 이리저리 뚝섬도 있었고 성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도 지금 잠깐 있는 곳이예요 여기도 잠깐. 옮겨도 보문동이나 성북동 이 근처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여기 너무 좋은 데 재개발 때문에. 여기 아시는 어르신이 제 친구의 할아버지신데 "그냥 한번 창업해 봐라, 잠깐 있을 동안" 그래서 감사히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분은 아직 여기 사시지만 재개발 때문에 곧 이주해 나가실 거예요. 친구의 할아버님은 보문동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죽공방의 모습

지금 잘 왔구요, 여기서 더 잘 준비해서 이 근처에서 제대로 된 샵을 내려고 합니다.

노동은 참 귀한 '기도'

원래 전공은 신학 전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죽 공방을 하게 되었나요?) 일단 노동이라는 게 참 귀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고 저도 배우고 해봤지만 지갑을 만들 때 흔히 쉽게 처리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는 곳은 그냥 넘어가고 보이는 곳만 신경 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신경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담기다 보니까 가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고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은 제품들은 더 좋고 더 잘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노동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요 또 주일에는 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위한 연구

(이 기술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에는 가죽공예같은 경우는 학과도 없고요. 따로 커리큘럼도 없고 책도 없고 인정해주는 라이센스(자격증)도 없구요. 이거는 정말 많이 만들어본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도 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지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노력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분저분 찾아다니면서 배우신건가요?) 한국에서 이분저분 찾아다니고 싶었는데 아직은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확산되지가 않아서 저는 한분에게만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서울에 와서 배웠습니다.

“동은 하나의 군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술자 최인규 (보문2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면담자 김영미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보문동은

작년(2016) 1월 달에 이쪽 동으로 왔어요. 성북구청에서 근무했어요. 여기 오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음악회는 주민들이 아니어도 오시고. 홍겨우니까 오시고. 음악회 유명한 분들 만나러 갈려면 그런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면 신나고 음악도 또 좋고. 성북천이 있고 그러니까.



보문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최인규 주무관(왼쪽)과 면담자
마을 축제일에는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현장 준비를 하였다.
보문동 주민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보인다.

성북천 관리

이 성북천이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복원할 때 다 걷어내서 살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 옆에 오수가 또 지나가요. 그렇게 폐수는 없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기도 많이 살고. 엄청 많이 살죠. 다리 밑에 이렇게 보면 우루루 우루루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꽃 죽으면 또 식재도 하고 다리마다 꽃밭 같은 것도 가꾸고. 저희도 국화 지금 집중적으로 다 심어놨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요즘 뜨거웠잖아요.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물을 주는 겁니다. 주민들은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주는 것도 일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살펴보는 주민의 삶

나름대로 동장님도 주민들과 교류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동네를 많이 순찰하셔가지고 어디 인도 블록이라든지 어디 조금 위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 개선을 할라고 하고. 구청에 보고해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행정차를 이용해가지고 공공근로분들과 같이 또 청소담당 주임님하고 합심해가지고 동네를 매일같이. 저희가 또 (쓰레기가) 나오는 중점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버리는 데다가 버리시거든요.

동은 하나의 군청, 각박한 세상에 주민과 함께하려

동은 등본도 떼주고 인감 발급도 해주고 청소 민원도 있고 이게 조그

만한 하나의 군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민원 따위가 있지만. 여기는 요즘에는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리 다 옵니다. 하다못해 삽도 빌려 달라고 오는 사람, 공구 빌려 달라는 사람, 양수기 좀 빌려 달라는 사람, 공구세트 없느냐, 복사 좀 해달라는 사람, 팩스 좀 보내달라는 사람, 한전에 관련된 사람, 국민연금에 관련된 사람, 건강보험에 관련된 사람. 우리가 심지어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여기에 파견을 와야 된다고 할 만큼 업무가 과중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 프로그램 운영해야죠, 또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그런 것 또 다 해결해야죠. 동네, 하다못해 휴지 하나 떨어졌어도 민원 해가지고 '휴지 치워달라', '개가 짖는다' 뭐 한다……, 주차다 뭐다, 정말 엄청난 다양한 민원들이



2017년 9월 29일 보문동 마을총회 준비 장면
마을총회에 앞서 음악회를 열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이 준비 연습 중이다.



성북천 산책로의 모습
위로 올라가면 한성대입구역까지 아래로 내려가면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이 산책로는 보문동 주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오른쪽의 싱싱한 꽃들은
지역 공무원들의 세심한 손길들이 이 공간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비용을 안 들이고 의자도 구청에서 가져오고, 돈이 없으니까 다 구매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각박한 세상에 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주석

1_ 『동아일보』, 1933년 9월 22일.
2_ 『동아일보』, 1933년 9월 20일.
3_ 이승렬, 「일제하 조선인 고무공업자본」, 『역사와현실』 3, 1990, 225쪽.
4_ 『동아일보』, 1924년 12월 28일
5_ 정근식, 「일제하 종연방적의 면사업 지배」, 『사회와 역사』2, 1986. 158-159쪽.
6_ 이옥지 ·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권, 2001, 34쪽,
7_ 이옥지 · 강인순, 위의 책, 35쪽.
8_ 이옥지 · 강인순, 위의 책, 35쪽.
9_ 이옥지 · 강인순, 위의 책, 36-37쪽.
10_ 이옥지 · 강인순, 위의 책, 36-37쪽.
11_ 강주룡의 삶에 대해서는 박준성, 『박전성의 노동자 역사 이야기』, 이후, 2009를 참고.
12_ 김경일, 『1930년대 서울의 혁명운동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92-94쪽,
13_ 『여성신문』, 2016년 12월 7일.
14_ 이효정,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 이병희,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15_ 김경일, 위의 책, 92-94쪽.
16_ 『동아일보』, 1933년 9월 21일.
17_ 『조선중앙일보』, 1933년 9월 24일.
18_ 『동아일보』, 1933년 9월 22일.
19_ 『동아일보』, 1933년 9월 24일.
20_ 김경일, 위의 책, 93쪽.
21_ 김경일, 위의 책, 93쪽.
22_ 김경일, 위의 책, 93쪽
23_ 김경일, 위의 책, 93-94쪽
24_ 이준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준열 · 이달호, 『선각자 송강 이준열의 삶』, 혜안, 2012를 참고.
25_ 남신동, 「최초의 사회주의 학교의 등장: 경성고학당」, 『식민지 교육연구의 다변화』, 과학교육사, 2011, 130-131쪽.
26_ 남신동, 위의 논문, 135쪽.
27_ 『조선일보』, 1931년 7월 14일.
28_ 남신동, 위의 논문, 123-126쪽.
29_ 『동아일보』, 1923년 5월 16일.

30_ 남신동, 앞의 논문, 123-126쪽.
31_ 남신동, 위의 논문, 135-136쪽.
32_ 남신동, 위의 논문, 136쪽.
33_ 남신동, 위의 논문, 136쪽. :『조선일보』 1931년 7월 15일.
34_ 남신동, 위의 논문, 136쪽.
35_ 『조선일보』, 1931년 7월 15일.
36_ 남신동, 위의 논문,136쪽.
37_ 『동아일보』, 1924년 7월 1일. ;『동아일보』, 1924년 8월 19일.
38_ 남신동, 위의 논문, 136쪽.
39_ 『동아일보』, 1925년 5월 8일
40_ 『조선일보』, 1931년 7월 16일.
41_ 『조선일보』 1931년 7월 16일.
42_ 남신동, 위의 논문, 137쪽.
43_ 『조선일보』, 1931년 7월 15일.
44_ 『동아일보』, 1927년 3월 13일.
45_ 남신동, 위의 논문, 140-142쪽.
46_ 1929년 서울지역 학생시위와 학생전위동맹의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송태은, 「1929년 서울지역 학생시위운동에서 사회주의 학생비밀결사의 역할」, 『서울과 역사』 96, 2017를 참고.
47_ 『조선일보』, 1931년 7월 19일.
48_ 『조선일보』, 1931년 7월 19일.
49_ 농토가 적어서 나누어 줄 것이 없다는 뜻.
50_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금강산에 있는 절.
51_ 화투놀이의 일종.

보문동 · 안암동





2부

안암동

안암동 마을여행

안암동이라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릴까? 안암동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고려대? 수많은 젊은이들? 좁고 기다란, 북적북적한 거리와 다양한 맛집들? 이런 것들에 비해 한자 '바위 암巖'이 들어가니 큰 바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일 테다. 아무튼 안암동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무엇을 보게 되리라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두 발로 직접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안암동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인상 깊으며,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두근거린다.

#골목길에서

내 선입견 때문이었을까? 안암동에 들어서면 활기찬 대학가가, 화려한 상점가가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보문역에서 성북천을 건너 도착한 안암동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한옥이었다. 지나가는 골목마다 단층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전주 한옥마을을 따라 안암 한옥마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 했다. 물론 여기에는 싸구려 한복 대여업체도 없고, 사진 찍을만한 '핫'한 장소도 물론 없지만 말이다.





안암동2가 일대의 한옥밀집지역
나무로만 만든 전통한옥이 아닌, 그 위에 시멘트와 타일을 덧붙여 보강한 개량식 한옥이다.

#용문중 · 고등학교

안암 한옥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따라 오르다보니 멀리 상아빛을 띈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상층부에 거대한 두 글자가 붙어있었다. 용. 문. 그 유명한 용문이로구나. 생각해보니 이 학교의 위치는 고지대라서 경관이 아주 좋고, 앞으로는 성북천이 흐르며 뒤로는 개운산이 버티고있는, 말 그대로 배산임수의 명당 중에 명당이다. 옛날 많은 유력자들이 이 땅을 탐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코미디언 유재석, 영화배우 한석규, 축구감독 황선홍 등 기라성같은 인물



용문중 · 고등학교

들이 이 곳에서 배출되었다.

건강한 육체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는 용문중·고등학교. 이 곳을 3년 다니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다들 건강에 비례한 맑은 정신을 가졌을테고 말이다. 이것이 많은 유명인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이른 새벽 우물에서 맨 처음 길어온 정화수처럼 맑은 정신을 가졌으므로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멈추고 발길을 돌렸다.

#손기정_집터

용문중·고교를 나와 우로 좌로 이리저리 골목을 꺾어들어가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음에도 가슴팍에 새겨진 일장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마라토너 손기정의 집터다. 손기정은 해방 후 안암동에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마라톤 선수 합숙소'라 이름붙이고 전국의 마라톤 유망주 20여명을 뽑아 직접 먹이고 재워가며 훈련을 시켰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1950년 보스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은·동을 휩쓴 한국의 삼인방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등이 모두 이 곳에서 손기정에게 가르침을 받은 선수들이었다. 물론 지금은 손기정이나 그 제자들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곳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의 다세대주택들만이 죽 늘어서 있는데, 손기정 집이 있던 자리에도 그 중 하나가 들어서 있을 따름이다. 그래도 한때 이 곳에 손기정이 살았었다는 것을, 이 곳에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가슴에 품기로 하고 그의 가르침이



손기정 집터 위에 세워진 다세대주택
손기정이 살던 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기다란 골목에 죽 늘어서 있는 똑같은 모양새의 다세대주택들

라도 받은 양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본다.

#개운사길

매일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만 두들기다 오랜만에 힘차게 내달리니 무척 힘이 든다. 심장은 나보다 더 빨리 뛰고, 숨을 내뱉느라 벌려진 입은 환상의 커플인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강제로 이별하게 만든다. 큰 길을 향해 달려나와 왼편을 바라보니 높다란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힘겹게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을 걷다보니 왜 안암동을 안암골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골짜기는 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구나. 깨달음을 얻었노라 뿌듯해하며 걷다보니 어느덧 안암역 사거리에 다다랐다. 그리고



성북천 부근에서 안암역 사거리로 가기 위해선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



개운사로 가는 길



안암동을 다니다보면 지겹도록 만나게 되는 하숙집 · 원룸 홍보 광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니 또 다시 깨달음을 얻는다. 개운사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개운사길이로구나. 자칫 깨닫지 못할 뻔 했다. 이곳의 모습은 여느 대학가처럼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그리고 원룸만이 그득했기 때문이다.

#개운사

개운사길의 큰 줄기를 따라 걷다보니 거대한 문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용이 하늘을 향해 휘돌아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 두 개와 그 위에 얹



개운사 일주문



공사를 멈춘 채 경고문이 붙은 두 건물

혀진 웅장한 지붕이 만들어낸 일주문. 그리고 한가운데 현판에 새겨진 글씨, 개운사. 여기가 바로 개운사길의 주인공인 개운사로구나. 그런데 문을 지나고나니 거대한 경고문이 붙어 비계만 설치한 채 공사를 멈춘 두 동의 건물이 의아함과 함께 을씨년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의아함은 어째서 사찰 속에 저런 것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고, 을씨년스러움은 폐건물 특유의 스산함과 '부동산 붐'이라는 현대사회의 싸늘함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시, 색색의 연등으로 장식된 언덕길을 오르니 진정한 개운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개운사는 조선이 건국된 지 5년이 흐른 1396년, 왕사인 무학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영도사였으나 조선 중기 개운사로 이름을 바꿨다. 개운사는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 온 찬란한 역사도 품고있지만, 근대 불교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불교의 대석학인 석전



연등으로 장식된 개운사 언덕길'



개운사 대웅전

박한영 스님이 머무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90년대까지는 지금은 김포로 이전한 중앙승가대학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갑자기 무엇인가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하지는 않으리란 걸 잘 알고 있다.

#대원암과_보타사

개운사를 빠져나와 개운사의 암자이자 석전 박한영 스님이 머물렀던 대원암으로 향한다. 가는 길 좌우에 우후죽순처럼 걸려 있는 하숙집과



대원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연구실이 있던 곳' 표지판

원룸 광고가 잠시 잊었던 사실을 문득 떠오르게 한다. 아, 대학가였지. 개운사 경내의 향취에 젖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니 먼발치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보인다. 저것이 필시 석전 박한영 스님이 머물렀던 대원암일 터. 가까이 다가가보니 기다란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띈다. '탄허스님께서 신화엄경합론을 번역하신 곳' 자신의 입적일을 정확히 예언했다던 탄허 스님이 이 곳에 머물렀었구나. 아직 살아계셨다면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숫자 여섯 개만 알려달라고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원암 뒤편에도 탄허스님 표지판과 꼭 닮은 것이 하나 세워져 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의 연구실이 있던 곳' 하지만 현재 연구실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텃밭 한 켠에 표지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그렇게 보타사로 향하려다 금동보살좌상이 잠시 대원암 방 한 칸을 빌려 살고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대원암으로 들어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1818호

가 금동보살좌상을 마주한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자유분방한 자세와, 신묘한 표정, 그리고 우아하게 뻗은 손 끝까지. 1미터도 안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키지만 그 아우라만큼은 대원암을 넘어 안암골을 메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걸을 때마다 자각자각 소리가 나는 운치있는 길을 지나 보타사에 다다랐다. 그리고 조금 전 금동보살좌상의 아우라가 안암골을 메울 법하다고 생각한 것을 반성했다. 마애보살좌상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보타사 대웅전 뒤편 암벽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이 불상은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수백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크게 상하지 않았음이 무척 신비롭게 다가왔다. 거기다가 부처님 얼굴에 담긴 아주 옅은 미소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오묘한 눈빛은 나도 모르게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고해를 하게 만든다.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1828호

#고려대학교

고해를 마치고 죄를 씻어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 목적지는 안암동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려대학교다. 사실 안암동에 들어선 순간 이미 고려대 내부에 들어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온통 고려대 건물들이 있고, 고려대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갑자기 묘한 압박감이 밀려온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를 밤새 견뎌냈던 항우의 심정이 이러할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 …"

조지훈의 호상비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기다보니 어느덧 정문이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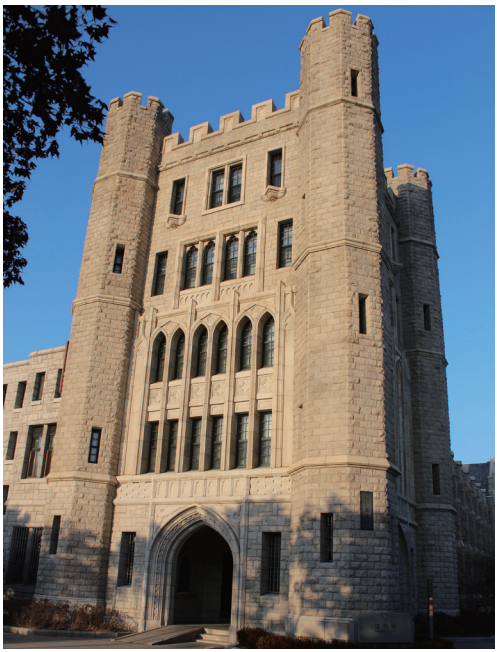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본관
사적 제285호

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눈 앞에 넓게 펼쳐진 중앙광장과 그 끝에 보이는 본관이 고려대의 웅대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물론 그 사이 위치한 누군가의 동상이 경관을 해치긴 하지만, 중요한 인물이겠거니 하고 만다. 중앙광장을 지나 찾아간 본관은 1934년 세워진 건물로,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본관으로 쓰이던 것이다. 현재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딕 양식의 건



고려대 본관의 유럽 중세풍 성가퀴
고려대 건물 대부분 이런 성가퀴가 조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현재는 대학원. 사적 제286호

축물인데, 그래서인지 새로 지어지는 고려대 건물들도 모두 고딕 양식을 본따 비슷하게 짓고 있다. 특히 중세 성관의 성가퀴는 고려대 건물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인 듯하다.

본관 우측, 한겨울임에도 아직 단풍이 지지 않은 언덕을 오르면 본관처럼 고딕풍의 모양새를 가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있다. 이 건물도 1937년 세워진 보성전문학교의 건물로, 현재 사적 제286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는 고려대의 수많은 공부노동자들을 위한 대학원 건물로 쓰이고 있다.

#참살이길

고려대 캠퍼스만 둘러봐도 하루 이틀 훌쩍 넘길 것 같아 다시 빠져나왔다. 나오는 길에 아까는 보이지 않던 일군의 시위대가 모여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위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맛이 쓰다. 씁쓸한 입 속을 달래기 위해 달짝지근한 무언가가 간절해졌다.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고려대 앞의 명소, 참살이길로 향했다.

참살이길이 이 길의 공식명칭은 아니다. 현재 이 길의 공식명칭은 '인촌로24길'이다. 그렇다면 참살이길이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걸까? 궁금해졌다.

고려대 출신의 박학다식한 J에게 물어보니 바로 답이 나왔다. 1990대 초까지만 해도 참살이길은 막걸리 집이나 몇 군데 있는 소박한 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슬며시 락카페나 가라오케 같은 유흥·향락업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려대 학생들은 이를 우려하여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1992년 9월 '안암동 우리마당'이라는 행사를 열고 이 길은 학생들의 길이며, 학생들의 주인인 길이라 선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참된 삶의 길',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길' 등의 의미를 담아 '참살이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정말일까? 의구심이 앞섰지만



참살이길

이내 뭐 어떠랴 싶었다. 인촌로보다는 낫지 싶어서 말이다.

참살이길 입구에 서보니 사거리 맞은 편 개운사길의 2차선과는 다르게 1차선으로 곧게 뻗어있다. 그리고 길의 양 옆으로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의 먹을 곳과 노래방, PC방 따위의 놀 곳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차도가 1차선으로 좁으니 인도의 폭이 비교적 넓다. 걷기 좋은 길이구나. 오가는 사람이 참 많겠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다녀도 좋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나와도 좋은 길이겠구나.

하지만 이 길도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라는 마수에서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 참살이길하면 떠오르던, 참살이길만의 독특하면서도 정겨운 가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그 자리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들만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득 중앙광장에서 본 시위대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누구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에서 쫓겨나고, 누구는 시급 몇 백원 올랐다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밀려들어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발길을 서둘렀다.

#보제원터

참살이길 끝에 다다라 길을 건너니 횟집 앞, 보도블럭이 끝나는 지점에 표석이 하나 세워져있다. '보제원터. 1393년-1895년 여행자의 무료숙박과 병자에 약을 주던곳' 조선시대 응급구조기관 진제장賑濟場 중 하나가 여기였구나. 나도 나름 안암을 여행 중인 여행자라면 여행자인데 공짜로 뭐

안 주려나. 표석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으니 바로 옆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괜히 민망해서 한 마디 던지고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에잇 이 표석은 뭐 이리 촌스럽고 못생겼어!"



보제원터 표석

#대광아파트

안암동과 동대문구의 경계를 따라 죽 걷다보니 골목 안으로 나이가 좀 있어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안암동3, 4가에는 70~80년대 세워진 10층 안팎의 아파트 세 단지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1969년에 지어진 안암아파트, 1983년에 지어진 삼익아파트, 그리고 1971년에 지어진 대광아파트. 오늘 마지막 목적지로 삼은 곳은 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있고,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있는 대광아파트이다.

대광아파트를 안암동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삼은 것은 사실 안암동의 동명 유래 때문이다. 안암이란 20여 명이 앉아 편히安 쉴만한 바위巖, '앉일바위'가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그 바위가 있는 곳이 바로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이기 때문이다.

대광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무척 가파른 언덕을 쉼없이 올라왔더니 숨이 가쁘다. 이 정도면 앉아 쉴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 앉아 쉬게 만드는 바위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누구든 여기까지 올라오면 쉬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숨을 고르고나니 '앉일바위' 생각이 났다.



안암아파트 전경



삼익아파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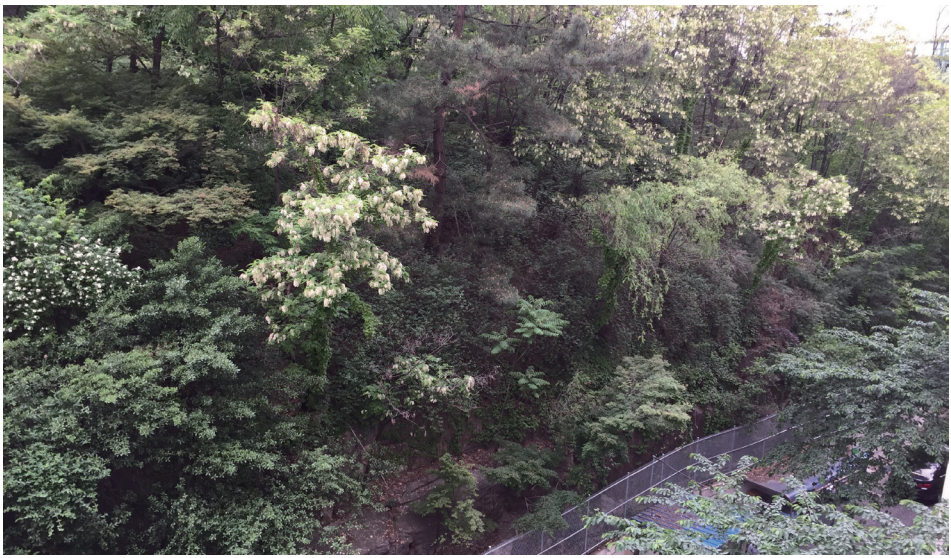
대광아파트 전경

어딨지? 하지만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큰 바위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주차장과 빼곡이 들어선 차들만 있을 뿐 바위는 흔적조차 없다. 그런데 그 흔적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삼익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광아파트 쪽을 바라보니 펜스 너머로 바위 산이 눈에 들어왔다. 아하. 대광아파트 단지 '안'에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광아파트 단지 '아래'에 바위가 있는 거구나. 결국 '앉일바위'는 한때 사람들이 올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제는 대광아파트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삼아 편히 쉬는 공간이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진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자니 안암동에 발을 들이기 전의 의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온데 간데 없어졌고, 그저 빨리 '앉일바위'처럼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



대광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주차장



삼익아파트에서 촬영한 대광아파트 하단부
펜스 너머로 바위 산이 있다

가고픈 마음이 들었다. 어차피 '안암'하면 떠오르는 상像이야 저마다 다 다를 것인데 그걸 특정해서 뭣하랴 싶다. 천 명이 있으면 천 개의 생각이 있고 만 명이 있으면 만 개의 세상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내 세상으로 얼른 가자. 발길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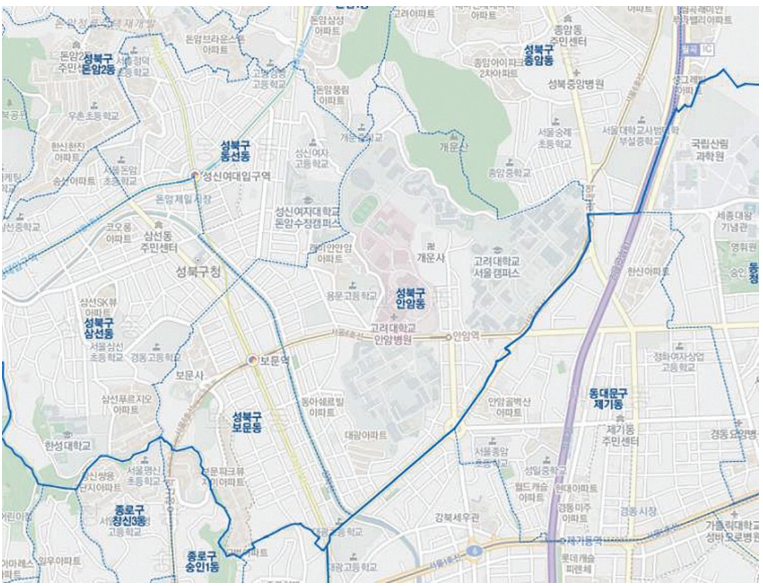
(민문기)

안암동 역사이야기

1. 여는 이야기

산과 하천, 그리고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안암동의 모습은 직사각형을 기울인 모습(◇)을 하고 있다. 서남쪽은 성북천(혹은 안암천)을 경계로 보문동과, 남동쪽



성북천. 안암로 개운산을 경계로 안암동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다음지도)

은 안암로를 경계로 동대문구 제기동과, 북동쪽은 개운산과 그 자락을 경계로 종암동과, 북서쪽은 동선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런 현재의 행정구역은 대체로 1975년 10월 1일 이뤄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안암동은 대체로 성북천 동쪽에서 개운산 자락 서쪽 사이의 지역(현재 안암동1가에서 4가 지역)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암동은 궁리宮里로도 불렸는데,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과 그 후손들이 살아서 붙은 이름이다. 그들이 살았던 집과 사당은 현 안암동3가 지역에 있었다고 전한다. 안암이란 동명의 유래가 된 '앉일바위'가 있던 지역이 현 안암동3가에 위치한 대광아파트였다는 것도 옛 안암동의 중심지를 짐작케 한다.

옛 안암동의 동북쪽 경계이자 현재 안암동의 중심인 개운산은 북한산 자락에서 이어진다. 한북정맥의 큰 자락은 삼각산으로 이어지고 그 삼각산 자락은 다시 보현봉과 형제봉, 그리고 북악터널 위쪽인 보토현을 거쳐 이어진다. 여기서 서남방으로 가면 북악산이 나오며, 동남방으로 가면 정릉과 미아리고개가 나오는데, 이 지맥의 끝자락에 바로 높이 134m의 개운산이 있다.[1]

개운산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운運을 연다開'라는 뜻의 사찰인 개운사에서 유래했다. 개운사는 원래 태조 5년(1396) 왕사 무학이 영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며, 개운산 끝자락인 현재의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자리에 있었다.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은 정조 때 일이다. 정조 3년(1779) 원빈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묘소를 당시의 개운사 자리로 정했던 것이다. 이때 위치를 옮기며 이름도 개운사로 바뀌었다.

개운사에서 유래된 지명도 많다. 현재 개운산 동쪽자락에 위치한 고



개운산에서 바라본 성북구의 모습.
(출처 : 성북구청 포토갤러리)

려대학교 자리에는 북 모양의 돌鼓巖 혹은 종모양의 돌鐘巖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암동의 동명유래가 되기도 했다. 또 돌이 많아 채석장도 생겼다. 자연히 '돌을 뜬다'는 뜻의 '돌뜨기'라는 지명이 생겼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부석浮石이 된다. 여러모로 개운산은 돌과 관련이 있다.

안암동의 서쪽 경계가 되는 성북천(안암천, 혹은 안감내)는 북악산 자락인 구준봉에서 발원하여 성북동을 지나, 안암동과 선설·용두동을 지나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개천이다. 보문동과 안암동의 경계가 되기도 한다. 이중 특히 안암동을 지나는 부분을 안감내, 안암천 등으로 불렀다. 성북동과 마찬가지로 안암동 역시 성북천을 앞에 두고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3.1운동 당시 300여 명이 성북천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안암동은 동쪽으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다. 한양도성에서 흥인지문(동대문)으로 나오면 동묘를 지나 신설동과, 제기동으로 거쳐 동쪽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펼쳐진다. 또 혜화문(동소문)으로 나오면 삼선동을 지나 미아리고개를 넘어 길음, 수유동으로 향하는 길은 동북 방면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안암동은 보문동과 함께 이 중

요한 두 길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했다. 또한 현재의 고려대학교 병원이 위치한 낮은 언덕을 넘으면 종암동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성북구에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사람이 일찍 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교통의 편리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행정구역의 변천

안암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했다. 고종 4년(1876)에 발간된『육조조례六曹條例』에 따르면 안암동은 한성부 동부 숭신방(성외) 안암동계로 되어 있다. 이후 고종 32년(1895)에 한 차례 개편되었다. 이때 안암동은 한성부 동서 숭신방(성외) 동문외계에 속했으며 원리 · 궁리 · 상리 · 중리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안암동이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다시 변화를 맞는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성외 지역을 8면제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안암동은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에 속하게 되었다. 경성부가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지만, 경성부의 위상 변화만 있었을 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큰 변화는 1914년에 일어난다. 총독부는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를 발표한다. 경성부를 축소한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경성부(혹은 한성부)에 속해 있던 보문동 지역은 이때 분리되어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속하게 된다. 안암리 · 부석동 · 궁리 · 원리는 모두 합하여 안암리가 되었다.

다시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22년이 지난 1936년 4월의 일이다.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령 8호를 발표했다. 경성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이때 확대된 경성부의 면적은 기존 경성부 면적에 3.5배에 달한다. 안암동은 다시

경성부 안암정이 되었다. 1943년 구區제가 실시되면서 안암정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된다. 해방 이후인 1946년 10월 1일에 발표된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지명이 우리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안암정은 안암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이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성북구가 동대문구에서 분리・신설 되는데, 안암동은 이때 성북구에 속하게 되며 1가~5가로 구분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실시될 때 동암동, 서암동, 남암동이 설치되었으며,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동암동, 남암동, 서암동은 폐지되고, 안암 제1동과 안암 제2동이 설치되었다. 현재와 같이 안암동 전체를 하나의 주민센터가 관할하게 된 것은 1977년 9월의 일이다. 이때 이루어진 동 관할구역 개편으로 안암 제1동과 제2동은 모두 안암동으로 조정 통합되었다.

(박수진)

2.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는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듬해인 1395년(태조 4)부터 수릉壽陵, 즉 자신의 능지로 정할 만한 산지를 찾아 산수 좋은 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안암동에 거동하여 수릉을 정할만한 곳을 구경했다.[2] 또한 1396년(태조 5)에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세상을 떠난 이틀 후에 흰 옷에 흰 관을 쓰고 능지陵地를 직접 살피기 위해 안암동으로 나갔다.[3] 이러한 기록들을 미루어보아 태조는 일찍부터 안암동의 산록과 지리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



안암동3가, 4가 전경

암동에 능지가 조성되는 일은 없었다. 안암동 산지山地를 정하고 땅을 파보니 뜻밖에 물이 솟아나서 중지하였고, 결국 다른 곳을 능지로 정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안암동 지역은 산수가 아름답고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그 입지가 산릉터에 적합하게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찍부터 사람들이 기거할만한 공간으로 대두했던 것이다.

이러한 안암동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서울의 동명洞名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앞서 밝혔던 『태조실록』의 기사뿐만 아니라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등에도 안암동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1411년(태종 11) 6월 9일 승도僧徒들의 초막草幕을 철거시켰다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안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병조(兵曹)에서 승도(僧徒)들의 초막(草幕)을 헐어버리자고 청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게으른 승도(僧徒)들이 유명(有名)한 사사(寺社)에서 살지 아니하고, 역사(役事)를 면하기 위하여 남산(南山)·안암(安巖)·사을한(沙乙閑) 등지에 초막(草幕)을 얽고 재(齋)를 베풀어, 남녀(男女)를 모아다가 소나무와 잡목(雜木)들을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는데 이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초막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시고, 정업원(淨業院) 이외에는 산속의 여승방[尼僧房]을 금지하여, 이것 또한 모두 철거해 버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5]

이후 안암동에는 안암사安巖寺라는 절도 생겼다. 하지만 안암사는 1470년(성종 1) 9월 26일 예조禮曹의 건의에 따라 철거되고 백성들이 경작하는 농토로 변했던 것을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조에서 도성(都城)의 안팎을 순행하여 살피고,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편의한 조목을 만들어 아뢰기를, "… 국초에 도읍을 세울 때에 산과 물의 향배(向背)를 살펴서 사사(寺社)를 건립하여 산수의 부족함을 도와서 재변을 진압하고 물리쳤는데, 그후 사찰로서 복세암 · 안암사(安巖寺) · 정일암 · 향실암 · 수정암 · 망성암 · 은암 · 일출암 · 대고산사 · 소고산사 · 입암사 · 도장동사 · 정업원과 같은 것이 세워졌고, … 이 때문에 주산에서 내려오는 맥과 용호(龍虎) 곧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와, 안산(案山) 곧 앞산의 지맥(地脈)이 휴손(虧損)되어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철거하게 하고, 부득이 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땅을 골라서 옮겨 짓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다만 관청에서 창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라." 하였다.[6]

그 후 15년이 지난 1484년(성종 15), 귀인貴人 권씨權氏가 안암사를 국도國都의 비보裨補라 하여 왕에게 중건하기를 청함에 따라 왕이 이를 허락하니 안암사 중창의 부당함을 아뢰는 상소가 빗발쳤다.[7] 그럼에도 왕은 굽히지 않고 강행하였다.

한편 안암동 일대는 왕의 사냥터로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464년(세조 10) 9월 19일, 왕과 신하들이 안암동 일대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일 첩종령(疊鍾令)을 행하였으니, 그것을 속히 통지(通知)하라." 하고, 정오에 근정전(勤政殿) 앞 처마 아래에 나아가니, … 명령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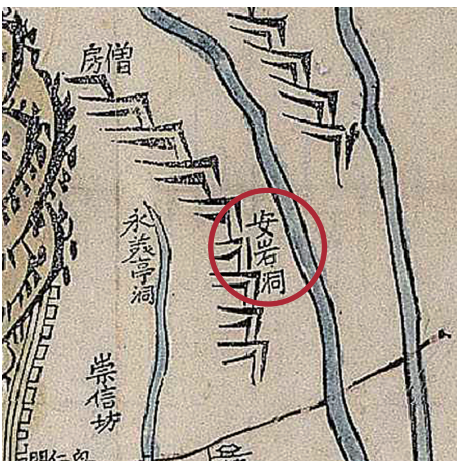
"당상(堂上) 이상은 갑옷을 풀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갑주(甲冑)를 입고 동대문(東大門) 밖 안암동(安巖洞)에서 몰이하라."하였다. … 일모(日暮)에 상군(廂軍)과 잡류(雜類)가 합해서 몰이하여 내려오니, 여우가 위내(圍內)에 있었으므로, 세자(世子)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였다.[8]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문헌 상에 등장하는 안암동은 조선시대 고지도에서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양도漢陽圖』나 조선 후기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 『도성도都城圖』 등을 살펴보면 홍인문 밖으로 '안암동安岩洞'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안암동이라는 동명은 옛 문헌과 고지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한양도(漢陽圖)』
(18세기 중반 추정,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안암동'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붉은 원 안)



『수선전도(首善全圖)』
(186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안암동'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붉은 원 안)

만,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지금의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20여 명이 앉아 편히 쉴만하기에 그 바위를 '앉일바위'라 불렀고, 이를 한자로 옮겨 '안암安岩'이라 부른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 있다.

안암이라는 동명이 '앉일바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은 가운데, 조선 초 이 지역에 살던 문정공文靖公 한계희韓繼禧(1423~1482)와 연관된 설도 존재한다. 한계희는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된 한명회韓明澮의 육촌 형제였다. 그러나 한계희는 한명회를 비롯한 다른 친지들에 비해 매우 곤궁하였고, 나물로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한다. 이를 높은 관직에 있는 친척들이 측은하게 여겨 북바위鼓巖 부근 논 열섬지기를 받게 하였으나, 한계희는 논은 받되 그 논에서 나온 곡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인근의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 덕에 인근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으므로, 이를 기리기 위해 마을 이름에 '편안할 안安'을 붙여 안암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9]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암'이라는 지명은 한계희가 태어나기 이전인 1395년(태조 4)부터 문헌상에 나타나기 시작하기에 시기상 맞지 않다. 또한 한계희는 1447년(세종 29) 승문원정자를 시작으로 집현전정자, 우문학, 좌승지 등을 거쳐 이조판서, 중추부사 등의 관직까지 오르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떠한 유래가 있었든 '편안할 안安'이 이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지역이 얼마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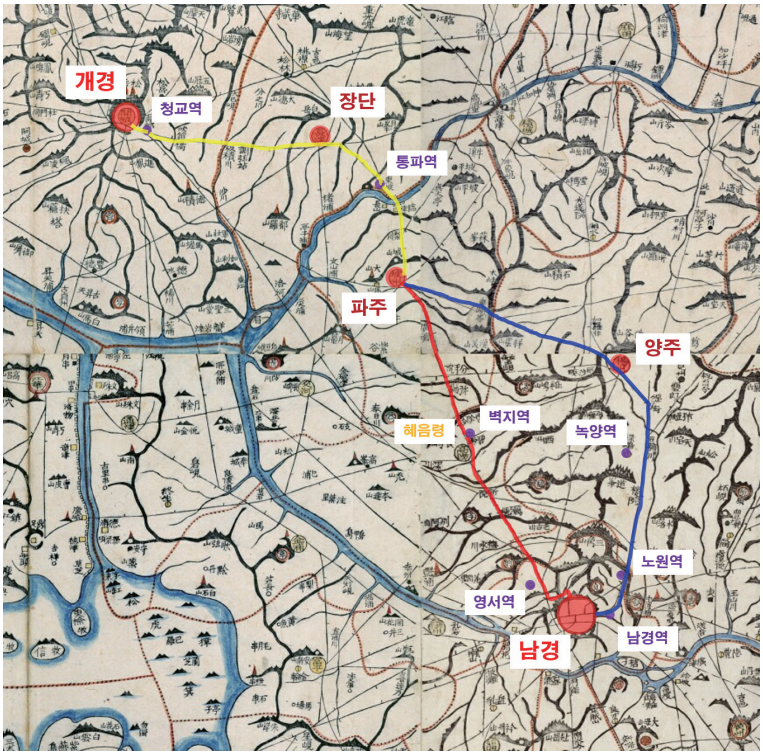
이러한 안암동은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수성책자守城册子』의「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과 1867년(고종 4)에 발간된『육전조례六典條例』등에 한성부 동부 숭신방 안암계로 기록되어있다.

남경으로 가는 길

태조 이성계가 안암동의 풍수지리적 입지와 아름다운 풍광에 관심을 보여 문헌 상에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 초의 일이다. 하지만 안암동의 그러한 조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안암'이라 이름 붙여지진 않았겠으나, 사실상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開京이었다. 하지만 도참사상圖讖思想에 따라 918년(태조 1)에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987년(성종 6)에 경주를 동경東京으로 하여 중경中京=개경)과 함께 삼경三京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1067년(문종 21)에 양주楊州[10]에 남경南京을 설치하여 사경四京이 되었으나, 이 호칭을 피해 때로는 개경을, 때로는 동경을 제외시켜 삼경이라 칭했다. 이 삼경을 설치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풍수지리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도선道詵이 쓴『도선기道詵記』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 "고려 땅에 삼경이 있는데 송악(宋岳)이 중경이 되고 목멱양(木覓壤)은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되어 왕이 11·12·1·2월에는 중경에 거하고, 3·4·5·6월에는 남경에 머물고, 7·8·9·10월에는 서경에 머물면 36국(國)이 조공(朝貢)하리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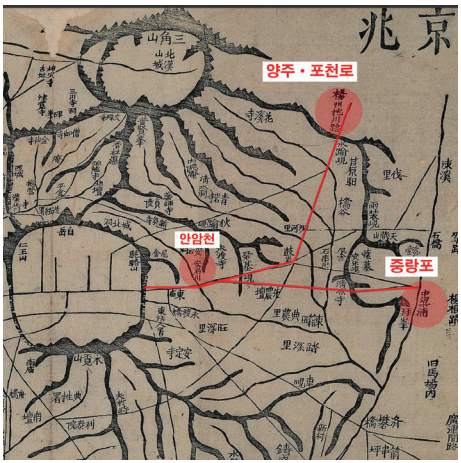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위에 개경에서 남경가는 길을 표시한 그림
노란색은 공통된 길(개경~파주), 빨간색은 첫 번째 길(파주~혜음령~남경),
파란색은 두 번째 길(파주~양주~남경역~남경)이다.

이렇게 고려삼경 중 하나로 선택된 남경은 그 위상이 올라갔고, 개경에서 남경으로 향하는 길 또한 통행이 가장 편리한 곳에 자리 잡으며 발달하였다.

『고려사』에 나오는 역참들을 보면 고려시대 개경에서 남경에 이르는 길이 크게 두 갈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길은 '개경 → 청교역 → 장단 → 통파역 → 파주 → 혜음령 고개 → 벽지역 → 영서역 → 남경'이었다. 그런데 이 길은 거리가 짧은 반면 혜음령 등 제법 높은 고개들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조금 길더라도 평지와 물길을 따라 남경으로 향하는 두 번째 길이 널리 이용되었다. 두 번째 길은 개경에서 파주까지는 앞의 길과 똑같으나,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향하여 '녹양역 → 노원역 → 남경역 → 남경'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었다.[12]



『도성도』 위에 양주 · 포천에서 오는 길과 중랑포에서 오는 길이 안암천 직전에 만나는 것을 표시한 그림

첫 번째 길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두 번째 길은 오늘날 그 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 그렇기에 남경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루 쉬며 의관도 정제하고 할 일을 정리했던 남경역 또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추정할 수는 있다. 남경역은 개경에서 오는 사람들 외에도 남경의 동쪽 또는 동남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했을 것이니, 그 길들이 모이는 곳이 확인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을 남경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지도는 없으니 조선 후기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도성도』를 토대로 살펴보자. 먼저 개경에서 오는 길은 양주 · 포천에서 수유현을 넘어 사하리, 고암, 제기현을 거쳐 동대문을 향한다. 동쪽에서 오는 길은 중랑포를 건너 청량사, 선농단을 지나 동대문을 향하는데 이 두 길은 안암천 직전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게 된 지점에서 남경 쪽을 바라보면 유난히 높게 솟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남경역이 아닐까 한다.[13] 몇 날 며칠을 걸어 남경



보제원터 표석

을 찾아왔을 때 남경에 도달하기 직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저 언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언덕은 안암천에 면해있어 목욕물이나 식수 등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기에 남경에 들어가기 전 하루 쉬어가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14]

또한 북쪽에서 남경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하여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고암鼓巖과 제기현祭基峴은 오늘날 고려대학교 앞을 말한다. 이 길은 현재의 안암동과 동대문구의 용두동·제기동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조선의 여행자 숙박시설 겸 빈민구제기관인 '보제원普濟院'이 그 길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30년(중종 25) 간행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한성부 동대문 밖의 보제원, 서대문 밖의 홍제원弘濟院, 남대문 밖의 이태원梨泰院, 광희문 밖의 전관원箭串院 등 네 개의 원院이 설치되어있음이 기록되어 있다.[15] 원이란 고려의 역驛 제도를 계승하면서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재정비한 것으로 명령의 전달, 공무 수행자에 대해 말과 숙식 제공 등이 주된 임무였으나, 그밖에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구휼 업무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16]

이중 보제원은 동대문 밖 3리 지점에 있었다. 동대문을 벗어나 동묘東廟에 이르면 길이 둘로 갈라지는데, 동북쪽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보제원에 닿았다. 이 곳에서 안암동천 · 제기현 · 고암을 거쳐 수유리를 지나 노원역에 이르러 경흥으로 향하는 동북 제2로에 연결되었다.[17] 결국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다 할 수 있는 셈이다.

궁말 이야기

안암동에는 일찍이 조선의 제4대 왕 세종世宗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 및 그의 아들인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대를 이어 살고 있던



궁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암동3가 지역



의안군 방석의 묘
현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에 위치해 있다. (사진 출처: 광주시청)

마을,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의 묘소 인명원仁明園이 있던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우리말로 '궁말'로 부르며, 광평대군 일가의 사당이 있어서 '사당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궁말'이라 부르는 궁리(또는 중리)는 광평대군의 세거지였을 뿐 아니라 태조의 일곱째 아들인 무안군撫安君과 그 부인 왕씨, 광평대군과 그 부인 신씨, 광평대군의 아들 영순군과 그 부인 최씨 등 3세대를 봉사하는 사당이 있어 유명하다.

무안군의 이름은 방번方蕃으로, 태조의 일곱째 아들이자 세자 방석方碩의 형이다. 태조는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방과芳果(훗날 정종定宗)·방원芳遠(훗날 태종太宗)을 위시한 여섯 아들은 첫째 왕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소생이고, 방번·방석과 경순공주慶順公主의 3남매는 제2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의 소생이었다. 그런데 태조가 조선왕조를 개창할 때 신의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신덕왕후는 개국에 내조의 공이 있었기에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 그래서 태조는 신덕왕후의 소생으로 세자를 봉하여

왕위를 계승하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 무안군 방번은 성정이 거칠어 대신들의 건의로 동생 의안군 방석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이에 정안군靖安君 방원 등의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은 조선조 개국에 공이 컸음에도 홀대를 당하니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따라서 1398년(태조 7) 8월, 방원을 중심으로 하는 왕자들과 하륜河崙·이숙번李叔蕃 등의 일파가, 세자 의안군을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며 군병을 동원, 대궐문을 부수고 들어가 대신들을 살해하고 세자를 내쫓아버렸다. 이를 '무인정사戊寅定社' 또는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이때 세자 방석은 물론 세자의 형 무안군 방번과 경순공주의 부마도 살해당했다.[18]

이때 희생된 무안군 방번이나 세자 방석은 아무런 죄도 없는 원통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항상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절에서 명복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1406년(태종 6)에는 태종도 무안군에게 공순恭順이라는 시호를, 의안군에게 소도昭悼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19] 그리고 세종은 1437년(세종 19)에 하교하여 후사가 없는 이들을 위해 그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을 공순공 방번의 후사로,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소도공 방석의 후사로 정하여 각기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했다.[20]

무안군의 후사를 이은 광평대군은 이름은 여璵, 자는 환지煥之, 호는 명성당明誠堂으로 부왕인 세종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 1437년(세종 19) 7월, 왕이 동교로 나가 농사 현황을 구경하고 수레를 보제원 북쪽 안암동에 있는 광평대군의 새 집에 멈추었다고 한다. 이는 광평대군이 무안군의 후사가 된 해인데, 후사를 잇게끔 하였음에도 왕이 친히 새 집을 찾아

보는 것에서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21]

광평대군은 이곳 안암동 '궁말'에서 양부養父 무안군의 사당을 짓고 그 후 7년간을 거처하며 부인 신씨와의 사이에서 영순군 부溥를 두었다. 그러나 1444년(세종 26) 12월, 불행히도 20세의 약관으로 천연두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22] 그러나 아들 영순군 이후로 자손이 번창하여 왕족 중에서도 후손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이들 후손들은 대대로 무안군을 봉사하며 살았다. 지금도 안암동에서는 광평대군 일가의 주택과 사당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위쪽의 마을을 웃말, 아래쪽의 마을을 아랫말로 부르기도 한다.

안감내길 이야기

안감내길은 대광초등학교 기준, 안암천 건너편부터 돈암사거리에 이르는 지선도로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안감내길은 안암동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성북구청 뒤를 거쳐 돈암동성당 앞을 지나 동소문동5가까지 이르는 것이다. 안감내길이란 이름은 안암천의 옛 명칭인 안감내에서 유래하는데, 여기에 관한 흥미로운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다.

> 옛날 안암동에는 채소를 심어 문안(시내)에 가져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암동 남쪽에 안암내라는 개천이 흐르고 거기에 안감내라는 다리가 있었다.
>
> 이 마을에 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채소를 문안으로 가져다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대문 밖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점잖은 영감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다. 영감이 술집 주인에게,

"내가 문 밖에 소풍을 나왔다가 그만 돈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내일 술값을 가져다 주겠소."

하였다. 주인이 이에,

"아니,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외상술을 주겠소. 어서 술값을 내고 가시오!"

라고 타박하였다. 안감은 몇 푼 안 되는 술값 때문에 노인이 야단맞는 것을 보고는

"그 술값은 내가 낼 테니 그 노인은 보내시오."

하고 술값을 대신 치러주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채소를 팔러 문안에 들어오거든 자기 집을 찾아 달라 하며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안감이 문안에 들어가 채소를 다 팔고 영감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솟을대문[23]이 있는 큰 집으로 꽤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그 영감이 나와서 반가이 맞이하더니 주안상까지 차려 대접하고, 전날에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 다음 자신에게 베푼 은공을 갚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하였다. 안감이 사양을 해도 영감이 계속 다그치자 안감은 안암동은 서쪽으로는 성북동에서 흐르는 개천이 있고, 동쪽으로는 영도사(지금의 개운사)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이 있는데, 비만 오면 두 개천의 물이 흘러 안암동이 섬같이 되어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 이 개천에 다리나 하나 놔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이라면 자기의 이익 추구에만 집착하는 데 반해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애환을 말하는 데 감동하여 영감은 쾌히 승낙하였고, 동네 앞에 다리를 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 '안감내다리'라 이름 붙이고, 개천을 안감내라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개운사開運寺

남쪽으로 안암동, 동쪽으로 종암동, 서쪽으로 동선동, 북쪽으로 돈암동으로 둘러 싸여 있는 개운산. 그 남쪽 산자락에 개운사開運寺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절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국 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현재는 김포로 이전한 불교 교육의 근본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던 곳이다.

개운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의 개운사 현판이 걸린 큰방과 대현루大賢樓를 위시하여 응진전 · 산령각 · 종각 등의 많은 건물들이 있어 총총히 들어선 소나무와 두 그루의 향나무 또한 속세의 것을 모두 차단하는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주차장 한편에 위치한 재건축 중인 양식의 건물 두 동은 불교의 현대화를 말해주는 듯하다.

개운사는 1396년(태조 5) 왕사王師인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동대문 밖 5리 정도 되는 안암산 기슭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779년(정조 3) 5월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인명원仁明園을 세웠다. 이에 인파당人波堂 축홍竺洪 스님이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영도사를 옮겨지었다고 하나, 다른 기록에 의하면 1730년(영조 6)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무학대사가 영도사를 창건했던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다.



무학대사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도사에서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이



개운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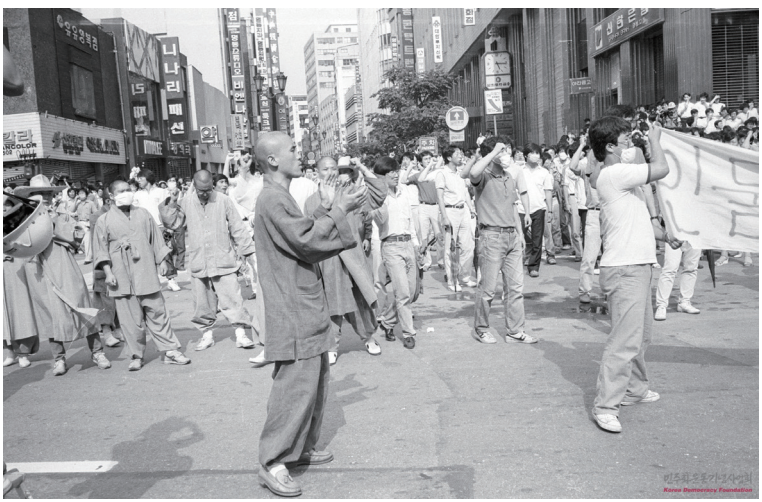


개운사 경내

름을 바꾸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개운사의 전신인 영도사의 벽담스님에 의해 자랐는데, 왕위에 오른 후 '운명을 여는 사찰'이라는 의미인 개운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이 있다.

개운사는 조계종 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로 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불교개혁과 진보의 흐름을 주도해 온 종단개혁운동의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독립과 불교혁신을 위한 승려 단체인 만당이 이곳에 자리 잡고 불교 내 독립운동과 혁신운동을 주도했다. 1911년 한국 불교를 일본의 조동종에 합류시키려는 시도를 오월성 · 한용운과 함께 저지한 근대의 고승이자 석학인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 스님이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불교 내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통일민주국가 건



명동 길 한복판에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과 스님들
1987년 6월 20일 촬영된 것으로, 중앙승가대학생들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6월항쟁에 참여하고자 거리로 나선 모습이다.(사진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설을 꿈꾸던 불교혁신동맹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이 흐름이 이어져 1950~1960년대에는 불교계 일제 잔재 청산에 앞장섰고, 1980년대에는 사회 민주화 운동을 불교계에 접목시키기도 했다.

종단개혁운동의 보루인 개운사에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승려들의 교육장인 중앙승가대학이 위치했던 것도 이러한 절의 기개와 관련이 깊다. 중앙승가대학은 불교개혁과 발전을 위해 승려들의 전문 교육장의 필요성을 느낀 젊은 승려 5명이 주체가 되어 1979년 보현사에 세운 뒤 1981년 개운사로 옮겼다. 1991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았고, 2001년에는 개운사를 떠나 김포시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절 뒤쪽만 남기고 모두 인가가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길이 산속으로 깊이 이어졌고 주위에 송림이 무성하여 경내가 그윽하고 아늑하여 수도승은 물론 세속의 티끌을 잊으려는 시인들이 찾아와 정적 · 평온의 경내를 마음껏 즐겼다고 한다. 조선 말기 고종대의 문호로 유명한 황오黃五의 개운사 시 또한 그러한 경내의 한 면을 말해준다.

희미한 등불 뜰 앞을 비치는데
종경(鐘磬) 소리 들려오니 일만(一萬) 시름 부서진다.
먼 길손 졸음 없으니 밤새소리 들려오고
작은 중은 말 없이 봄 하늘의 별만 쳐다본다.

한편 개운사 동쪽 골짜기에는 이 절의 암자인 대원암大圓庵과 보타사普陀寺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개운사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 1점과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 5점이 보관되어 있다. 서울 개

운사開運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발원문發願文(보물 제1649호), 개운사 감로도甘露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2호), 개운사 신중도 神衆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3호), 개운사 팔상도八相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4호), 개운사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5호), 개운사 목木 아미타불좌상阿彌陀佛坐像 복장일괄腹藏一括(서울특별히 유형문화재 제291호) 등이 그것이다.[24]

이중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보물 제1649호)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불상 내부에서 중수발원문과 불교경전 등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중수발원문에는 충남 아산 축봉사에 봉안되어 있던 사실과 고려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에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불상은 단엄한 상호, 세련되고 뛰어난 조각기법, 장중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조형감각, 긴장감 넘치는 선묘 등이 잘 어우러진 매우 완성도 높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불상 내에서 발견된 다수의 발원문은 각기 작성한 연대가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고,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장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같이 발견된 복장 전적은 보물 제1650호로 지정되어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25]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49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신중도



개운사 감로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2호



개운사 신중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3호



개운사 팔상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4호



개운사 지장시왕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5호

와 지장시왕도는 1870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감로도와 팔상도는 1883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네 그림 모두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화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26] 또한 보물 제1649호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함께 발견된 목 아미타불좌상 복장 유물은 모두 41건 58점에 달한다. 이중 조성 및 개금기 3건과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7건, 대방광불화엄경 인본 15건 등 총 25건은 보물 제1650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6건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1호로 지정된 것이다.[27]

대원암大圓庵

대원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의 산내 암자이다. 조선 후기인 1845년(헌종 11)에 지봉 우기智峰 祐祈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원암 전경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불교계의 석학인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이 이곳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여 많은 석학을 배출하였다. 그가 주석하던 당시의 대원암은 우리나라 지식사회의 대표적 인물들의 집합소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수많은 출가 제자들과 더불어 석정 신석정 · 미당 서정주 등의 재가 제자 및 동경 삼걸로 불리던 벽초 홍명희 · 춘원 이광수 · 육당 최남선을 비롯하여 백화 양건식 · 산강 변영만 · 가람 이병기 · 위당 정인보 · 범부 김정설 · 지훈 조동탁 등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석전의 가르침을 구했다. 석전의 입적 이후 1970년대에는 탄허 택성呑虛 宅成이 주석하면서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의 역경 사업에 종사하였다.



석전 박한영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 금강신문)

현재는 보타사 관음전이 내부 수리 중인 관계로 보물 제1818호인 서울 보타사普陀寺 금동보살좌상金銅菩薩坐像이 거처를 옮겨 잠시 머무르고 있다.

보타사普陀寺

보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의 암자이다. 사찰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웅전 뒤편 암벽에 조각된 마애보살좌상의 조성시기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은 사찰은 그리 크지 않지만 눈에 띄는 마애불이 있다. 계단을



보타사 대웅전

올라 입구를 지나면 작은 규모의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미륵불이 숨어있다. 보타사의 전각들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미륵불의 크기는 매우 크다. 앉아 있는 부처이지만 그 높이가 5미터나 된다. 이 커다란 불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고려 후기 마애불상 중의 하나이다.

마애불상의 왼편으로 '나무금강회상불보살南無金剛會上佛菩薩' 등이 적힌 원패願牌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다. 원패는 원래 부처 · 보살의 이름을 적어 불단 위에 놓는 목재 장식물로 마애불상 옆에 새겨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원패는 시대마다 유행되는 문양이 다른데 이 마애불의 원패처럼 연꽃 받침과 연잎이 장식된 직사각형 형태는 고려시대 사경寫經의 표지화에

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큰 바위에 부조로 새겨진 이 마애불상은 몸 전체에 호분胡粉이 칠해져 있어서 흔히 '백불白佛'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백불은 옷자락 사이로 주름들이 형식적으로 흘러내린 점, 갸름하면서도 약간 살이 붙은 얼굴 등에서 양식적으로 거의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보타사 마애보살상이 새겨진 바위면은 보도각의 마애보살상보다 더 굴곡져 있는데 고개를 약간 숙인 얼굴이나 신체의 부드러운 선들은 바위 면을 그대로 이용한 듯 보인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보타사 마애보살좌상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2014년 7월 2일 보물 제1828호로 지정되었다.[28]

보타사에는 보물이 한 가지 더 있다. 현재 관음전을 수리하는 관계로 잠시 대원암에 몸을 맡기고 있는 보타사 금동보살좌상普陀寺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1818호)이다. 이 금동보살좌상은 왼쪽 다리는 아래로 내려 바닥을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1828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1818호

딛고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세워 앉는 '유희좌遊戲座'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좌는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통통한 뺨, 반개한 눈, 작고 아름다운 입술 등에서 여성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보살상의 얼굴 표현과 조선 전기 금동상으로는 규모가 큰 점에서 조선 초 왕실이나 지배층이 발원한 상으로 판단되어 조선 초기 중앙에서 유행했던 귀족적인 보살상의 형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29]

(민문기)

3. 일제강점기

개운사와 운동회

한국에서 최초로 운동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설이 분분하다. 1896년 4월과 5월 나타난 화류회花柳會를 최초의 운동회로 보는 견해와 1896년 5월 31일 훈련원에서 개최된 관립소학교 운동회를 최초로 보는 견해가 있다.[30] 화류회는 일본에서 행하던 하나미花見(はなみ)에서 나온 개념으로 선생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벚꽃을 즐기며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긴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31] 즉 화류회는 현재 사용하는 소풍과 유사한 것이었는데 간단한 체육활동도 병행했기 때문에 운동회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소풍과 운동회는 다른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5월 31일 훈련원에서 개최된 관립소학교 운동회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1896년 5월 관립소학교 운동회를 시작으로 1890년대 후반 각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한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1897년 4월 15일 경성학당 운동회이다. 경성학당 운동회는 당시 운동회들이 어떤 종목을 두고 운동회를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경성학당 운동회에서는 육상과 체조 2종목을 채택했다. 가장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운동회를 진행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16일 훈련원에서 열린 영어학교 운동회는 12종목을 채택했고, 학생들의 신장 차이에 따라 체대인, 체소인의 구분을 두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897년 6월의 영어학교 운동회에서 실시한 종목은 다음과 같다.[32]

300보 달리기(채대인/체소인)

공던지기

높이뛰기

600보 달리기

대포알 던지기

멀리뛰기

2인3각

1350보 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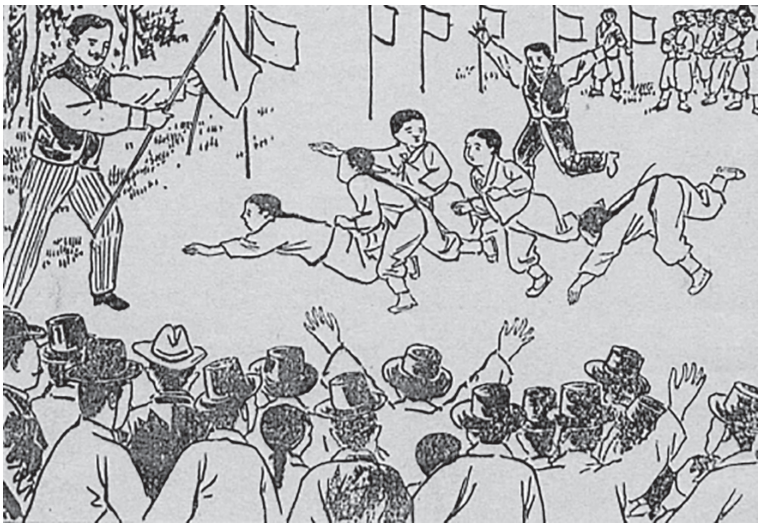
동아줄 끌기(줄다리기)

300보 달리기(손님들)

당나귀 타고 달리기

당시 실시된 운동회 종목 가운데 당나귀 타고 달리기가 상당히 이채롭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현대 운동회와 체육경기에서도 실시되는 것들이다. 영어학교인만큼 외국인 교사들을 통해 근대적인 체육활동과 운동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6월 열린 관립 · 공립 소학교 연합 대운동회에서 실시된 종목도 대동소이했다. 이후 운동회 규모와 종목은 점차 확대되어 1899년 각 어학교학원 대운동회에서는 16개 세부 종목으로 늘어났다.[33] 학교 운동회는 점차 발전하고 있었다.

1896년부터 1904년 사이에 개최된 학교운동회는 총 1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운동회 3건을 제외하면 16건은 모두 한국인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개최된 운동회였다.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1896년 3건, 1897년 4건, 1898년 3건, 1899년 4건, 1900년 1건, 1901년 0건, 1902건 1



대한제국시기 운동회 모습
1906년 무렵 운동회 경기 모습으로 달리기를 하는 학생과 그 모습을 보는 관중들이 보인다. 당시 운동회는 많은 사람들의 참가했던 대표적인 행사였다.

건으로 나타난다. 1896년~1899년 3년 사이에 14건이 개최됐다.[34] 학교 운동회가 빠르게 확산 · 정착됐다.

이렇게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운동회는 국가행사와 같았다. 대한제국 정부는 운동회에 관계된 경비와 물품을 제공하며 운동회를 제공했다. 또한 병사들의 훈련장소인 훈련원을 제공하며 운동회 개최를 적극 지원했다.[35] 대한제국 정부가 운동회를 적극 지원한 것은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을 그리고 관람하는 관중들을 '충군애국'하는 국민으로 훈련시키려고 했다. 여기에 대중의 계몽을 통해 '충군애국'을 실현하려고 했던 독립협회도 운동회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36] 초기 운동회는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와 밀접한 초기 운동회의 성격이 운동회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고 절대 군주권을 손에 넣은 고종은 점차 운동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37] 이미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고종에게 대중들을 '충군애군'하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도 운동회가 침체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1900년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운동회는 1906년부터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1905년 2번 개최된 운동회는 1906년에는 무려 39회가 넘게 개최된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운동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많은 운동회가 개최된 것은 이전과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에서도 운동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1905년 해주에서 열린 운동회를 시작으로 지방에서도 운동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이전 운동회가 주로관립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1906년부터는 사립학교들에서도 운동회에 활발하게 개최했다. 1906년에는 한성의 사립학교들은 물론 지방의 사립학교들도 단독운동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사립학교 간에 연합운동회가 개최됐다. 한성에서 개최된 연합운동회에도 지방의 사립학교들이 참가하기 시작했다.[38] 이전까지 학교 운동회가 국가 행사와 같은 성격이었다면 1906년 이후 학교 운동회는 각 학교가 모두 참가하는 사회적인 행사로 바뀐 것이다.

1906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까지 개최된 학교 운동회는 총 322건이다. 여기에 당시 개최된 운동회의 다수가 연합운동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운동회에 참가한 학교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교 운동회는 1905년 2건, 1906년 39건, 1907년 59건,

1908년 110건, 1909년 71건, 1910년 41건이었다. 운동회 개최 건수는 19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1908년에 최고점을 찍고 19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39] 이것은 아마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강해지기 시작한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지방에서도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와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에서 매우 활발하게 실시됐다. 반면 전라도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런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립학교의 보급 양상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40]

그렇다면 학교 운동회는 어디에서 주로 개최됐을까? 운동회는 대체로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공터가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운동회는 대체로 궁궐·유적지, 사찰 주변, 산·바닷가 혹은 군대 훈련장에서 개최됐다. 대체로 1900년대 초 운동회는 넓은 공터가 있는 경치가 좋은 명승지나 혹은 군 훈련장에서 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으로 좁혀보면 운동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은 동소문 밖 삼선평이다. 동소문 밖에서는 총 29번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소문 밖에는 사찰이 많이 있었고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소문 밖에서 운동회가 많이 열리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운사開運寺 주변이었다.

개운사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안암산에 위치한 사찰이다. 1396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처음에 영도사永導寺라고 불렀다. 1779년에 사찰 이름을 현재 이름은 개운사로 개칭했다.[41] 동소문 밖의 대표적인 사찰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을 보면 개운사에서 개최된 운동회의 기록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광성학교운동. 일전에 남문안 양골 광성학교에서 영도사에 가서 춘기운동을 하였는데 산술 경주와 기취경주와 고조 광조에 입격한 자를 공책, 연필, 양목, 철필, 등속으로 시상하고 교사 일인은 공책 십삼권과 연필 삼속이오 손님 최문현씨는 지화 이원을 상품으로 주었다더라."[42]

"동창학교운동. 지난달 22일 사립동창학교에서 춘기운동을 영도사 근처에서 거행할 때에 모든 임원과 학도의 부형이 와서 참여하였다가 의연금을 많이 내고 내빈 중 장현식 등 제씨가 차례대로 권면한 후 각각 의연금을 내어 운동비에 보용케 하였다더라."[43]



개운사의 옛 모습
1396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개운사는 처음 영도사(永導寺)라고 불렸으나 1779년에 개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개운사 주변에서 열린 운동회 사례는 상당히 많다. 개운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서 학생들은 땀 흘려 운동을 즐겼고, 학부형들을 열렬하게 그들을 응원했다. 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상품으로 지급됐고, 운동회를 구경하던 유지들이 학교에 의연금을 내며 운동회를 돕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운동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운동회를 참관한 지역 유지들이 내는 의연금은 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었다. 당시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만으로는 운동회를 실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지들의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관료들도 학교 운동회에 많은 기부금을 냈고, 외국인들도 상당한 보조금을 지불했다. 학생들이 내는 성금과 기부금도 운동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운동회의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점차 운동회에 필요한 자금도 많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운동회가 성장할수록 학교 재정은 열악해지고 운동회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44] 폭발적으로 증가한 운동회 붐이 만든 그늘이었다.

활발하게 개최되던 운동회는 1908년 무렵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는 학교 운동회가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조선인들 사이에 단합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자 경계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운동회 개최 횟수를 봄과 가을에 한 번씩 2회로 한정하고 운동회 개최 범위도 1군 내지는 2군을 넘지 않도록 규제했다.[45] 1910년 관찰사가 각 부윤과 군수에게 보낸 훈령에는 연합운동회 개최에 대한 경고와 운동회 규모의 축소가 들어있었다.[46]

또한 일제는 운동회 개최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 했고, 급기야 일제는 무력을 동원해서 운동회 개최를 저지하기에 이르렀다.[47]

일제는 왜 이렇게 운동회를 탄압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운동회가 가진 성격 때문이었다. 189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 활발하게 실시됐던 운동회는 단순히 체육활동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회에서는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각계 저명인사들의 연설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운동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세계정세와, 각국의 실정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연설을 주로 했다. 운동회를 통해 청년들의 각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운동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운동회 노래'라는 것을 부르며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1906년 6월 대한체육구락부에서는 개운사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운동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애국운동가愛國運動歌'를 부르고 만세 삼창을 하고 귀가했다. 당시 불렀던 노래 가사에는 운동을 통해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몸을 수양하여 충군 애국하여 태극기를 동서양에 빛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48] 운동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양했던 것이다.

이런 운동회의 모습은 일제에겐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동회를 막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일제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1909년 전후로 운동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러나 개운사 주변에서 청년들이 모여 흘렸던 땀에는 가볍지 않은 시대의 무게가 담겨있었다.

비록 운동회는 일제의 압박에 의해 종료됐지만 개운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었다. 사찰로서 개운사의 역할이 남아있었던 것

이다. 특히 개운사에서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추도회가 많이 열렸다. 1907년 7월 14일 개운사에서는 대한자강회 주최로 정재홍의 명복을 비는 추도회가 열렸다. 정재홍은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하자 자결을 한 인물이다. 일제 침략의 원흉을 제거하려던 의사의 의로운 뜻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추도회에 몰려들었다. 참석한 이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지사의 뜻을 기리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흐느끼며 슬퍼했다고 한다.[49]

정재홍의 추도회로부터 2년 뒤 개운사에서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의 추도회가 열렸다. 1909년 5월 5일 『대한매일신보』사의 전 사장 베델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이 대대적으로 치러졌고
조선에서도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추도식이 열렸는데 그 장소 가운데 하나가 개운사였다.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베델
영국 출신 기자인 베델은 대한제국 시기 항일 언론이었던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다.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던 베델은 1905년 5월 서울에서 병사했다.
개운사에서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열렸다.

의 추도회가 열린 것이다. 베델은 영국 출신의 기자로 대한제국 시기 일제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항일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사람이다. 1904년 7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델은 일제의 끈질긴 탄압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1905년 5월 1일 서울에서 병사했다. 먼 타국 땅에서 생을 마감한 베델을 안타깝기 여긴 사람들은 개운사에서 베델을 위한 추도회를 개최했다. 추도식에서는 안창호, 양기탁, 임병항 등이 추도 연서를 하며 고인을 기렸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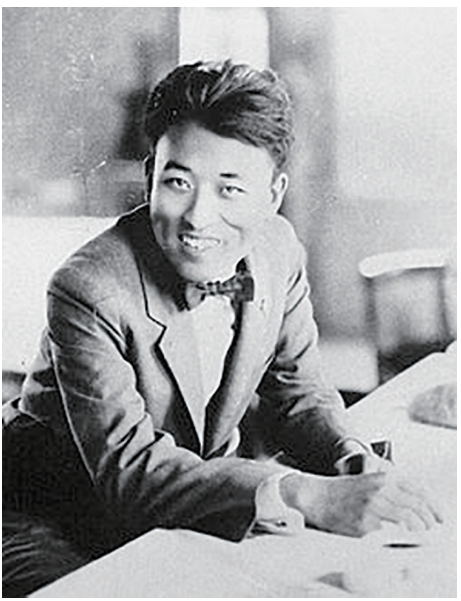
이처럼 개운사에서는 정재홍, 베델과 같은 애국지사들의 추도회가 많이 열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개운사에서는 이들과 대립했던 한 인물의 추도회도 열렸다. 바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였던 것이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하자 서울에서도 대대적인 추도회가 열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개운사였다. 1909년 12월 12일 한자통일회漢子統一會라는 단체가 주최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에는 유길준, 지석영, 등이 참석해 그의 명복을 빌었고, 같은 달 27일 각 지방의 위원들도 상

경하여 개운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추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51] 암살자와 암살 대상의 추도회가 한 곳에서 열린 것이다. 냉혹한 역사의 한 흐름 속에 개운사가 존재했다.

나운규와 아리랑

일제강점기 제작된 한국 영화 가운데 한편을 고른다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1926년 개봉한 〈아리랑〉을 고를 것이다. 그만큼 초기 한국 영화사에서 영화 〈아리랑〉이 가진 위치는 매우 확고하다. 1926년 개봉된 이래 초기 한국영화사상 불멸의 명작이자 민족영화로서 오랫동안 추앙받아온 영화 〈아리랑〉, 그 중심이 시대의 풍운아 나운규가 있었다.

나운규는 1902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회령에서 회령보통학교와 신흥학교 고등과를 진학한 나운규는 1918년 간도명동중학에 입학했다.[52] 그런데 그가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1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간도명동중학은 민족의식을 갖춘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3·1운동에 동참해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일제는 이처럼 민족운동의 거점이 되는 명동중학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결국 폐교시키기에



춘사 나운규
춘사 나운규는 배우로서도 인기가 많았고 감독으로서도 영화 〈아리랑〉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남긴 초기 한국 영화계의 스타이자 풍운아 그 자체였다.

이르렀다.

학교가 폐교당하자 나운규는 북간도와 만주지방을 유랑했다. 이때 그는 독립운동 세력들과 관계를 맺고 청진-회령 간 철도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 또한 나운규는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중동학교 고등 예비과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진-회령 간 철도를 파괴하려는 계획이 미수에 그치면서 일제 경찰에 체포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53] 이 사건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나운규가 직접 민족운동에 관계했음을 보여주며 영화 〈아리랑〉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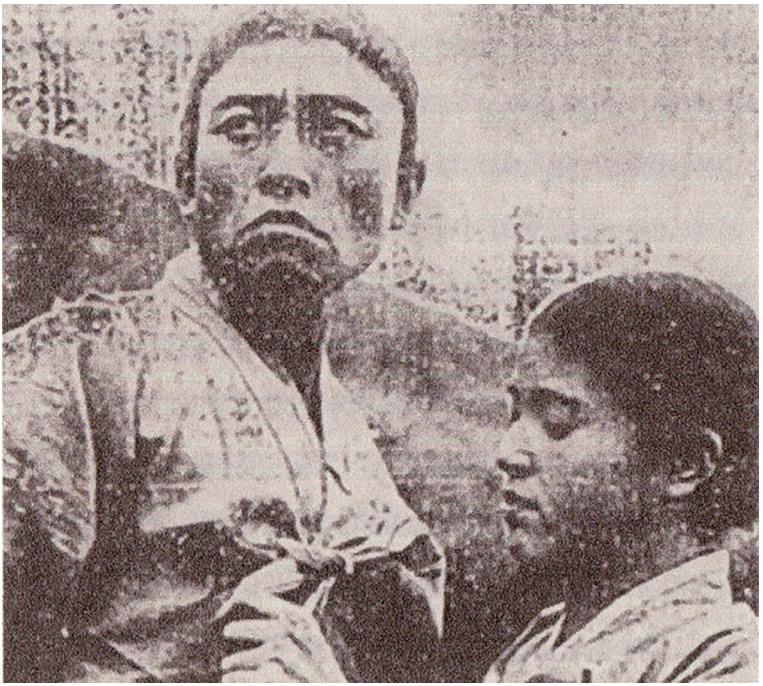
1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거치고 출소한 나운규는 다시 회령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회령에서 나운규는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극단 예림회의 공연을 보게 된 것이다. 극단 예림회는 1923년 함흥에서 조직된 지방의 무명 극단으로 당시 순회공연 중이었다. 나운규는 예림회의 공연을 본 후 공연 예술에 매료됐다. 그는 곧바로 예림회의 안종화를 만났고 극단에 합류했다. 나윤규의 예술 인생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나운규는 예림회가 해산하자 회령을 떠나 경성으로 상경했다. 경성에서 안종화와 재회한 나운규는 그의 주선으로 조선키네마주식회사에 들어간다.[54] 1924년 일본인 소유의 회사로 부산에 만들어진 조선키네마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 제작업체였다. 나운규와 영화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조선키네마주식회사에 들어간 나운규가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한 것은 윤백남이 감독한 〈운영전〉의 단역 가마꾼이었다. 그런데 첫 영화에 출연한 감격도 잠시 곧 영화 제작을 두고 감독 윤백남과 조선키네마주식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양측 간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결국 윤백

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영화인들은 조선키네마주식회사를 탈퇴하고 윤백남프로덕션을 만들었다. 나운규도 여기에 합류했다. 새로운 프로덕션에서 나운규는 본격적인 연기자로서 대중 앞에 선 것이다. 나운규는 이경손 감독의 〈심청전〉에서 심봉사 역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26년 윤백남프로덕션이 망하고 새롭게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 들어간 후 나운규는 이규설 감독의 〈농중조〉의 주연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대중적으로 큰 각광을 받았다.[55] 당시 신문에 실린 영화평에서는 나운규의 힘 있고 선 굵은 연기가 홀로 뛰어나 단조로운 스토리를 잘 조화시킨 것이 영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지적했다.[56] 그만큼 나운규는 연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나운규는 조선 영화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것이다.

연기자로서 큰 각광을 받은 나운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것은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서는 영화 〈농중조〉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작품의 연출을 나운규가 맡았다. 나운규는 수감생활을 겪을 당시부터 생각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아리랑〉이었다. 〈아리랑〉은 나운규가 각본과 연출 그리고 주연 1인 3역을 맡은 작품이었다. 당시 영화 제작 현실로 봤을 때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만큼 〈아리랑〉의 제작은 모험적인 시도였다.

영화 〈아리랑〉은 어떤 일을 당해 정신이 나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청년 영진(나운규 역)과 그의 여동생 영희(신일선 역)을 주축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진과 영희가 사는 마을에 영진의 친구 윤현구(남궁운 역)가 찾아온다. 영진은 친구 현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진의 여동생 영희와 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영진과 영희의 아버지는 큰 빚을



영화 아리랑의 한 장면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은 초기 한국 영화의 최고 걸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아리랑의 필름은 남아있지 않아서
〈아리랑〉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이용해 마을의 부호의 마름 기호는 영희를 넘보려고 했다. 이에 기호와 현구는 큰 싸움을 시작했다. 이때 영진이 나타나 기호를 쓰러뜨렸고, 그와 함께 영진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영진은 기호를 해친 상태였고 결국 경찰에게 잡혀가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57]

〈아리랑〉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통속적인 치정극에 가까웠다. 그러나 당시 관객들은 정신이 이상해진 영진을 일제에 의해 고문당한 독립운

동가로 친구 현구와 여동생 영희를 평범한 민중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그들을 괴롭힌 마름 기호는 일제 및 악질 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당시 관객들은 〈아리랑〉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느꼈던 슬픔과 울분을 풀어냈던 것이다.[58]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체로 설화나 전통소설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리랑〉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다. 더구나 당시는 1919년 3·1 운동이 끝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충분했다.

1926년 개봉 이후 〈아리랑〉이 벌어들인 금액은 약 1만 원 정도였다



아리랑의 출연진과 제작진
나운규는 아리랑을 제작하면서 영화인으로서 정점에 올랐다.
이후 나운규는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서면서 나운규의 영화 인생은 내리막을 걸었고
1937년 8월 불과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고 한다. 당시 물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만큼 〈아리랑〉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들었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리랑〉이 상영됐다. 그만큼 사람들은 〈아리랑〉을 좋아했다. 흥행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도 호평 일색이었다.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년이 넘은 1935년에 이르러서도 '조선영화 중에는 아리랑 이전에 없었고 아리랑 이후에 또한 아리랑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영화로 평가받았다.[59] 특히 1인 3역을 담당한 나운규에 대한 평가는 최고조에 달했다. 영화 〈아리랑〉을 통해 나운규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 것이다.

그러나 영화 〈아리랑〉은 단순하게 흥행한 영화 한 편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아리랑〉 개봉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 한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60]

"요새이는『아리랑타령』이 엇지나 유행되는 지 밥 짓는 어멈도 아리랑 공부하는 남녀학생도 아리랑 젓냄새나는 어린 아희도 아리랑을 부른다. 심지어 엇던 여학교에서는 창가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집에서 혼자 아리랑 타령을 하던 것이 버릇이 되야 다른 창가를 한다는 것이 아리랑 타령을 하야 선생에게 꾸지람을 듯고 또 엇던 집 가정에서는 자기 시아버니가 한강(漢江)을 가는데 인력차를 타고 간다닛가 며누리가 하는 말이『단 10리 못가서 발병이 나싯가봐 인력차를 타서요.』하닛가 시어머니는 또『버테고개(白峴)』가 여간 어려우냐고 한다는 말이『아리랑 고개가 좀 어려우냐.』고 하야 시어머니와 며누리가 모도 아리랑으로만 놀다가 망신을 톡톡이 당하엿다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안인지는 알 수 업스나 하여간

서울에 그 노래가 퍽 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羅雲奎君의 아리랑영화가 여러 사람의 환영을 바드니 만큼 그 영향이 일반 가뎡이나 학교에 미치는 것이 또한 적지 안타"

이 글에 따르면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이후 주제가였던 노래 "아리랑"이 시대의 유행가가 됐다. 이전까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아리랑"이 불렸다면 1926년 이후에는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인 "아리랑"이 불려졌다. 영화 〈아리랑〉의 노래 "아리랑" 민족의 노래가 된 것이다. 안암동은 영화 〈아리랑〉의 로케 장소였다. 당시 기와집 한 채와 초가집 십여 채가 있는 산중 골짜기가 배경이 되었다. 성 밖이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동대문까지는 전차를 타고 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순전히 20리쯤 걸어야 촬영장에 다다를 수 있었다. 1926년 4월 어느 날 첫 촬영이 있었을 때는 수백 명의 엑스트라와 스탭들이 동대문에 모여 안암동까지 긴 행진을 시작했다. 단, 예외는 있었다. 여주인공은 신일선은 감독의 특별한 배려로 인력거를 타고 안암동 촬영장까지 갔었다고 한다. 영화 속 아리랑고개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지금의 안암동 어디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작은 마을 옆으로 난 나지막한 고갯길이 있는 곳 어디쯤 아니었을까?

〈아리랑〉의 성공으로 단숨에 조선 영화계 최고의 스타이자 감독이 된 나운규의 삶은 어땠을까? 〈아리랑〉 이후 나운규가 만든 작품은 〈풍운아〉였다. 〈풍운아〉는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니콜라이 박이란 인물이 세탁소를 차려 어려운 고학생들을 돕고 악한들을 처치한다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로 이것 역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독선적인 나운규의 제작 스타일이 문제



단성사

였다. 결국 일부 동료들은 나운규와 결별했다. 그럼에도 나운규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1927년에도 나운규는 〈들쥐〉, 〈금붕어〉를 흥행시키며 다시금 명성을 드높였다. 나운규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영화이었다.

〈들쥐〉와 〈금붕어〉를 연이어 성공시킨 나운규는 독자적인 프로덕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단성사 운영주 박승필의 도움을 받아 조선키네마프로덕션에서 나와 자신의 이름을 딴 나운규프로덕션을 설립했다. 나운규프로덕션을 설립한 나운규는 활발하게 영화를 제작한다. 1927년 〈잘 있거라〉를 시작으로 1928년 〈옥녀玉女〉, 〈사랑을 찾아서〉, 〈사나이〉, 1929년 〈벙어리 삼룡〉까지 연달아 영화를 제작했다. 나운규프로덕션에서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뒀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은

〈사랑을 찾아서〉였다. 〈사랑을 찾아서〉는 본래 〈두만강을 건너서〉였으나 일제의 검열에 의해 제목을 바꿔 개봉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당시 서울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61]

1929년까지 나윤규의 영화 인생은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1920년대 조선 영화계는 나운규 개인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20년대의 빛나는 성공 아래서 나운규의 몰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우선 나운규프로덕션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됐다. 나운규프로덕션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실제 제작비가 2~3천 원이라면 예산은 만원을 책정했다. 실제 제작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자신들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다.[62] 여기에 나운규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였다.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에 갈등도 표면화됐다. 오랫동안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윤봉춘을 비롯한 나운규프로덕션 소속 전 멤버가 나운규프로덕션을 탈퇴한 것이다. 조선 최고의 영화인 나운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운규프로덕션이 해체된 이후 나운규의 영화인생도 요동치기 시작한다. 프로덕션 해체로 손상된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나운규가 선택한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준 〈아리랑〉이었다. 그러나 1930년 제작한 〈아리랑 후편〉은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리랑 후편〉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나운규의 인기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차 생활이 어려워진 나운규는 악극단에 출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운규는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힘든 와중에도 주변의 투자를 받아 만든 1932년 「개화당이문」이란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크게 실패했다. 나운규의 영화 인

생은 분명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후 나운규는 연극에 출연하며 꾸준히 영화를 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재기하기 위해 나운규는 필사의 노력을 거듭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기를 위해 무리한 탓에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운규는 1937년 지병인 폐결핵 악화되면서 생을 사망했다. 1920년대 영화계 최고의 스타였던 사람의 최후라기엔 너무나 쓸쓸한 것이었다.

영화인 나운규의 삶은 풍운의 연속이었다. 1920년대 최고의 스타이자 감독에서 실패를 거듭하다 폐결핵으로 사망하기까지 그의 삶은 영화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잦은 풍파 속에 일찍 삶을 마감했던 나운규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품 〈아리랑〉과 함께 지금도 회자되는 불멸의 영화인이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일제강점기 안암동은 고양군 숭인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본래 과일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산발적으로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숭인면 일대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임야지역의 성격이 강했다.[63] 그러나 1920년대부터 숭인면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20년 9천 명이었던 숭인면 일대 인구는 1925년 2만 3천 명, 1930년 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64] 특히 숭인면에서도 도심과 가장 가까웠던 안암리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1920년 1920년 413명에 불과했던 안암리의 인구는 1930년 17,15명으로 증가했다.[65] 불과 10년 사이에 안암리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숭인면 안암리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전차의 도입과 관계가 있었다. 1899년 8월 홍화문 앞에서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이 있었던 동대문 밖 청량리까지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홍화문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가 개통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당시 전차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으며 운행요금은 현재 충정로 부근인 경교京橋에서 동대문까지 갈 경우 상등은 7전 5분, 하등은 5전이었다.[66] 홍화문-청량리 노선을 시작으로 종로와 남대문, 영등포와 용산을 연결하는 노선 등이 만들어졌다. 전차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전차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이용해 경성으로 들어오고 나갔다. 특히 경성부 외곽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전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들에게 전차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경성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차를 타기 용이한 전차역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청량리선이 지나는 고양군 숭인면 안암리 역시 이런 요인으로 인구가 늘어났던 것이다.

또한 전차역과 지방을 연결하는 사설 철도가 연결되고 이 역들을 연결하는 전차 노선이 새롭게 부설되면서 전차역 주변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청량리역이 경원선과 연결되고 광화문과 동대문까지의 전차 궤도가 복선화 되면서 청량리역 일대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청량리역 주변으로 경성농업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자리 잡았고,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과 종연방적공장, 조선고무회사, 조선제지회사 등이 만들어졌다.[67]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일대가 개발된 것은 1937년 2월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37년 2월 무렵 조선총독부는 경성부 동부지역을 돈암지구로 묶고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을 세웠다. 1937년 10월부터 1939년 2월 무렵 토지조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1939년 말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시작했다.[68] 주택이 공급과 함께 이 일대에 수도가 공급됐고, 교통 역시 간선도로인 보문로가 만들어졌고 전차도 창경원에서 돈암지구까지 연장 부설되었다.[69] 불모지였던 경성부 동부지역은 새롭게 주택지역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곳에 주택가만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책임졌던 학교가 이곳에 들어선 것이다. 바로 보성전문학교였다.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5월 대한제국大韓帝國 내장원경內藏院卿인 이용익이 설립했다. 이용익은 고종의 측근으로 일본에 반대하고 러시아와 제휴를 통해 견제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반일 성향을 가진 이용익은 조선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다. 이용익이라는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그를 일본으로 납치했다. 일본에 의해 강제 연금을 당한 이용익은 하루아침에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다. 이용익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건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명확해진 1904년 12월 무렵이었다.[70]

비록 자의는 아니었지만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용익은 많은 것을 느꼈다. 특히 이용익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육문제였다. 일본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두루 살펴본 이용익은 국내에도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용익은 자비로 많은 서적을 구입하며 귀국 후 시작할 학교 설립을 준비했다.[71] 이미 일본 체류 중에 이용익의 머리에서는 근대적인 교육기관 설립이라는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용익이 그린 큰 그림은 국내로 돌아오면서 구체화됐다. 귀국 후 이

용익은 소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의 교육 기관을 체계적으로 설립한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신해영申海永, 김기경金基璟, 김중환金重煥, 정명섭丁明燮 등과 함께 학교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용익은 1905년 1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은 「사립보성전문학교규칙私立普成專門學校規則」을 발표하고 3월 『황성신문皇城新聞』에 학원 모집 광고를 실었다. 당시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면 초기 보성전문학교는 법률학전문과法律學專門科, 이재학전문과理財學專門科, 농업학전문과農業學專門科, 상업학전문과商業學專門科, 공업학전문과工業學專門科 등 5개 학과를 모집했다.[72]



이용익
이용익은 대표적인 반일 인사로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납치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일본의 교육시스템을 본 이용익은 대한제국으로 귀환 후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에서는 근대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농업, 상업, 공업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런 과목을 가르칠 사람들도 부족했다. 이용익의 구상대로 온전하게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용익은 1905년 4월 1일로 예정됐던 개교식을 연기하고 4월 3일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법률학전문과 학생 모집 광고를 다시 게재했다.[73] 부족하나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과를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1905년 4월 3일 법률학전문과와 이재

학전문과만 구성한 상태에서 개교식을 거행했다.

보성전문학교는 박동礡洞에 있던 아어학교俄語學校 건물을 교사로 사용했다. 아어학교俄語學校는 5년제 관립학교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던 학교였다.[74] 관립학교 건물을 사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초기 보성전문학교는 대한제국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보성이라는 학교명이다. 이용익이 학교 설립을 구상할 무렵 생각했던 이름은 중앙이었다. 그러나 이용익의 계획을 들은 고종은 학교 이름을 보성으로 바꾸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보성이 학교 이름이 되었다.[75] 보성전문학교에 대한 고종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초기 보성전문학교는 수업 연한 2년제의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전문과 두 가지만 존재했으나 1905년 9월 한성법학교 학생들을 인수하며 법률학전문야학과를 신설했다. 1907년 1월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전문과를 법학과와 경제과로 개칭하고 수업 연한을 3년제로 바꾸었다. 이처럼 보성전문학교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고종이 보성전문학교에 큰 관심을 가졌고 측근인 이용익이 운영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익이 사망한 이후였다. 1907년 3월 해외로 망명했던 이용익이 사망하자 보성전문의 소유권은 그의 손자 이종호李鐘浩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1907년 말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보성전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상실한 보성전문학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학교 운영권을 가진 이종호李鐘浩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연루되면서 구금당하자



보성전문학교 1주년 기념식
초창기 보성전문학교는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황실의 지원이 줄어들고, 설립자 이용익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보성전문학교는 소유권 문제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보성전문학교의 경영난은 심화됐다. 이후 천도교에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으나 교주 손병희가 체포되자 경영난이 다시 불거졌다. 결국 김병로金炳魯를 비롯한 몇몇 유지들이 뜻을 모아 1921년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보성전문학교 운영을 담당했다. 재단법인이 경영을 담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됐다. 조선총독부는 꾸준히 보성전문학교 운영에 간섭했고, 재단 학교 운영은 지지부진했다.[76]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보성전문학교는 1932년 전환점을 맞이했다.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한 기업가로서 명망이 높았던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
재정난에 빠진 보성전문학교를 구원한 것은 인촌 김성수였다. 김성수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안암동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본격적인 안암동 시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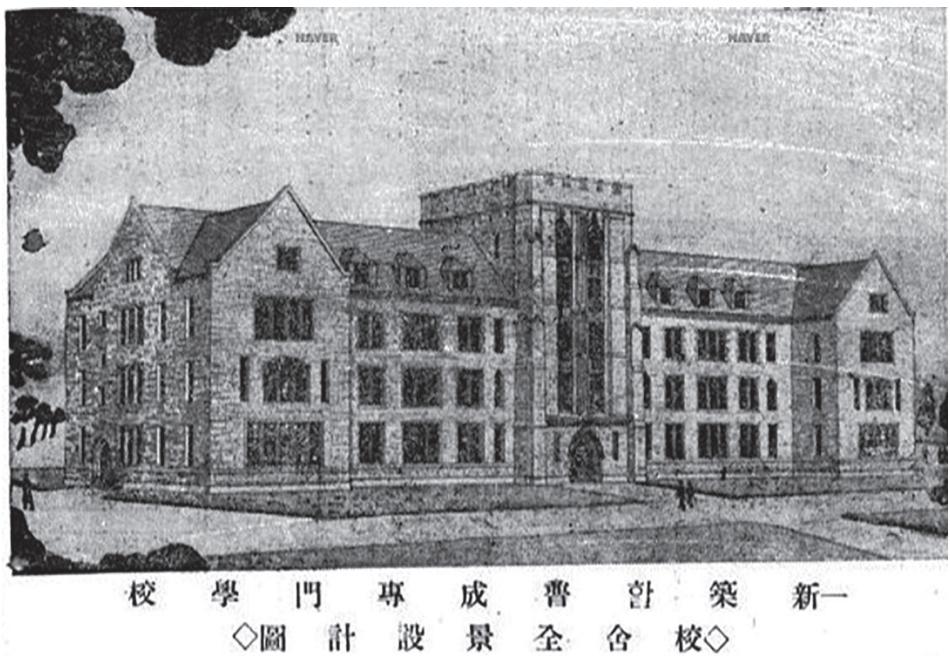
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것이다. 김성수는 경성방직주식회사로 대변되는 기업가로 유명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교육가이기도 했다. 김성수는 1922년부터 시작된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인물로 조선인인의 손으로 민립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77] 이런 생각에서 김성수는 앞으로 만들어질 민립대학의 기반으로서 경영이 어려워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것이다.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직후 김성수는 김성수는 기존에 사용하던 송현동 교사를 버리고 넓은 대지에 새로운 교사를 건설하려고 했다. 김성수가 발견한 곳 이때 김성수가 발견한 곳이 현재 안암동 고려대학교 부지였다. 김성수는 안암동 일대에 개인 소유의 땅 13,300평을 빠르게 매수했고, 인근에 이왕직李王職이 가지고 있었던 땅 47,000평을 매수해 총 62,000평의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 김성수는 넓은 부지 위에 지을 새로운 교사의 설계를 박동진朴東鎭에게 맡겼다. 1934년 박동진이 설계한 3층짜리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로 총 979평 규모였다.[78]

1934년 새로운 교사가 완공되자 보성전문학교는 본격적으로 이전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보성전문학교 교수 · 직원 · 학생은 송현동 교사에서 고별식을 갖고 안암동의 새로운 교사로 출발했다. 교기와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라는 명패를 든 학생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체육부들 가져

온 우승기와 우승컵을 든 학생들과 전교생들이 따라 걸으며 안암동에 만들어진 새 교사로 행진했다.[79] 본격적으로 보성전문학교의 안암동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안암동으로 교사를 신축·이전한 김성수는 새롭게 교수진을 꾸리기 시작했다. 김성수는 당시 세간에 명망 있었던 우수한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다. 오천석吳天錫, 유진오兪鎭午, 최용달崔容達, 박극채朴克采, 안호상安浩相 등 당시 명망 있었던 교수들이 대거 보성전문학교로 이



안암동 보성전문학교의 신교사
김성수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곧바로 안암동에 신교사를 건축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사는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이었다.
신교사는 보성전문학교의 새로운 시대, 안암동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동했다. 당시 영입된 교수들은 대부분 해외유학을 했던 사람들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80] 이것은 영입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교수진을 모으려는 김성수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된 인사였다. 우수한 교수진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보성전문학교의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다.

보성전문학교가 안암동으로 이동하면서 학생활동들도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학생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했던 보전친목회가 보전학생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보전학생회는 서무 · 경리 · 연구 · 출판 · 변론 · 덕육 · 연극 · 음악부 등으로 분화했다. 이들 부서 가운데 학생자치 활동의 중심은 연구부 · 변론부 · 연극부 · 덕육부 등이었다.[81]

연구부는 보성전문학교 학생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것 중 하나였다. 연구부에서는 보성전문 교수와 교외의 학계 권위자를 초청하여 교내강연회를 개최했다. 1933년 총 11회가 개최된 교내강연회는 학생들이 강연을 하고 이에 대해 교수들이 비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회는 연사로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 간에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1936년 5월에 열린 교내강연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6시간 동안 펼쳐졌을 정도로 뜨거운 분위기였다.[82]

변론부는 교내 토론회와 교내 웅변대회, 전조선중등학생현상웅변대회, 전조선전문학교토론대회 등을 개최했다. 1933년에 열린 교내 웅변대회를 보면 6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학구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당시 심사위원은 유진오, 김광진, 옥선진 등이었다.[83] 교내 웅변대회와 함께 변론부가 진행한 사업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전국남녀중등학생웅변대회였다. 1933년 11월 13일 경성공회당에

서 열린 웅변대회는 여운형, 백남운, 이종린, 이용설, 이인, 김병로, 박희도, 주요한. 옥선진 등 쟁쟁한 명사들이 심사를 맡았다. 당시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은 시사문제를 주제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원고가 검열에 막혀 실제 단상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84]

보성전문학교에서 연극부가 활동한 것은 1925년부터였다. 그러나 1930년대 안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연극부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1932년 12월 8일 경성공회당에서 공연한 오토 뮐러 작 하차荷車를 시작으로 1년에 2편 이상의 공연을 꾸준하게 무대에 올렸다.[85] 덕육부는 주로 회원들 간에 친선과 단합을 추구하는 활동을 했다, 덕육부가 했던 활동은 대체로 신입생과 졸업생의 환영·송별 행사나 학생회 창립기념식, 학생기념메달 제작 등의 활동에 주력했다.[86]

보전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활동은 안암동으로 이전한 1930년대 초반 활발하게 시작됐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침체되기 시작한다. 학생활동이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우선 학생회가 가진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보전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용의 소요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학생회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대외사업에서 받는 입장료가 일제의 간섭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것이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감시와 억압이 강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이 사회주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 일제의 감시가 더욱 강해지면서 학생회 활동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며 보성전문학교는 해방의 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1930년대 김성수의 인수와 안암동으로의 이전은 보성전문학교의

많은 것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안암동에 자리를 잡은 보성전문학교는 이전과 다른 규모와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성전문학교에 있어서 안암동과의 인연은 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변화였던 것이다.

(최보민)

4. 광복 이후의 안암동

안암동의 공간적 특징

하늘에서 내려다본 안암동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다. 동북쪽에 넓게 버티고 선 개운산이 남동쪽으로는 개운사와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품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성북천(일명 안암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형국이다. 주소지로 보면 개운사와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자리한 곳이 안암동5가, 성북천에 연접한 주택지는 안암동1~4가에 속한다. 이 중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아래쪽은 광평대군 후손들의 세거지인 '궁말'이 있었던 곳으로 안암동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이다. 그 밖의 부석리, 원리 등 작은 농촌 마을들까지 합쳐 안암동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했던 안암동의 마을 풍경이 크게 바뀐 때는 일제강점기 후반인 1930년대부터였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자리로 옮겨오며 대학촌이 형성되었고, 193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바로 옆 보문동과 함께 신흥주택지가 조성된 후 안암동1가에서부터 5가까지 새로 번지가 부여되었다.

안암동의 주거 · 교통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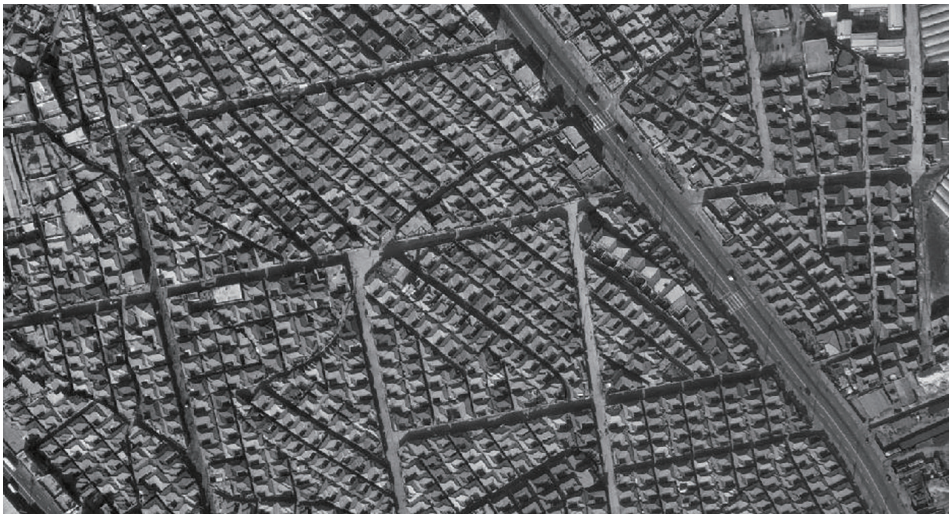
과거 항공사진과 1990년에 찍은 안암동 전경 사진을 보면 안암동 역시 보문동과 마찬가지로 도시형 한옥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도시형 한옥은 194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토지구획사업으로 대규모로 공급된 필지들 위에 들어선 집들이었다. 안암동과 보문동뿐 아니라 성북구의 동선동, 종암동, 석관동 등지에도 이와 같은 도시형 한옥들



1972년 안암동
(출처: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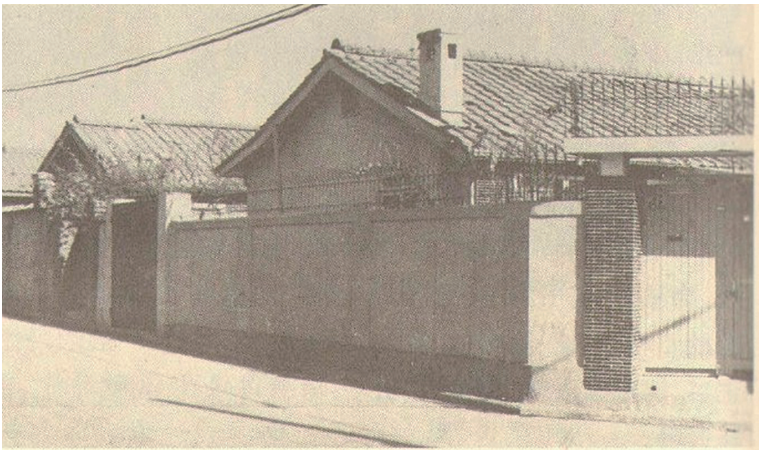
1984년 종암동
(출처: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1980년 석관동
(출처: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이 들어서서 일대 장관을 이루었음을 과거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한옥들은 1990년대 중반 무렵 다세대주택 건설붐이 일면서 대거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안암동에는 다른 동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도시형 한옥들이 남아있는 편이기는 하나 그마저도 많이 변형되거나 퇴락한 상태이다.

1953년 12월에 안암동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생주택(재건주택)이 선보였다. 대한주택영단이 안암동 개운사 앞에 49채의 후생주택을 지었던 것이다. 준공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신익희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여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이 후생주택은 정부가 유엔한국재건단의 원조를 받아 전국에 건설하기로 계획한 5,500호 일반 후생주택의 표본 건물로 지은 것이었다. 서양식 삼각형 지붕에 건평 9평으로 방



1953년에 조성된
안암동
후생(재건)주택

두 칸과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의 구조였다. 전쟁 후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할 작은 희망이 안암동에서 처음 싹튼 것이었다. 신문에서는 월급쟁이, 가난뱅이도 집을 마련할 희망이 생겼다고 하며 후생주택의 건설을 반겼다.[87] 이후 서울 시내에는 정릉동에 325호, 회기동에 252호, 대현동에 208호, 돈암동에 73호, 영등포에 77호의 후생주택이 건설되어 입주를 시작했다.[88]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적은 규모이지만 안암동에도 판자촌과 산동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무허가 주택들은 주로 지금의 안암동2가 용문중·고(옛 강문중·고) 자리에서부터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자리까지 길게 이어진 산비탈 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암동의 무허가 주택들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양성화 사업'과 1970년 초 시작된 '현지개량 사업'을 거치며 차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변모해 갔다.[89] 안암동 2가의 경우에는 용문중·고가 판자촌이 밀집한 대지를 사들여 교사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주민들과 학교 측간에 격렬한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90]

1969년에는 안암동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안암동4가에 지어진 안암아파트였다. 1개 동에 최고 6층, 76세대 규모로 당시에는 꽤 고급 아파트여서 '안암 맨션'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건축 시 최고급 자재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상 문제가 거의 없는 튼튼함을 자랑하는 아파트이다.

1971년에는 안암동3가의 대광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다. 안암동의 상징 '앉일바위'와 주변의 판잣집들을 철거한 자리에 들어선 대광아파트는 7개 동 346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 단지였다. 평형은 15평, 17평, 19평, 21평 모두 4종류가 분양되었다.

1982년에는 안암동3가의 삼익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여 1983년 여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3개 동, 12층, 204세대 규모의 소형 아파트 단지



안암동 대광아파트 분양 광고
(출처 : 『동아일보』 1971. 12. 3.)

로 지어졌지만 30평형이 68세대, 56평형이 72세대, 63평형 44세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맨션아파트였다. 이로써 안암동3가와 4가에는 대광아파트, 삼익아파트, 안암아파트가 한 축으로 연결된 작은 아파트 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동안 안암동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없다가 2005년 용문중·고 북측 안암동1가에 래미안 안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입주민을 받았다. 12개 동, 15층, 528세대 규모로 현재 안암동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이다.

서울시의 권역이 계속 팽창하고 안암동의 인구와 주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암동의 도로망 또한 확충, 신설되었다. 그 첫 번째로 1962년 12월 안암동과 미아동을 잇는 서울시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었다. 기존 폭 6~8m에 불과하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가설한 끝에 폭 25~30m 총 연장 3.42㎞의 간선포장도로를 건설한 것이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도심과 미아동인구주택밀집지역간 이동시간이 단축되었고, 안암동은 두 지역을 잇는 중간지점이 되었다.[91]

1976년에는 안암동 로터리와 용두동 간 길이 400m, 폭 2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안암동의 교통은 대단히 불편했었다. 안암동 로터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려면 대광고교 앞을 경유, 신설동 로터리를 거쳐 동대문의 우회 코스를 밟아야 했으며 시내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같은 복잡한 코스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착공한 이 도로의 개통으로 안암동 일대 주민의 교통수단이 크게 개선되었다.[92]

1990년대에는 지금의 인촌로(고대앞사거리~보문역사거리)가 크게 확장되었다. 원래 '고려대 이공대 뒷길'이라 부르던 이 소로는 1990년대 초



1972년 안암동 일대를 찍은 항공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안암동 로터리와 용두동을 잇는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고대앞 사거리와 보문동을 잇는 도로도 없었다.

고려대 부속병원이 혜화동에서 지금이 자리로 옮겨오게 됨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폭도 넓어졌다.[93] 인촌로는 이후 제기동과 보문동 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고려대 부속병원을 방문하는 차량 통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92년과 1999년에 두 번의 확장공사를 실시, 전구간 왕복 4차선 도로로 개통되기에 이르렀다.[94]

2000년 12월에는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어 안암동에는 안암(고대병

원)역과 고려대(종암)역이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전에는 안암동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이 없었던 까닭에 안암동 주민들과 고려대 학생들은 가까운 신설동역(1호선) 또는 성신여대역(4호선)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고려대 부속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지하철 6호선의 개통으로 이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고려대학교와 안암동

안암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려대학교일 것이다. 고려대학교의 주소지는 안암동5가 1번지로 되어 있지만 캠퍼스 면적은 안암동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안암동의 면적이 1.32㎢인데 고려대 캠퍼스와 고려대 부속병원의 부지를 합쳐 총 0.91㎢이므로 안암동 면적의 약 69%가 고려대학교 부지 안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안암골 호랑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까닭에 '안암동'하면 바로 고려대학교가 있는 대학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고려대학교가 보성전문학교 시절인 1934년 9월, 안암동으로 옮겨왔을 때만 해도 학교 울타리는 지금의 인문계 캠퍼스에 국한되었다. 이때의 부지만 놓고 보아도 광대한 면적이었지만 해방 이후 고려대학교는 꾸준히 학교 건물과 캠퍼스를 확충해 나갔다. 1946년 옛 인명원 터를 포함한 너른 부지를 사들인 고려대학교는 1964년 이곳에 자연계 캠퍼스를 준공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는 개운사 위쪽 부지를 기숙사와 녹지 캠퍼스로 조성하였고, 1991년에는 현 부지에 고려대 부속병원을 신축·이전하였다. 그리하여


安岩골 호랑이 對 新村 독수리

23·24兩日, 5個種目서 傳統의 힘겨뤄

紙上延高戰

『경향신문』 1966. 9. 22. 「안암골 호랑이 대 신촌 독수리」.

개운사와 개운사길 주변 상가와 주택가를 제외한 안암동5가 전역이 고려대학교 캠퍼스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캠퍼스의 꾸준한 확장과 더불어 학생 수 또한 계속 늘었다. 신문에서 연도별 고려대 학부 입학정원 수를 찾아보면 1958년 830명이던 것이 1963년 990명, 1970년 1,665명, 1977년에는 2,0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입학정원만 놓고 보면 전국 사립대학 중에서 언제나 1~3위에 들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은 모집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학과 수와 입학정원은 계속 늘어나 2017년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생 현황을 보면 서울 캠퍼스에만 총 29,859명(학부 21,110명, 대학원 8,749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95] 이중 휴학생 등을 제외한다면 학기 중에는 매일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암동 캠퍼스를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96] 2017년 현재 안암동 거주 인구가 1만 5천여 명임을 감안하면 안암동 안에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의 공간적, 인적 확장과 더불어 학교 주변 대학

촌의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하숙집과 자취방은 기존 개운사와 정문 앞뿐 아니라 자연계 캠퍼스 앞과 안암동 1~4가 지역과 보문동, 삼선동, 동선동, 종암동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교정과 이들 대학촌을 오가며 학교 밖 현실을 접했고 학교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지방 출신의 비율이 높았는데 고려대학교 주변 하숙집들은 이들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고향집 같은 푸근함을 주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숙집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학생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 남학생들은 독방의 경우가 많지만 여대생은 끼리끼리 짝지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시골집에서 돈이라도 올라오면 건넌방, 이웃 하숙생을 불러 밤을 익힌다. 여대생은 호콩「파티」에「비스킷」대접, 남학생은 소주를 즐겨 마신다. 근처 중국 요리집의 외상도 갚을겸 몇가지 성찬도 주문하고…. 그래야 서로 의지가 되는 친분도 맺어지는 것이다. ……어쩌다 하숙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은 여간 눈치를 살펴야 하지않는다. 그러기에 하숙생은 10원 어치쯤 사과를 사들고 들어가서 인심을 쓰는 방법도 궁리했다. …… 남학생은 일부러 짝을 찾아 함께 하숙을 드는 수도 있다. 면학파끼리, 혹은 기분파끼리. …… 고려대 근처의 한 하숙집 주인아저씨는 약주를 외상으로 사다주는 마음씨에서 인기. 여자 하숙생은 주인집 꼬마의 털옷을 짜주는 '서비스'로 인심을 사기도 한다는 것. 하숙은 그렇게 우울한 곳만은 아니다. 제2의 가정다운 아름다운 마음씨도 이따금 오고가는 것이다.
>
> —『경향신문』, 1962.11.24.「춥지만 낭만 깃든 하숙방」



1992년 안암동 어느 하숙집의 만찬
(제공: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한울타리 하숙생들의 졸업사진
(제공: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은행나무 하숙집 전경
(제공: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인하우스 원룸 입구
(제공: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춥지만 낭만 깃든' 하숙집의 풍경들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가계 사정이 나아지고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취향이 강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온정이 깃든 고향집 같은 하숙집보다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용한 하숙집, 자취방을 선호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0년대 다세대 주택 건설 붐으로 인한 주택

형태의 변화도 하숙집의 풍속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3~4층 건물 전체가 하숙집인 기업형, 빌딩형 대형 하숙이 생겨났고 '자취 전용' 원룸들도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들 학생 주거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이 장점으로 대개 신축 건물인 데다 아파트처럼 화장실과 온수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새로 생긴 대형 하숙집들은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식사와 출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취향을 만족시켜 주었다.[97] 최근 들어서는 그런 하숙집들도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자취 전용 원룸들이 대체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거 안정 면에서는 아무래도 하숙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하숙이라는 주거 양식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하숙만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학생 주거 양식이 나타날 가망도 있어 보인다.

고려대학교하면 학교 앞 주점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깃거리이다. 일명 '막걸리촌'이라 불렀던 제기동 일대의 주점 밀집 구역 말이다. 비록 안암동에 속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안암골 호랑이'들의 밤의 아지트하면 뭐니뭐니해도 정문 앞 제기시장 골목이 첫손에 꼽혔다. 고모집, 이모집, 풍년집, 충주집, 형제집, 나그네파전 같은 정겨운 상호의 막걸릿집들과 학사호프, 가인佳人 같은 호프집들, 그리고 정문 앞 유일한 경양식집이었던 하얀집. 이들 주점과 식당들은 고려대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저렴하고 푸짐한 밥과 술과 안주를 제공하던 곳이었다. 바로 정문 앞인 데다 학생회관과도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제기시장 골목은 밤이면 늘 학생들로 붐볐다. 강의실과 교정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와 토론과 노래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어지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막걸리 냄새

풍기는 제기시장의 분위기는 맥주집들이 많은 연세대 앞 신촌과 대비되며 고려대학교의 '촌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상권의 중심이 안암동 '참살이길'(안암오거리~안암역사거리)로 이동하면서 이곳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지금은 서너 주점이 남아 옛 막걸리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시대 변화에 따른 상권의 이동과 구역별 성쇠가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기동과 안암동의 여러 주점들은 지역사회와 고려대학교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고리이다.

안암동과 고려대학교를 연결해 주는 또 하나의 고리가 있다면 학생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의 역사는 멀리 보성전문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단연 주목할 만한 시기는 1960년 4·19혁명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은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는데, 그 중요한 장면마다에는 안암동의 고려대학교가 빠지지 않았다. 2005년 펴낸『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의 서문에서는 그 투쟁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재권력에 저항하고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는 언제나 고려대생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독재정권을 구축해 가던 엄혹한 시절에 고려대생은 최초로 반정부시위를 이끌어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마련했고 결국 4·18 시위를 통해 독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이끌었다.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한 고려대생은 타협하지 않았다. 쿠데타 정권의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

에 온몸으로 저항한 안암골 호랑이들의 포효는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고려대생들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 1970년대의 반유신투쟁, 1980년대에는 '삼민투', '전학련', '전대협' 등 학생운동 전국조직을 이끌며 1987년 6월항쟁을 선도했고 1990년대에는 통일운동의 선봉으로 그 역할을 이어 갔다.

— 정태헌, 「고난 속에서 희망의 한국 사회를 연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학생운동 100년」중에서[98]

고려대 학생 시위의 출발점은 대체로 인문계 캠퍼스였다. 본관 앞이나 대강당 또는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 모여 출발한 학생들은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캠퍼스를 크게 한 바퀴 돌며 시위 인원을 모집했다. 교정의 잔디밭과 강의실, 도서관에서 나온 학생들이 합류하여 큰 무리를 이루면 시위 대열은 곧이어 정문 앞 진출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정문 앞은 가두로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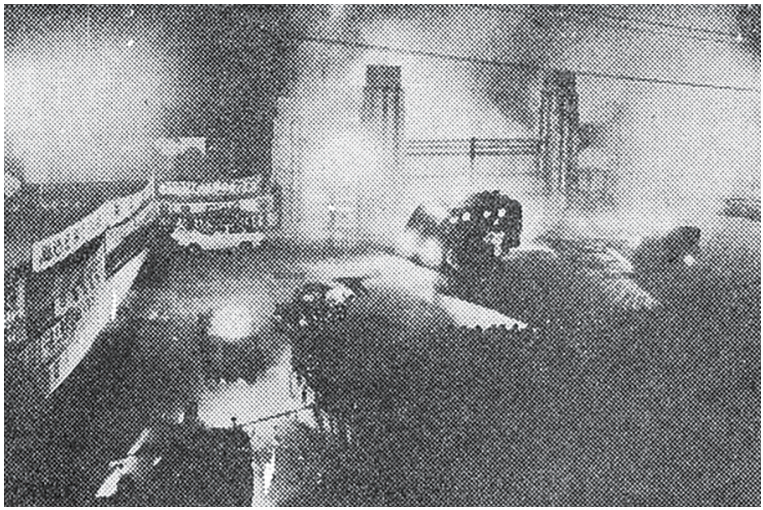
1960년 4월 18일 서울 시내 고려대학생 시위

려는 학생들과 이를 막는 전경 혹은 무장군인들로 구성된 진압 부대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99] 그럴 때면 진압 부대가 발포한 최루탄 때문에 안암동과 제기동 일대가 매캐한 연기로 자욱해졌다. 1980년대에는 학생들이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며 저항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안암로가 온통 보도블록 조각과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다. 학교 앞 상점 입구가 불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불심검문도 자주 보는 풍경이었다. 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경찰이나 무장군인의 손짓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정문 앞과 함께 안암동 로터리(지금의 안암오거리) 또한 중요한 시위 거점 중 하나였다. 정문을 빠져나온 학생들의 다음 목적지는 주로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시청 앞 광장(1970년대 초까지는 국회의사당 앞 태평로)이나 광화문 앞 세종로, 명동 등지로 나가



1965년 6월
안암동 로터리



1980년 5월
고려대 정문 앞



1980년 10월 고려대 도서관 앞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위 행렬은 우선 안암로와 대광고 앞을 거쳐 신설동 로터리까지 행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 진압 부대는 한사코 안암동 로터리 또는 대광고 앞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행진을 막아섰던 것이다. 진압 부대에 막혀 갈 길을 잃은 시위 행렬은 진압 부대와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고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경찰은 대체로 정문 앞과 안암동 로터리까지 700여 미터에 이르는 짧은 구간만을 고려대학생들의 해방구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1985년 8월 고려대 정문 앞 상가에서 개학을 앞두고 학생시위의 투석을 막기 위해 덧문을 씌우는 상인

그러나 1972년 유신 체제가 시작되고 '긴급조치'가 일상화되면서부터는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사복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공공연히 교정을 활보했고 '긴급조치'라는 미명 하에 군부대 가 교내까지 진입하여 학생들의 교내 출입을 막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런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사그라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안암동과 제기동의 하숙집과 자취방에 비밀리에 모여 또 다른 시위를 계획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만들었다. 그 유인물 속에는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지 않은 독재정권의 적나라한 실상들과 당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 시기 안암동의 낮은 지붕들을 살짝 벗겨냈다면 그 안에는 민주화의 그날을 준비하는 앳된 청년들의 비좁은 방들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안암동과 제기



1985년 11월 고려대 정문 앞



1985년 11월 고려대 정문 앞



1991년 9월
안암로에서
고려대학생들의
격렬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시위

동의 하숙집 아주머니들, 주점의 이모들 역시 학생들만큼이나 고생이 심했다. 그네들은 매운 최루탄 연기를 맡으며 반찬거리를 사러 제기시장과 경동시장에 가야 했고 때로는 감시의 눈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숨어든 학생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숨겨 주어야 했다. 학교 앞 상인들 역시 시위가 있는 날이면 문을 걸어 닫아야 했고, 건물과 기물이 파손되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의 시위를 말리기도 했었으나 대개는 묵묵히 참아내며 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뜻을 응원해 주었다.

2017년에도 고려대학생들의 현실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비록 지난날 민주화운동처럼 눈에 띄거나 격렬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있고 있다. 권력의 비민주적 행태를 향해 일침을 날림은 물론 올해 초 열린 촛불 시위에도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운동 · 문화운동 ·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6. 9. 21)

여성운동 · 성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직하여 발언하고 있다.[100]

마지막으로 최근 진행 중인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고려대 학생들과 안암동이라는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서울시와 고려대, 성북구가 뜻을 모아 2016년 6월에 착수한 사업이다. 창업환경 조성, 참살이길 문화가로街路 조성, 하숙 및 홈스테이 환경 개선, 지역과 대학의 상생.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이 안암동 주민들과 고려대학생들의 형편과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난날 안암동과 고려대학교가 '안암골 호랑이'라는 깃발 아래 어느 지역보다도 폭넓고 끈끈하게 교류해왔음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면 분명 안암골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백외준)

고려대학교의 문화재

안암동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는 그 규모만큼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34년 완공된 고려대학교 본관과 1937년 완공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물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각 사적 제285호, 사적 제28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현재 수많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국보와 보물만 세더라도 각각 4점, 13점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 박물관으로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본관高麗大學校 本館(사적 제285호)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근대식 학교 건축물이다. 이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 3,263㎡(975평), 지상 3층(중앙탑 6층)이며 화강암을 주재료로 한 좌우대칭의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다. 평면 H자형이며, 중앙에는 넓은 홀이 있다. 건물 현관의 두 돌기둥에는 학교의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상이 조각되어 있고, 중앙 후문의 돌기둥에는 무궁화가 조각되어 있다. 현재는 이 학교의 행정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본관이다. 1932년 당시 경성부 교외인 안암리에 터를 잡고 1933년 9월에 착공하여 1934년 9월에 완공하였는데 당시 금액으로 19만 원이 들었다. 설계는 유명한 근대 건축가 박동진(朴東鎭)이 맡았다. 건축 당시에는 내·외부가 호화스럽고 웅장하여, 국내의 학교 건축물로서는 유례가 없는



고려대학교 본관
사적 제285호

훌륭한 것이었다.

본래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4월 당시 내장원경(內臟院卿)이었던 이용익(李容翊)이 지금의 수송동에 있던 노어학교(露語學校) 자리에 법률과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개교하였으나, 그 후 1910년에 천도교에서 인수하여 안국동에서 목조 2층 교사 두 채로 법과와 상과 전문 과정을 교육하였다. 그 후 1932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주(校主)였던 김성수(金性洙)가 이를 인수, 현 안암동의 교지를 사들여 본관과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고 오늘의 고려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사적 제286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본관이 준공된 다음 해인 1935년 6월 착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적 제286호

공하여 1937년 9월 준공되었다. 일반부는 지상 3층, 우측 탑신부는 지상 5층, 연 면적 4,089㎡(1,236.92평), 철근콘크리트 구조였다. 설계자는 본관과 같이 박동진(朴東鎭)이다.

공사비 22만 원이 소요된 이 건물은 당시 최신식이었다. 평면은 'ㄴ' 자 형으로 남서 모서리에 고딕 성관풍(城館風)의 5층 탑을 세우고, 이곳에 주출입구를 두었다. 1층에는 교수 연구실 32개, 2층에는 250석의 대열람실을 배치하고, 각 좌석마다 전기스탠드와 가죽을 씌운 회전의자를 두었다. 3층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서고를 두고, 3층 이상에는 민속자료 · 미술품 진열실을 설치하였다. 출입구, 탑의 창호, 남측 창들은 뾰족아치로 쌓고, 서측 창은 수평 아치로 쌓았다. 건축의 양식과 구조는 미국 듀크대학의 도서관을 참고했다고 한다.

박동진은 이 건물 설계 때 본관 설계와는 달리 김성수(金性洙)의 간섭 없이 설계했다고 말하였다. 이 건물은 고딕 풍이며, 건축가 박동진의 석조 기법과 장식에 대한 열정이 배어나는 건축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이 건물은 대학원과 교수 연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국보 및 보물[101]

종목	번호	명칭(한글)	명칭(한자)
국보	제177호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粉靑沙器 印花菊花文 胎壺
	제230호	혼천의 및 혼천시계	渾天儀 및 渾天時計
	제249-1호	동궐도	東闕圖
	제291호	용감수경 권3~4	龍龕手鏡 卷三~四
보물	제417호	홍무정운역훈 권3~16	洪武正韻譯訓 卷三~十六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三國遺事 卷三~五
	제592-2호	허목 전서 함취당	許穆 篆書 含翠堂
	제706호	중용주자혹문	中庸朱子或問
	제710-1호	동인지문사육 권1~3, 4~6, 10~12, 13~15	東人之文四六 卷一~三, 四~六, 十~十二, 十三~十五
	제710-2호	동인지문사육 권1~6	東人之文四六 卷一~六
	제710-5호	동인지문사육 권7~9	東人之文四六 卷七~九
	제853호	수선전도 목판	首善全圖 木板
	제1463-4호	용비어천가 권1~2, 7~8	龍飛御天歌 卷一~二, 七~八
	제1533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제1534호	서궐도안	西闕圖案
	제1594-3호	청구도	靑邱圖
	제1768호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白磁 靑畵 興寧府大夫人 墓誌 및 石函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粉靑沙器 印花菊花文 胎壺)
국보 제177호



혼천의 및 혼천시계(渾天儀 및 渾天時計)
국보 제230호



동궐도(東闕圖)
국보 제24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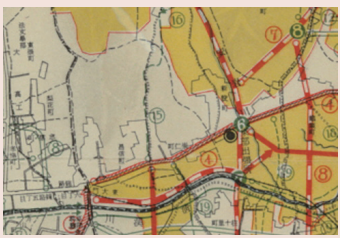
용감수경 권3~4(龍龕手鏡 卷三~四)
국보 제291호

(민문기)

안암동의 주목해야 할 건축물

안암로터리

안암로터리는 신설동에서 돈암동으로 연결하는 보문로에서, 경동시장 네거리에서 북쪽 방향의 종암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양도성 밖으로의 주요 도로의 확장은 1930년대에 들어 계획되고 실행이 되는데, 지도를 통해서도 1930년대 중반을 지나서야 안암로터리가 교차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6_경성시가지계획평면도
(MAPS074)



1938_경성시가지계획가로망도
(MAPS075)



1940_서울특별시가도
(MAPS055)



1950중_서울시가지도 Seoul Road Map
(MAPS064)

소설에 등장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의 분위기를 통해 안암로터리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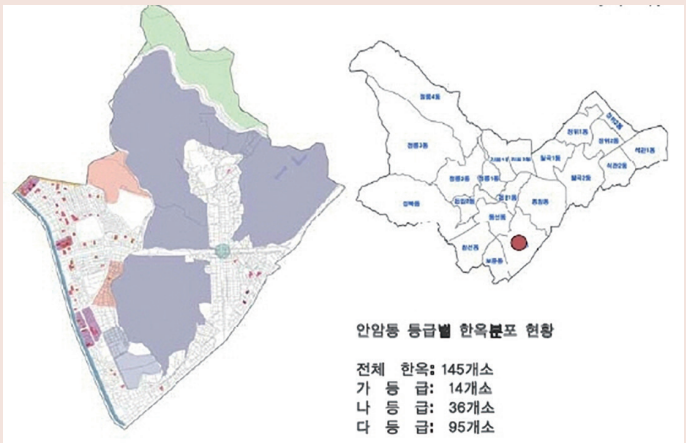
> 서울로 올라오고 며칠 안 돼 인철은 밀양으로 옮겨 가기 전에 살던 안암동 로터리 부근을 찾아가 보고 2년을 채 못 다닌 초등학교 교정도 둘러보았다. 그러나 신기하리만치 7년 전 그와의 연결 고리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는 안암 로터리라는 현대적인 정류소 이름뿐, 아스팔트 포장조차 안 돼 있던 변두리가(겨우 두 정류장 뒤가 버스 종점이었다.) 그사이 잘 포장된 로터리를 중심으로 제법 도심 흉내를 내며 개발되는 중이었고, 예전 세 들어 살던 집터에는 2층 건물이 들어서 부근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없게 바꾸어 놓았다. 동네 골목도 옛 교정도 마찬가지였다.
>
> — 이문열, 『변경7』, 민음사, 2014 중

안암동 한옥밀집지역

안암동의 서쪽면 일대는 일제강점기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한옥밀집지역이다. 용문중고등학교, 안암초등학교와 성북천 주변으로 도시형 한옥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헐리고, 남아있는 한옥도 초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드물다. 안암초등학교 서측에서 성북천 사이에서 군락을 이루었던 흔적을 볼 수 있으나, 건물 신축으로 인해 멸실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서울시정사진총서 8(1974-1978 2) 사진 186(pp.198-199)
안암동1가 한옥밀집지구(1976.09.09) - 성북구 안암동1가 일대 한옥밀집지구로 안암천과 안암초등학교 주변이다. 1930년대 후반 돈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그 당시의 함께 건설된 도시형 한옥들이 들어서 있었으나, 현재는 10여 채의 한옥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안암동 등급별 한옥분포 현황
(자료 : 성북구 한옥전수조사, 2013)

안암동 재건(부흥)주택

일반적으로 영단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들은 조선주택영단이라는 현재의 LH공사 이전 주택공사의 전신인 공공기관에서 주관하여 지은 것들로, 재건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 등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들의 차이는 공공사업으로 주택을 지을 때, 건설비용을 어디서 지원했느냐에 대한 차이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 재건주택(후생주택) :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원조. 정부계획에 의거해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 원조하는 자재 및 자금으로 건설, 관리하는 주택
- 부흥주택, 국민주택 : 정부시책으로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또는 귀속재산처리적금 중 주택자금융자에 의해 건설하여 분양 또한 임대하는 주택
- 희망주택 : 대지와 공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되 자재에 한하여 영단에서 배정, 분양하는 주택

재건주택

재건주택의 평면은 田자 모양의 겹집 형식으로, 서울의 안암동에 최초로 49채를 지었다고 한다. 그 후 1954년에 주택영단은 성북구 정릉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지에 계속해서 9평의 재건주택을 지었으며, 특히



안암동 재건주택(1953)
(출처 :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2011, p.372)

성북구 정릉천변에 253호의 흙벽돌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해방 후 주택영단이 개발한 최초의 대규모 단지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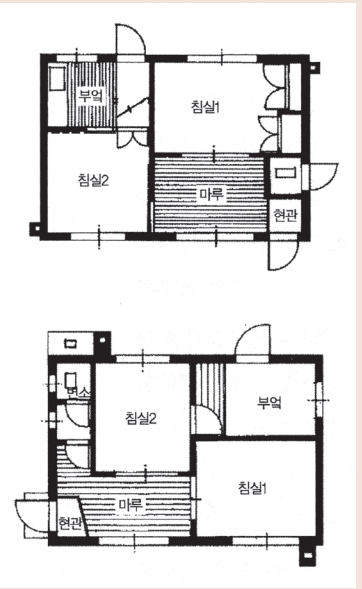
여러 주택의 도입과 건설로 과도기를 거친 후, 1957년부터는 시멘트 블록을 주 재료로 사용한 주택들이 건설되었다. 특히 시멘트 생산이 본격화된 1958년 이후부터 영단은 흙벽돌 대신 최초로 시멘트 블록을 사용해서 정릉에 2층 연립주택을, 우이동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1950년대 대한주택영단에서 제안한 평면 계획의 초기에는 전면 2칸, 측면 2칸 형식이 제안되었다. 제일 처음 제안된 것은 안암동, 정릉동, 창천동에 1954년 건립된 9평 '田'字형 주택이다. 이 주택은 당시 자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흙벽돌로 된 조적식으로 지었으며, 연탄난방 방식을 채택했다. 우선 마루를 구석에 두고 2개의 침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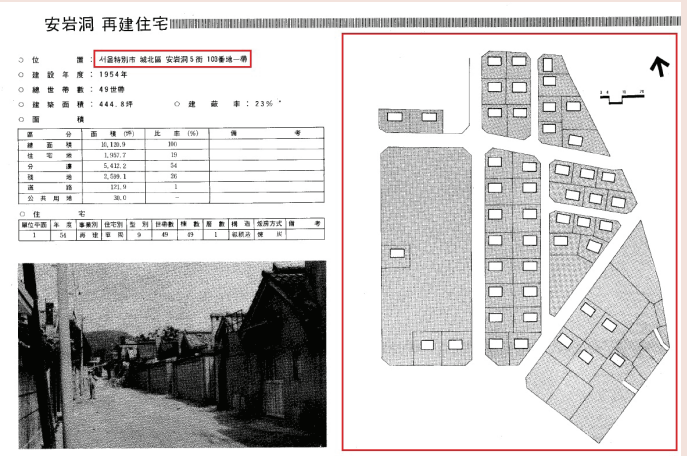
을 마련해두었다. 그리고 현관을 독립해서 남쪽에 계획했으며, 변소는 건물 내부 공간으로 하되 외부 출입 방식을 택했다. 현관이 있으나, 마루공간에서도 외부공간으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새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임창목,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2011

안암동 재건주택 단지의 위치는 현 안암동5가 우신향병원 북서쪽과 인촌로24길의 동쪽 지역으로, 1954년 기록에 따르면 안암동5가 103번지 일대에 49세대가 지어진 것으로 나와 있다.



안암동 1954 표준주택 9평형 평면도
(출처 :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2011, p.372)


安岩洞 再建住宅

○ 位　　置 : 서울특별시 城北區 安岩洞 5 街 109番地一帶
○ 建 設 年 度 : 1954年
○ 總 世 帶 數 : 49世帶
○ 建 築 面 積 : 444.8坪　　◇ 建　蔽　率 : 23% "
○ 圖　　積

區　分	面　積 (坪)	比　率 (%)	備　考
總　區　域	10,130.9	100	
住　宅　地	1,937.7	19	
分　譲	5,432.2	54	
道　路	2,599.1	26	
溝	121.9	1	
公 共 用 地	38.0	—	

○ 住　　宅

單位平面	棟	數	事業別	住宅別	型	別	世帶數	棟	數	層	數	構	造	施設方式	備	考
1	54		再 建	單	獨		9	49		49		1		組積造	煉	瓦

안암동 재건주택 지번 및 배치도
(출처 : 『대한주택공사주택단지총람 1954-1970』, 1979, p.84.)

현재 유일하게 원형을 잃은 채 남아 있는 안암동5가 재건주택의 기록을 살펴보면, 1954년 2월 9일 신축과 사용승인일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1988년 3월 31일에 증축되었다고 나와 있다. 현황기록을 보면, 1층은 흙벽돌조로 된 39.67㎡와 연와조로 된 9.92㎡의 두 건물이 있고, 2층은 연와조의 37.7㎡의 건물이 올려진 것으로 되어 있다.


안암동5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형을 잃은 재건주택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1952년에 흙벽돌로 쌓은 재건주택이 지어졌고, 이후 마당 위를 막아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 1988년 2층을 올려 현재의 모습



안암동5가 일대의 1950년대 건축물(녹색). 붉은 선으로 표시한 영역이 재건주택 단지
(출처 : 서울 건물 나이 지도)

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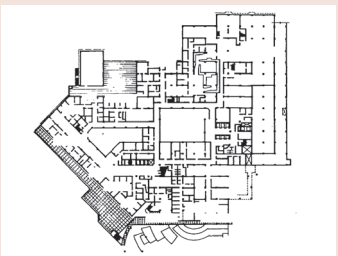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캠퍼스

6.25 전쟁이 지나고 1960년대 이후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변화 요인과 계획을 살펴본다. 1971년 고려대학교는 우석학원을 합병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을 흡수함으로써 종합대학체제를 구축하였고, 1973년 한독경제회의 협정에 따라 서독 정부는 농과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마르크(당시 환율 11억 4천만 원)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려대학교의 제2 창건을 목표로 중부권의 교통 요지인 충남 조치원에 서창캠퍼스(현 세종캠퍼스)를 설립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김병율, 홍기백, 이규용의 설계로 1991년 안암동 산 위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증축에 대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고려대학교병원과 정문



고려대학교병원의 평면도

유기적인 공간 체계를 수립하며, 교육활동과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하였다.

고려대학교 마스터플랜과 정문, 안내소

고려대학교는 이정덕 교수가 1960년대 말 입안한 마스터플랜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이 마스터플랜의 기준은 대략 여섯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본관-인촌동상-대운동장-정문이 중심축을 이뤄야 한다는 점과 건물 외장 재료는 몇 가지로 제한하며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변화를 살펴본다.

현재의 주요 건물의 연장선에 놓인 정문은 캠퍼스 초기의 것은 아니다. 해방 이전에는 간소한 형태의 정문을 가졌지만, 1965년 고려대학교 창립 60주년을 기념에 교우회에서 교문을 헌정하기로 하여 현상공모에 의해 당선된 연합건축 김만성의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높이 9.8m, 너비 17.5m의 화강암 외장 문주와 철제문, 차량 및 양쪽 보행자용 출입구가 함께 구성되는 좌우대칭 형태로 지어졌지만, 이 당시의 교문의 위치



1965.01 교우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구교문
(출처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2017년9월DAUM로드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본관.
본관, 본관 앞 인촌동상, 1971년 지어진 정문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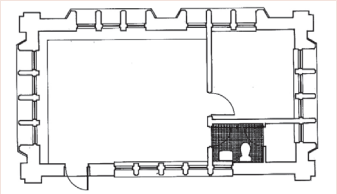
1971년 새로 지어진 정문의 왼쪽 뒤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관)이 보인다.

는 신설동에서 접근하는 남서쪽 위치에 있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1971년 현재 정문 위치에 1965년 남서 측 교문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규모가 커진 형태로 다시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진 정문과 운동장, 인촌 동상과 본관은 일직선에 놓이게 된다. 이후 1965년 남서 측에 세워졌던 교문은 1995년 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로 입구로 옮겨졌다.

또한 현 안암캠퍼스의 1971년 세워진 교문 오른쪽 안으로는 1983



고려대학교 정문 안내실
(건축사, 1983)



고려대학교 정문 안내실 평면도
(건축사, 1983)

년 정문 안내실이 지어졌는데, 설계는 종합건축설계사무소의 이승우가 맡았다. 교문 옆으로 이어진 담장과 수목에 의해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도 남아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본관을 필두로, 화강석을 사용한 외장 재료의 특성들이 유지되며 교문과 정문 안내실 또한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캠퍼스 내의 건조물에서 보이는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캠퍼스 주요 건축과 인물

성북구 안암동에서 고려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뿐 아니라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주요 건축물 외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고려대학교의 인문사회계 캠퍼스의 건축물을 건립 순서대로 정리해보니, 1930년대 이후 캠퍼스가 조성되어, 1970년대 마스터플랜의 입안과 함께 현재의 규모까지 학교 건축이 확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박동진이 설계한 본관과 중앙도서관(대학원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명	설계	시공	공사기간
본관	박동진	후지타 고오기로	1933-1934
중앙도서관(대학원)	박동진	후지타 겐이치	1935-1937 / 1957-1958
문과대학	박동진	덕화공영	1950, 1954-1955, 1959-1961
사범대학 본관 (구 농과대학)	박동진	한신공영(1981)	1955-1956, 1958, 1981
강당	박동진		1956-1957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1966
홍보관	예인그룹(1994), 고우건축(1996)	창강종합건설(1996), 대양토건(1997)	1966-1968, 1994-1996, 1996-1997
학생회관	이정덕	대림산업	1970-1971, 2003
경영본관	이정덕	현대건설	1971-1972, 1981, 2000 (리모델링)
중앙도서관(신관)	이정덕	태인산업	1974-1977, 2004
법학관(구관)	박윤성+종합건축	라이트주택개발	1983-1984
정경관	박윤성, 코오롱건설(리모델링)	럭키개발, 태아건설산업, 삼성물산(리모델링)	1983-1984, 1992-1993, 2003(리모델링)
체육생활관	우일건축연구소	쌍용종합건설	1984-1985
사범대학 신관(기존 가정관 병합 신축(1988), 증축(1995)	종합건축, 김중업종합건축	태아건설산업, 두진종합건설	1987-1988, 1994-1995
인촌기념관	동현건축	럭키개발	1989-1991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 캠퍼스의 주요 건축물(김현섭, 고려대학교의 건축, 2016 참조)

건물명	설계	시공	공사기간
제2공학관 (구 교양학부, 이공대학)	박동진	동산토건	1957-1963, 1963-1964, 1968
실내체육관(농구장)	박윤성	동산토건	1967-1968 / 2013 철거
공학관 별관		동아토건, 한서종합건설	1970-1971, 1992-1993
이학관 별관			1971
생명과학관(서관)	이정덕, 내외종합건축(리모델링)	우진토건, 두진건설, 코오롱건설(리모델링)	1975-1977, 1986, 1995, 2004(리모델링)
애기능 학생회관	서종에스엔아이	우진토건	1981
정보전산처	박윤성+종합건축	한신공영	1981-1982
과학도서관	박윤성+종합건축	한신공영	1982-1983, 2006
전파공학관	종합건축사무소 삼공	한서종합건설, 태아건설산업	1992-1993 (2013년 철거)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의 주요 건축물(김현섭, 고려대학교의 건축, 2016 참조)

캠퍼스의 건축을 보면 두드러진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박동진, 이정덕, 박윤성. 박동진은 고려대학교의 상징인 문화재 건물 외에 다수의 건축물을 남겨 기틀을 다졌고, 마스터플랜을 입안한 이정덕과 함께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윤성은 교내에 많은 건축물을 남겨 부흥기를 만들었다.

박동진

박동진(朴東鎭, 1899~1981)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 입학하여 1924년 졸업 후 조선총독부 건축기사로 1938년까지 활동했다. 관직에 있던 시기에 보성전문학교 본관과 도서관을 설계하였는데, 이 건물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과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현 대학원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북촌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의 본관도 사적 제281호로 지정되어 있다. 관직을 사직한 후 태평건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하다 대구 청구대학 건축과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1953년 박동진건축연구소를 개설하였다. 현재 영락교회(1946), 남대문교회(1955) 등이 서울 중심가에 남아있는 박동진의 작품이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1963년 12월 이공대학 공학부 내에 건축공학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첫 번 전임교원으로 1965년 1월 이정덕 교수가 부임하였고, 1966년에는 박윤성 교수가 합류한다. 두 교수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학과발전 제1단

계의 기초가 다져졌다.

▶ 창건기

1963.12 이공대학 내 공학부에 건축공학과 신설

1965.01 이정덕 교수 부임

1966.03 박윤성 교수 부임

▶ 성장기

1992.02 박윤성 교수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추대

▶ 도약기

1999.02 이정덕 교수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추대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정덕, 박윤성 교수와 관련된 학과 연혁 (건축학과 홈페이지)

이정덕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워싱턴주립대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수학했다. 1957년 종합건축연구소와 한국산업은행 주택기술실을 거쳤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설계분과위원장과 서울시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1969년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및 정문, 1970년 해영회관, 1973년 고려대학교 도서관, 1975년 고려대학교 경영관, 1978년 신행정수도 중심부 계획과 고려대학교 기숙사를 계획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박윤성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1966년에는 건축사를 취득하고 1992년까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임하였다. 1959년 대전시 종합경기장 마스터플랜 및 주경기장 설계를 시작으로, 교육시설, 사무소 등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건축계획 분야에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88년에는 대한건축학회 회장도 맡았다.

대광(맨션)아파트

오진개발이 주체가 되어 지어진 이 아파트는 고려대학교 직원과 교수들을 거주 대상으로 분양 수익목적으로 지어졌다. 초기에는 고급 맨션이라는 이미지와 맑은 공기가 장점으로 여겨졌다.

크게 보면 주 동들이 대지 경계선을 따라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둘러싼 큰 마당을 가지고 있고, 지상층 일부에 점포가 계획되었다. 2개 유닛에 1개 코어로 구성되었다.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조 혼합 구조로 개별화장실을 갖추고 중앙난방 방식을 이용했다.

이 시기의 아파트는 중상류층이 거주하였고, 매우 고급화된 주거형태로 인식되었다. 근린주거 이론에 준하여 배치되는 공영아파트에 비해, 민영아파트로 지어질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대지에서 보다 많은 유닛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유닛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기보다, 대지의 형태에 맞춰 많은 호수를 건축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렇지만 편복도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계단실형으로 건립되어 각 호별 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하였다.

1972년 건립된 대광아파트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석산을 어렵게 정지작업 하여 시공했다. 땅을 다루는 점에서나 규모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비교가 된다. 처음에는 5층으로 계획, 시공되다가 7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난 것 또한 당시의 요구와 수요를 짐작케 하는 단서이다.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 아파트를 대지 경계선을 따라 비정형적으로 이어붙인 것처럼 배치시켰다. 또한 지붕에서는 아파트 동간을 서로 이어서 아파트 전체를 걸어서 돌 수가 있다.

— 대광맨션아파트 설명 (손세관 외 2인, 우리나라 공동주택 도입기에 등장한 중·소규모 아파트의 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1.)



대지의 경계선 안쪽으로 동이 배치되어 옥상부는 서로 연결된 대광아파트



복도형이 아닌 계단실을 통해 각 유닛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대광아파트

산동네 저층 주거지

1972년 대광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의 북쪽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면하여 1980년대 이후 경사면에 길게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다. 이 지역의 집들은 간소화한 구조로 벽과 지붕을 구성하고 좁고 긴 골목을 따라 각 집으로 이어진다. 산 위의 작은 마을로 아늑한 분위기와 작은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으며, 좋은 전망과



건축물대장 기록을 통해 확인된 안암동 일대 1980년대 건축물
(서울 건물 나이 지도)



대광아파트 북쪽 저층 주거지



경사지 건고한 석축 위 주택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경사면 도로와 면한 곳에는 튼튼한 석축을 쌓은 벽돌조 주택도 눈에 띈다. 산 위 주거지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안암아파트

안암아파트는 광덕건축설계사무소의 이장복이 설계하여 1968년 지어졌다. 이장복(1934-작고)은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1964년 건설사를 자영하며 1966년 건축사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건축설계 활동을 펼쳤다.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 원주 기독교병원, 서울신학대학 교리학원, 광주신학대학 강당, 계성여고 생활관 등 종교 기관의 건축 설계를 하다, 안암아파트를 설계하게 된다. 1972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이장복 또한 본인이 설계한 안암아파트 307호에 살았다. 이장복은 디자인 연구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고, 안암아파트를 대표작으로 남겼다.

안암아파트는 ㄷ자형 평면에 一자형 평면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독특한 모양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주 진입은 북쪽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고, 남쪽으로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당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남측 마당에서 본 안암아파트



왼쪽으로 나가면 주출입구,
오른쪽으로는 남쪽 마당이 보이는
복도식 구조

유일한 곳이다. 이 마당에서는 7층 규모로 보이며 최 하단층 일부에 점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대편 북쪽의 주출입구에서는 6층으로 보이며, 주출입구로 진입하면 좌측이 경비실이 있고, 양쪽으로 각 유닛이 배치되어 있다. 각 층은 창과 벽돌마감 수평띠의 입면을 구성하여 단조롭지 않게 보이게 하였고, 남쪽의 마당으로는 복도가 면하여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1974년 3월 22일 매일경제의 부동산 기사를 보면, 한신맨션과 연세맨션은 맨션아파트로 분류하였고, 여의도 아파트와 안암아파트는 중산(中産)아파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기에도 전세난이 있어, 작은 평수의 중산 아파트의 매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맨션아파트와 중산아파트는 평당 매매 가격이 20만 원 전후로 차이가 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맨션주춤,市民(시민)아파트활기 - 서울시내 아파트 · 거래 상황

와우아파트, 11평, 130만원~140만원, 전세 60~70만원

낙산아파트, 11.2평, 100만원, 전세 50~60만원

대광아파트, 15평,17평,19평. 15평 250~350만원(전세 150만원) / 17평 280~370만원(전세 170만원) / 19평 350~500만원(전세 200만원)

안암아파트, 17평 300만원(전세 170만원) / 21평 450만원(전세 230만원)

여의도아파트, 15평 500만원(전세 220만원) / 20평 600~700만원(전세 280만원) / 30평 1,100만원(전세 420만원)

연세맨션, 18.5평 550만원(전세 250만원)

한신맨션, 29평 950~1,100만원(전세 400~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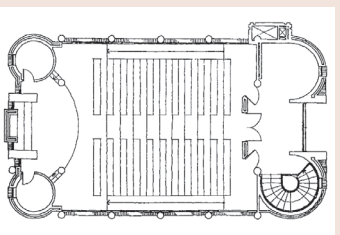
—『매일경제』1974년 3월 22일

원불교 안암교당

안암동4가에 위치한 원불교 안암교당은 건축가 김인철이 계획한



원불교 안암교당 전경



원불교 안암교당 평면도
(출처 : 한국의 현대건축 · 건축가 2)

원불교 관련 네 번째 작업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 100평(339㎡)의 대지에 연면적 177평(583㎡)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적벽돌로 마감되어 가로면에서도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 1층은 생활관, 2층에 법당을 두어 종교 공간의 위계를 따랐다. 남북 도로에 면한 동쪽에서 진입하면 만나는 로비 부분과, 외부 기둥과 원통형 천장으로 싸인 1층 실내와 2층 법당 공간이 두 개의 매스로 나누어져 변화를 주고 있다. 입면과 평면, 담장과 창문까지 원형 디자인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담장은 황토 기와 담장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경동교회

안암동3가에 위치한 서울 경동교회는 1994년 계획하고 1995년 완공되었다. 대지조건이 급경사지로 악조건이었고 극히 빈약한 예산으로 복합적인 다목적, 그리고 성서적인 근거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건축물이다. 서울경동교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성북구 보문로의 주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건물로, 웅장함까지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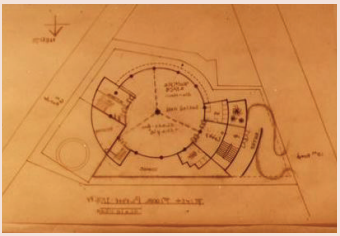
김석재는 1961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1960년부터 1967년까지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하며 한국적인 것을 고민하였다. 1967년 알파오메가건축연구소, 1970년 코리아건설, 1989년 방산건설, 1997년 알파오메가건축사사무소, 2000년 리콕스건설 등을 운영하기도 하며, 디자이너에서 건축 전반에 두루 활동을 한 건축가이다. 김석재는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는 '서산부인과병원' 등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육군군종센터 등의 작업을 통해 한국 전

통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최호진)



서울경동교회 원경
(출처 : 한국건축가협회 DB)



서울경동교회 평면
(출처 : 한국건축가협회 DB)

※ 참고문헌

『한국공간예술인집-건축계편』, 1972.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의 건축』, 발언, 1995.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한국현대건축총람 2 -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기문당, 2002

손세관 외 2인, 「우리나라 공동주택 도입기에 등장한 중·소규모 아파트의 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1.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성북구, 2013.12.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8.

김현섭, 『고려대학교의 건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5.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도서출판 집, 2017.11.

홍병화, 「성북구 보문사 선불장의 건축적 가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보문사 홈페이지

한국건축가협회 DB

주석

1_ 서울지명사전 개운산

2_ 『태조실록(太祖實錄)』 권8, 4년 9월 28일 기미, "幸安菴洞, 相壽陵地, 又幸鑄鍾所。"

3_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0, 5년 8월 15일 경자, "上以白衣冠如安巖洞, 相陵地。"

4_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0, 5년 8월 21일 병오, "上如安巖洞, 相陵地, 丁未, 命開基堀之, 水湧乃止。";『태조실록(太祖實錄)』 권10, 5년 8월 23일 무신, "上如聚賢坊, 相定陵地。"

5_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1, 11년 6월 9일 무술, "兵曹請毁僧徒草幕。啓曰: "懶惰僧徒不居有名寺社, 規免役事, 於南山、安巖、沙乙閑等處, 搆草幕設齋, 聚男女伐松木雜木, 至堀木根。請將草幕, 悉令破取; 淨業院外, 禁山內尼僧房, 亦令破取。" 從之。"

6_ 『성종실록(成宗實錄)』 권7, 1년 9월 26일 신축, "禮曹巡審都城內外, 禁耕、植木等項, 便宜以啓。… 國初建都時, 審山水向背, 建寺社, 以爲裨補, 鎭禳災變。邇來, 寺刹, 如福世庵、安巖寺、淨逸庵、香室庵、首頂庵、望城庵、隱庵、日出庵、大 小高山寺、立巖寺、道藏洞寺、淨業院; … 因此主山來脈龍、虎, 案山地脈虧損, 甚未便。請令撤去, 其有不得已當存者, 卜地移造, 何如?" 傳曰: "可。但官創寺、社, 移造他處。"

7_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4일 신사;『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5일 임오;『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6일 계미;『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7일 갑신;『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8일 을유;『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29일 병술;『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4, 15년 3월 1일 무자;『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4, 15년 3월 2일 기축;『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4, 15년 3월 4일 신묘;『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4, 15년 3월 13일 경자;『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4, 15년 3월 14일 신축 등 참조.

8_ 『세조실록(世祖實錄)』 권34, 10년 9월 19일 기사, "命龜城君 浚, 傳于承政院曰: "今日行疊鍾令, 其速知會。" 日午御勤政殿前簷下, … 令曰: "堂上以上解甲, 其餘皆著甲胄, 驅東大門外安巖洞。" … 日暮廂軍雜類合驅而下, 有狐在園內, 令世子射之。"

9_ '뿌리를 찾아서-안암동', 조선일보, 1998년 3월 11일.

10_ 오늘날의 서울 지역.

11_ 도선의 『도선기』는 현재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고려사(高麗史)』에 언급된 것이 있을 뿐이다. 해당 내용은 위위승동정(衛尉丞同正) 김위제가 남경 천도를 건의하며 언급한 『도선기』의 내용이다. 『고려사(高麗史)』 권122, 열전 제35, 방기(方技), 김위제(金謂磾), "高麗之地, 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壤爲南京, 平壤

爲西京. 十一·十二·正·二月, 住中京, 三·四·五·六月, 住南京, 七·八·九·十月, 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

12_ 최종현·김창희, 『오래된 서울』, 2013, 동하, 51-56쪽.

13_ 현재 대광고등학교 자리.

14_ 최종현·김창희, 『위의 책』, 56-60쪽.

15_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한성부 역원(譯院), "普濟院 在興仁門外三里 有樓耆老嘗會飮 于此趙末生有序 弘濟院 在沙峴北有 樓中朝使臣更衣之地 梨泰院 在木覓山南 箭串院 在箭串橋西北"

16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14 :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할』, 서울특별시(2013), 188-193쪽.

17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서울특별시(2013), 194쪽.

18_ 자세한 내용은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4,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참조.

19_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2, 6년 8월 3일 기축. "追諡故世子芳碩爲昭悼君, 撫安君 芳蕃爲恭順君。"

20_ 『세종실록(世宗實錄)』 권77, 19년 6월 3일 신유. "敎曰: "恭順公 芳蕃、昭悼公 芳碩, 俱以懿親, 不幸無嗣, 其以廣平大君 璵爲芳蕃後, 錦城大君 瑜爲芳碩後, 令立廟奉祀。""

21_ 『세종실록(世宗實錄)』 권78, 19년 7월 6일 갑오. "幸東郊觀稼, 駐駕于普濟院北廣平大君新第。"

22_ 자세한 내용은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06, 26년 12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참조.

23_ 가마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좌우 행랑보다 높게 설치한 대문.

24_ 각 문화재 사진 출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5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 6 : 불교문화재 (2)』, 서울특별시(2011), 102-103쪽;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26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 5 : 불교문화재 (1)』, 서울특별시(2011), 92-101쪽;

27_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개운사 목 아미타불좌상 복장일괄'.

28_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10 : 고려시대 사상 문화와 남경』, 서울특별시(2014), 51-53쪽;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29_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30_ 김재일, 『학교운동회의 역사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9-20쪽.

31_ 김재일, 앞의 논문, 23쪽.
32_ 이태웅, 「19세기말 각급 학교의 운동회 연구」, 『부경대학교 논문집』 4, 1999, 239-240쪽.
33_ 이태웅, 위의 논문, 1999, 240쪽.
34_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31, 2009, 62-66쪽.
35_ 김성학, 위의 논문, 68-72쪽.
36_ 김성학, 위의 논문, 72-73쪽.
37_ 김성학, 위의 논문, 74쪽.
38_ 김성학, 위의 논문, 6-8쪽.
39_ 김성학, 위의 논문, 9쪽.
40_ 김성학, 위의 논문, 9-10쪽.
41_ 「개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2_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3일.
43_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일.
44_ 김재일, 위의 논문, 28-31쪽.
45_ 김재일, 위의 논문, 42쪽.
46_ 김재일, 위의 논문, 42-43쪽.
47_ 김재일, 위의 논문, 2008, 43-44쪽.
48_ 『매일신보』, 1906년 6월 13일.
49_ 『황성신문』, 1907년 7월 16일.
50_ 『황성신문』, 1909년 5월 6일.
51_ 『황성신문』, 1909년 12월 14일. ; 『황성신문』, 1909년 12월 29일.
52_ 이효인, 『한국근대영화의 기원』, 박이정, 2017, 27쪽.
53_ 이효인, 위의 책, 27쪽.
54_ 이효인, 위의 책, 28쪽.
55_ 이효인, 위의 책, 28쪽.
56_ 「농중조 조선기네마 작품」, 『동아일보』, 1926.06.27.
57_ 「현대극 아리랑 전편」, 『동아일보』, 1926.09.16.
58_ 이효인, 위의 책, 29-30쪽.
59_ 「영화는 얼바나 이를 보나」, 『삼천리』 7, 1935.06.
60_ 「신유행, 괴유행」, 『별건곤』16·17호 1928.12, 151쪽.
61_ 이효인, 위의 책, 33쪽.
62_ 「영화인 원탁회의」, 『조선일보』, 1937.1.5.
63_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37, 2009.

7-9쪽.

64_ 최인영, 「동대문 밖 전차 도입과 역할: 청량리선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7, 2009. 97쪽.

65_ 최인영, 위의 논문, 96쪽.

66_ 최인영, 위의 논문, 85-88쪽.

67_ 최인영, 위의 논문, 102-103쪽.

68_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37, 2009. 10-12쪽.

69_ 김영수, 위의 논문, 2009. 21-24쪽.

70_ 배항섭, 「고종과 보성전문학교의 창립 및 초기 운영」, 『사총』 59. 2004, 216-217쪽.

71_ 배항섭, 위의 논문, 217-218쪽.

72_ 배항섭, 위의 논문, 218-219쪽.

73_ 배항섭, 위의 논문, 221-222쪽.

74_ 배항섭, 위의 논문, 225쪽.

75_ 배항섭, 위의 논문, 226-227쪽.

76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131-132쪽.

77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100년사』, 2008, 393-394쪽.

78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394-395쪽.

79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00쪽.

80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01-402쪽.

81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54-455쪽.

82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58-459쪽.

83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68-469쪽.

84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70-471쪽.

85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62-464쪽.

86_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8, 478쪽.

87_ 『동아일보』 1953. 9. 16. 「휴지통」.

88_ 『서울2천년사 35 - 현대 서울의 도시건설』, 서울역사편찬원, 339~340쪽.

89_ 『경향신문』 1968. 4. 29. 「3만 5천 동 양성화」, 『매일경제』 1968. 12. 17. 「80개 판자촌 양성화」, 『경향신문』 1985. 4. 23. 「옥수동 등 30개 지역 무허건물 6천4백여 채 양성화」

90_ 『경향신문』 1967. 6. 23. 「주민 · 인부 투석전」

91_ 『동아일보』 1962. 12. 20. 「안암동-미아동간 외곽순환도로 개통」

92_ 『매일경제』 1976. 8. 26. 「체증 풀린 도로망 정돈된 새길을 돌아본다 (9)」

93_ 『동아일보』 1991. 1. 8. 「고려대이공대 뒷길 인촌로로 개명」, 『동아일보』 1991. 5. 16. 「인촌로 대폭 확장」.

94_ 『경향신문』1992. 3. 13. 「고대병원 앞 인촌로 확장」, 『한겨레』 1998. 3. 2. 「안암동 인촌로 확장키로」.

95_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대학 현황'.

96_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대폭 늘어났는데 2016년 현재 고려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4,333명으로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한겨레』 2016. 9. 18.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가장 많은 곳은 고려대」)

97_ 『경향신문』 1992. 01. 21. 「대학가 하숙촌 개인주의 물결 새 풍속도」.

98_ 고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0~11쪽.

99_ 서명숙, 『영초언니』, 문학동네, 2017, 87~93쪽.

100_ 고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의 책, 431쪽.

101_ 사진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안암동 사람들

1. 일제강점기 안암동 사람들

민속에서 주체로, '신민족주의 역사학'과 손진태

손진태는 1900년 12월 28일 경남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에서 출생했다. 손진태는 어린 시절 마을 어른들로부터 민간에 전해지는 민담 · 설화 듣기를 좋아했다고 한다.[1]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이 훗날 손진태를 역사학자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손진태의 집안은 상당히 가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진태가 다섯 살이던 때 그의 집안은 가난에 쫓겨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고, 손진태의 학자금을 벌기위해 평양에서 잡화상을 하기도 했다. 힘든 가정형편에도 소학교를 마친 손진태는 다른 이의 도움으로 경성 중동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1921년 졸업했다. 당시 중동학교에서 같이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훈구, 정인섭, 양주동 등이 있었다.[2]

중동학교를 졸업한 후 손진태는 주변의 도움으로 동경 와세다 고등학원 제1부 예과에 입학했



남창 손진태
손진태는 한국 민속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신민족주의 사관을 주창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했고,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보성전문학교 박물관 관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다. 그리고 그는 1924년 3월 와세다 고등학원 졸업과 함께 4월에 곧바로 와세대대학 사학과에 입학했다. 와세다대학 사학과에서 손진태는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를 만난다. 그는 니시무라 신지를 통해 인류학적 연구방법론과 민속학을 배웠다.[3] 어린 시절부터 민담과 민속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손진태에게 인류학과 민속학은 상당히 흥미로웠을 것이다. 또한 손진태는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에게서 실증주의 역사학을 배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27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손진태는 이전부터 자주 드나들던 동양문고의 직원으로 취업했다. 1930년 동양문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선 토속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고 서양서적들도 다수 접하게 된다. 또한 이때 시라토리 등과 접촉하며 만선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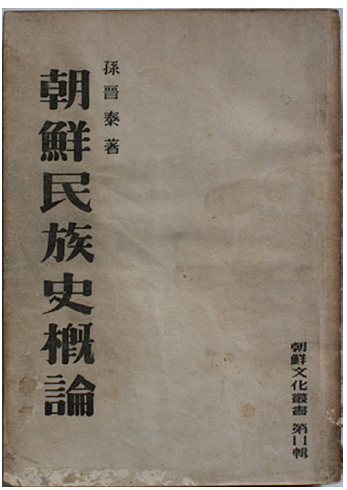
말년의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
손진태는 니시무라 신지에게 인류학적 방법론과 민속학 연구에 대해 배웠고 이것은 이후 손진태의 민속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양문고에 근무하던 손진태는 1934년 조선으로 완전히 귀국한다. 조선으로 돌아온 손진태는 연희전문학교 강사로 출강하며 동양사를 강의했다. 그러던 중 1934년 9월 안암동으로 이전한 보성전문학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1934년 안암동 이전 후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보성전문학교는 손진태를 새로운 도서관 사서로 고용했고 또한 문명사 강의를 맡겼다. 1937년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자 보성전문학교는 손진태를 문명사 담당 전임강사직과 도서관 관장직을 맡겼다. 1939년에는 보성전문학교 도서관장직을 유지하며 문명사 강의를 하

는 교수로 승진했다.[5] 이후 해방 때까지 손진태는 보성전문학교에서 문명사를 강의하는 교수 겸 도서관장으로 지냈다.

보성전문학교와 인연을 맺은 손진태는 주변 학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는 1934년 진단학회가 창립할 때 참여했으며 이병도 · 김상기 · 이상백 등 와세대 출신 동문 국사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또한 보성전문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인영, 조윤제 등과 가깝게 지내면서 학문적 교류에 힘썼다. 한편 1940년대 초 무렵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진태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이것으로 인해 용산경찰서에 소환됐지만 손진태는 굴복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 형사를 설득해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6] 손진태가 얼마나 강하게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손진태는 보성전문학교를 떠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됐고 보성전문학교 시절 가까웠던 안호상이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자 그의 부탁에 따라 문교부 차관 및 편수국장에 취임했다.[7] 한편 손진태는 1948년『조선민족사개론』과 1949년『국사대요』를 편찬하며 민족을 중심에 둔 자신의 역사관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편수국장으로 일하면서 '민족정기'를 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최남선의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손진태가 민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민족사개론』
1948년 손진태가 저술한 『조선민족사개론』은 해방 이후 그가 주장한 신민족주의 사학을 체계화시킨 책이다.

1949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이 되었으나 학도호국대 설치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공격을 받아 1949년 9월 사범대학장을 그만두었다. 다시 1950년 5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장을 맡았으나 그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쳐 남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삼각산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북한군을 피해 손진태는 상당기간 숨어 지냈으나 1950년 9월 28일 결국 북한군에 발각되어 납북됐다.[8]

납북된 이후 손진태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북한에서 연금된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이후 어떤 학문적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손진태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했으며, 급기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족날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한다. 결국 1958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손진태는 사상교육을 받고 국영농장으로 보내져 육체노동을 하다가 지병으로 1960년대 무렵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손진태의 학문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1920·1930년대 진행했던 민속학연구이다. 손진태의 민속학에 관한 연구는 1926년을 그 시작으로 본다. 「토속여행답사기」와 「장승조사기」를 썼으며 본격적인 민속학 논문인 「조선상고문화의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도 이 무렵이다.[10]

1927년 와세대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더욱 왕성하게 민속학 논문을 생산했다. 지도교수였던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에 영향 속에 온돌, 민간설화, 중국 민족의 원시신앙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30년 손진태는 동양문고에 근무하면서 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생

산했다. 또한 1932년에는 정인섭 · 송석하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결성하며 민속학 연구에 매진했다.[11]

손진태의 학문적 변화는 1934년 국내로 돌아오면서 변화한다. 1934년 귀국 이후 손진태의 학문적 관심은 민속학에서 점차 한국사 연구로 바뀌기 시작했다. 1940년대 무렵부터는 거의 한국사에 대한 연구만 진행했다. 특히 이때부터 손진태는 본인 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족주의 사학'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방 이후 쓴『조선민족사개론』서문에서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로운 입장에서 한국사를 쓰려고 계획했다고 밝히고 있다.[12] 아마도 귀국 이후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사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성전문학교에서 주로 한 강의도 문명사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민속학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해방이후 손진태는 본격적으로 신민족주의 사학을 체계화 시켜나간다. 그 대표적인 저작이 1948년 쓴『조선민족사개론』이다. 손진태는 이 책에서 한민족의 형성과정과 민족시조 단군에 대해서 다루고 이후 각 시대별로 정치사, 대외관계, 사회 문화 등의 순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손진태는 국내외적으로 평화가 지속될 때는 민족이 발전했지만 계급알력과 지도층의 권력쟁탈이 일어나면 민족의 문화가 파괴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민족이 발전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계급 알력과 권력투쟁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과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이것은 계급갈등을 지양하고 민족 통합을 강조한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손진태가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한 것은 당

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전통적으로 역사를 해석했던 왕조사관의 경우 왕실중심, 지배층 중심적인 역사해석이 되기 쉽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런 왕조사관의 부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돌파한 것이 백남운을 위시한 '사회경제 사학'이었다. '사회경제 사학'은 유물사관에 기반을 두고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기존에 왕실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해석을 깨뜨렸다. 손진태는 이런 '사회경제 사학'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경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 즉 민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14] 이런 문제의식에서 손진태는 왕조 사관과 '사회경제 사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족으로서 민중을 역사발전의 중심에 둔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손진태가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한 것은 1945년 이후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깊었다.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은 좌익세력과 우익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손진태는 평화와 화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손진태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안재홍과 같은 중도적 세력의 영향이 미치기도 했다. 따라서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15]

그러나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은 이후로 변화한다. 본래 '신민족주의 사학'은 해방공간에서 분열된 민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5·10 선거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면서 손진태의 사관도 변화한다. 1948년 이후 쓴 저서들을 보면 이전까지 강조되던 대외 항쟁이나 대외

관계사가 줄어들고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며 권력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줄어들었다. 이제 각 시대 문화의 특색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민족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16]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신민족주의 사학'을 지양하고 민족을 긍정하고 문화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손진태의 삶과 학문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손진태는 비록 일본 유학을 통해 학문을 배웠으나 국내로 돌아온 후에는 오히려 민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혼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손진태는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했다.

비록 손진태와 그의 '신민족주의 사학'은 본래 목표했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손진태는 혼란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했다. 그것만으로도 손진태의 삶과 그의 학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책과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아니다. 손진태 역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진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지식인'의 길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시 손진태를 돌아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신간회 경동지회新幹會 京東支會

일제강점기 안암동과 보문동을 포괄했던 고양군 숭인면 일대는 본래 과일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산발적으로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숭인면 일대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임야지역의 성격이 강했다.[17] 그러나 1920년대부터 숭인면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토막민들의 주거지
농업공황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허름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토막민으로 불리며 빈민촌을 형성했다.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토막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설리였다.

시작했다. 1920년 9천 명이었던 숭인면 일대 인구는 1925년 2만 3천 명, 1930년 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18] 특히 숭인면에서도 도심과 가장 가까웠던 안암리와 신설리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1920년 1,372명이었던 신설리의 인구는 1930년 3,430명으로 늘었고, 1920년 413명에 불과했던 안암리의 인구는 1930년 17,15명으로 증가했다.[19]

숭인면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가 깊었다. 1920년대 일제가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으로 식민지 조선의 농촌경제는 사실상 붕괴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여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은 결국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일거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925~1935년 사이에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약 88만여 명, 그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27만여 명에 이르렀다.[20]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일용직 노동과 행상에 종사하는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다.

숭인면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숭인면 일대는 매우 좋은 주거지였던 것이다.[21]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숭인면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환경은 크게 바



서울을 가로지르는 전차
서울에 설치된 전차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 사람들은 전차를 이용해 빠르게 서울 중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꿔지 않았다. 숭인면은 도시 개발에서도 철저하게 뒤로 밀려나 있었다. 도시의 위생을 담보하는 상수도 시설은 1936년 숭인면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기 전까지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기나 위생에 관한 시설들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반면 오물처리장이나 화장장 같은 기피 시설들은 숭인면으로 이전하려는 경우가 많았다.[22] 식민지 조선의 짙은 그림자 그 속에 숭인면이 그리고 안암리, 신설리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지닌 숭인면, 특히 안암리와 신설리는 민족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살짝 빗겨 나 있었다. 1919년 3·1운동에 호응하여 안암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1920년대 신설리와 안암리는 활발한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몇몇 지역 유지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 개선을 위한 주민대표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민족운동이라는 큰 흐름과는 동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안암리, 신설리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났다. 안암리와 신설리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바로 신간회였다. 1927년 2월 신간회가 창립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신간회의 지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2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간회 지회는 창립 1년이 지난 1928년 무렵 전국적으로 144개까지 만들어졌다.[23] 신간회 지회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신간회에 걸었던 기대는 컸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간회 지회 설립 물결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인 숭인면 안암리와 신설리에도 당도한 것이다.

경성부 동부일대의 유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것은 경성부 동부일대를 포괄하는 신간회 지회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신간회 경성지회 모습
1927년 설립된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지회가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도 신간회 경성지회가 만들어졌는데 경성지회는 신간회 본부에 견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29년 5월 7일 이규갑의 사회로 신간회 경동지회 발기준비회가 열렸다. 신간회 경동지회 발기준비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회 설립 준비와 발기인 모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24] 이후 준비회는 숭인면, 한지면, 독도면 일대를 신간회 경동지회의 구역으로 확정하고 1929년 5월 16일 신설리 신설학원에서 창립대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25]

그런데 창립대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창립대회 장소인 신설학원에서 대회 개최를 거부한 것이다. 신설학원에서 대회 개최를 반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창립을 앞두고 돌발적인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했다. 신간회 경동지회 준비회는 서둘러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다. 신간회 경동지회 준비회는 창립대회 장소를 숭인면 안암리에 있

는 요리점 성춘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동대문경찰서에는 옥외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집회 개최를 허가받았다.[26] 우여곡절 끝에 창립은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었다.

1929년 6월 16일 오후 4시 안암리 성춘관에서 신간회 경동지회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100명에 가까운 회원과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규갑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대회는 창립을 준비한 경과보고와 내외빈들의 축사와 축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축사와 축문 낭독이 끝난 후 신간회 경동지회 회원들은 전형위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서 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선임했다. 당시 신간회 경동지회 간부로 선임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27]

회장: 권유상(權裕相) 부회장: 이윤우(李允宇)

이사: 심의성(沈宜聲), 이규갑(李圭甲), 장세걸(張世傑), 이원섭(李元燮), 이규성(李奎成), 이인강(李仁康), 강극주(姜克周), 윤충식(尹忠植), 김영수(金永秀), 전○배(田○培), 김선월(金宣月), 손석호(孫錫鎬), 김순자(金順子), 이탄호(李坦浩), 이재호(李在灝), 이순재(李舜在), 김순희(金順熙), 김성진(金聲振), 김일(金日), 마호(馬壕), 이병은(李秉殷)

신간회 경동지회가 창립할 무렵 신간회도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신간회는 1928년과 1929년 연이어 정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신간회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일제가 신간회의 정기대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강한 탄압에 직면한 신간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신간회 본부가 찾은 방법은 지회 대표들을 본부로 소집하여 정기대회 형식의 새로운 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복대표대회의 개최였다. 1926년 6월 28일, 29일 열린 신간회 복대표대회에서는 신간회 규약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정됐다. 그 가운데 그동안 신간회 규약으로 규정했던 조직체계 즉 회장, 간사제가 이원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런 변경은 그동안 신간회의 여러 지회들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복대표대회를 통해 신간회 규약에 반영될 수 있었다.[28]

복대표대회를 통해 신간회의 조직체계가 변경되자 신간회 경동지회도 이에 맞춰서 조직체계를 위원제로 개편해야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929년 7월 20일 임시대회가 개최됐다. 임시대회에서는 신간회의 개정된 규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직체계를 위원제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정했다.[29] 새롭게 변경된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30]

집행위원장: 이규갑(李奎甲)

집행위원: 전○배(田○培), 이탄호(李坦浩), 윤충식(尹忠植), 이정구(李正九), 서광훈(徐光勳), 김성진(金聲振), 정순화(鄭淳和), 홍종기(洪鐘起), 조충구(趙忠九), 이규성(李奎成), 이병은(李秉殷), 김선월(金宣月), 박용진(朴容眞), 이정례(李貞禮), 박기채(朴基采), 정광혁(鄭光赫), 이대우(李大宇), 강극주(姜克周)

검사위원: 권유상(權裕相), 이원섭(李元燮), 김일(金日), 김영수(金永秀), 오순엽(吳順燁)

집행위원후보: 박상현(朴商賢), 신영식(辛英植), 최우식(崔宇植), 마호(馬

壕), 진강제(陳江霽)

본부 대표위원: 박희도(朴熙道), 윤충식(尹忠植)

1929년 12월 1일 신간회 경동지회는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집행위원장에 이석李奭을 그리고 신임 간부들을 선임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논의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1]

(1) 지회세칙 제정

(2) 분회, 반 조직

(3) 간이문고 설치

(4) 순회강좌 개최

(5) 한글강좌개최

(6) 무산아동교육

(7) 신간경기연합회 촉성

(8) 노동 · 여성운동 촉진

(9) 경동지회회관 건축

(10) 동부 공회당 건축 등

이상의 토의 내용을 보면 신간회 경동지회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간회 경동지회는 분회를 조직하고 지회의 활동을 경성부 동부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또한 지역적 특징에 맞게 한글 강좌와 무산아동 교육, 간이문고 설치 등 통한 지역민 계몽 활동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 특히 여성운동을 촉진

을 주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신간회 경동지회는 여성운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 대회 이후에 근우회 경동지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창립대회가 신간회 경동지회 회관에서 개최됐다.[32] 근우회 경동지회 설립에는 신간회 경동지회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幹京東支會
設置大會盛況
지난십륙일하오네시에시외신설
학교(新設學校)에서개최하려든
신간경동지회설치대회(新幹京
東支會設置大會)는장소를변하
야안암리성춘관(盛春館)에서열
고의장리규갑(李奎甲)씨사회하
에각디방에서온축뎐축문(祝電
祝文)사십여통을 신간의산지회
(新幹槐山支會)서울녕변회중앙
회맹(中央青盟)경성철판로조
(京城鐵板勞組)에서온 축문은
당국에서 압수하고 신간회본부
(新幹會本部)를위시하야시내각
단단대표의열렬한축사가주의중
지되어섯분맛고영원선거한후로
의사항은신임간부에게일임하기
로하고오후육시반에신간회만세
삼창으로 폐회하얏다는데 신임
간부는다음과갓다더라
會長權裕相▲副會長李大宇▲
幹部李仁康 尹思楠 沈宜馨李
奎甲 金永秀外十六人

신간회 경동지회 설치
1929년 서울외곽 동부지역을 담당할 신간회 경동지회가 설치됐다. 신간회 경동지회는 신설리, 안암동을 비롯한 지역을 포괄하며 다양한 운동을 준비했으나 1931년 신간회 해소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신간회 경동지회의 다른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런 신간회 경동지회 앞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신간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문제였다. 신간회 해소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1930년 말부터 제기된 신간회 해소문제는 신간회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신간회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저마다 해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다. 신간회 경동지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1년 1월 24일 정기대회를 개최한 신간회 경동지회는 신간회 해소문제에 대한 의안을 논의했다. 당시 신간회 경동지회는 '해소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소문제연구부를 설치하고 해소의 가부를 충분하게 연구하자고 결의했다.[33] 신간회 해소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

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신간회 해소 반대를 의미했다. 신간회 경동지회는 신간회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동지회의 입장과 달리 대세는 이미 신간회 해소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랜 논쟁 끝에 결국 1931년 5월 16일 신간회 전국대표자 회의에서 신간회 해소가 결정됐다. 1927년 2월 창립한 이후 약 5년 여간 이어졌던 신간회의 활동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신간회의 해소와 함께 신간회 경동지회의 활동도 막을 내렸다. 불과 2년, 신간회 경성지회가 충분히 날개를 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최보민)

2. 현재의 안암동 사람들

성북의 사진가, 마국서 어르신 이야기

구술자 마국서 (1945년생, 주민 · 사진작가)

면담자 김민성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대학원생)

마국서 어르신은 1969년에 고향인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셨다. 신당동에 처음 자리를 잡으시고 고려대 근처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나중에는 집까지 안암동으로 이사하셨다. 오랫동안 안암동에 거주하신 주민이시다. 지금은 한식당을 그만두시고 취미 생활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계신다. 마국서 어르신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사진을 찍으신다고 했다. 마국서 어르신이 제공해 주신 성북천 사진은 수십 년이 담겨있었다. 마국서 어르신이 사진 찍는 것이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마국서 어르신을 '우리동네 역사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진에 대한 생각 - 착한 마음을 가져야

사진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좀 착한 마음 가지면 사진 한 점이라도 주는데, 나쁜 마음이면 사진 안 줘. 좋은 사진을 찍었을 때는 뭐 엔돌핀이 솟지, 좋아가지고.

70년도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내가 찍은 지가 좀 오래돼요. 69년도, 70년도부터 찍었어. 그때부터 조그마한 거(카메라) 사가지고서 장난질하면서 사진 찍었다고 하는 거지. 그때 동대문상가가 전부 카메라 골목길이었어. 청계천 앞쪽은 책 중고 책이고 앞에는 카메라 쭉 있고. 나는 내가 평생 갖고 있는 기(것이) 펜탁스만 갖고 있어요. 필름카메라에서부터 디지털까지 내가 펜탁스 꼭 그 기종으로 쓰지.

포토샵도 직접 해야지

포샵(포토샵)까지도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못 견디는데. 독수리 타법이지만은 충무로 가가지고 이거 하나 배워 오고. 한 7~8년 되겠다 디지털 나온 지가. 근데 뭐 필름으로 할 때는 현상소 할 때는 남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거지. 포토샵 안 하면은 사진이 안 되는데 뭐. 그니까 남한테 맡겨서 안 되지. 포토샵 잘 하는 집 가서 점심 사주고 또 하나 배우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안하면 잘 안 알려줄라고 하지. 요즘은 학원도 생기고 하는데 옛날에는 없었잖아.

왜가리 사진 - 생태를 알아야

새를 찍으려고 여기 그거 왜가리가 고기 2마리 물고 있는 거 이거 찍기 힘들어요. 새벽마다 새벽 5시에 카메라 메고 여기 출근했어, 여기 도랑. 자전거 타고가야지. 사람이 있으면 또 날라가 버리고 또 자전거 타고 따라가고. 지가 졌다하고. (왜가리의) 생태가 고기를 딱 물면은 막 쫓아내도 못 나가. 그때 사진 찍는 거야. 고기 물기 전에 제일 경계심이 강하지. (사진을



성북천의 왜가리
먹이를 찾는 장면



성북천의 왜가리
먹이를 문 장면

보면) 미꾸라지 도나스(동그란 도너츠 모양) 만들잖아. 미꾸라지도 살아야 하니까, 지가 살겠다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난리야.

별 사진 - 한 줄기 빛도 허용치 않아

(가장 어려운 사진이 어떤 것이었나요?) 태백일출 뜨는 거 하고, 요즘 (별) 궤적 돌리는 거. 강원도 인제에 가면 이렇게 와인장 같이 생긴 데가 있어. 무서워서 못가겠더라고. 군부대 멧돼지들 나오고. 밤새 찍어야하니까 곤욕이에요. 이거 난 이거 오후 5시부터 카메라 설치해 놓고 내일 아침까지. 별은 한번 딱 찍힌 거기서부터 (궤적을) 물고, 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차가 와 버리면 (빛에 노출돼서) 그러면 (사진을) 다 버려야 해. 그러면 땡이야(망쳐), 불빛 때문에. 그러면 텐트 치고 잠이고 뭐고 라면이나 끓여먹고 그러지.

삼막사 공양 사진 - 일 년 공들인 탑이 무너져

(사진 좋은 거 찍으려면) 일 년 내내 매달려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거든. 그래 여기 삼막사 절에 가서 내가 찍은 기(것이) 매주 12시 되면 (삼막사에서) 국수 공양을 해요. 그걸 내가 절에 가가지고 찍어놓은 것이 일 년을 찍었는데 48주를 다 못 채워서 그래가지고 작품이 안 되더라고. 그 또 연결하려니까 또 일 년을 또 해야 돼.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꼭 요 자리에서 요 포인트에서 꼭 12시에만 찍거든. 그것을 일 년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다 못 이뤘어. 그래서 내가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 거야. 끈기가 없다는 거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12시, 사연이 있건 없건 찍었어야 하는데. 내가 약했어. 그런 것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거거든. 내년에 하면

이 절도 변화가 있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또 일 년 내내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포기했어.

인수봉을 가린 태극당 - 제일 억울해

제일로 억울한 게 '태극당(성북구에 위치한 제과점)' 건물을 내가 사버리던지 뽑아버리던지 농담으로 하지. 사진이 참 이때(태극당 건물이 지어지기 전)가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보여줄라꼬 내가 일부러 갖고 온 거야. 여기에 다리 위에 올라가면 도랑이 인수봉까지 다 보였는데, 요즘은 하도 발전이 돼가지고 태극당이 위치해가지고 가려졌지. 성북천에서 보면 인수봉도 여기서 보이고 했는데. 태극당 건물이 올라선 지가 한 10년 될 거야. 전에는 여기서도(성북천에서) 인수봉까지 이렇게 도봉, 북한산을 바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혀 버린 거지. 맥을 끊어버린 거라.

(돈암동 태극당 건물은 5층으로 높지 않고, 확인 결과 인수봉을 가린 것은 다른 고층 건물이다. 이를 구술자가 태극당 건물로 오인한 듯하다. — 편집자 주)



성북천의 가을
멀리 시원하게 보이는 인수봉.



성북천의 가을
인수봉을 가린 고층건물들.



성북천의 겨울

주석

1_ 이진한, 「손진태의 삶과 신민족주의 역사의 전개」, 『한국인물사학연구』. 16. 2011. 305쪽.
2_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역사민속학』 11, 2000, 21쪽.
3_ 이진한, 위의 논문, 305-306쪽.
4_ 남근우,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28, 1996, 99-100쪽.
5_ 최광식, 위의 논문, 22-23쪽.
6_ 이진한, 위의 논문, 306-307쪽.
7_ 최광식, 위의 논문, 25쪽.
8_ 이진한, 위의 논문, 307-308쪽.
9_ 최광식, 위의 논문, 26-27쪽.
10_ 최광식, 위의 논문, 28쪽.
11_ 최광식, 위의 논문, 29쪽.
12_ 최광식, 위의 논문, 30쪽.
13_ 이진한, 위의 논문, 310-311쪽.

14_ 이진한, 앞의 논문, 312-313쪽.
15_ 이진한, 위의 논문, 314-316쪽.
16_ 이진한, 위의 논문, 325-329쪽.
17_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37, 2009. 7-9쪽.
18_ 최인영, 「동대문 밖 전차 도입과 역할: 청량리선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7, 2009, 97쪽.
19_ 최인영, 위의 논문, 96쪽.
20_ 곽건홍, 「일제하의 빈민:토막민, 화전민」, 『역사비평』 46, 1999, 164쪽.
21_ 최인영, 위의 논문, 96쪽.
22_ 유승희, 「식민지기 경성부 동부 교외지역의 실태외 도시개발」, 『역사와 경계』 86, 2013. 107-110쪽.
23_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245-248쪽.
24_ 「신간경동지회 발기준비회」, 『동아일보』, 1929.05.09.
25_ 「신간경동지회 오는 십육일에설치대회」, 『조선일보』, 1929.06.14.
26_ 京城 東大門警察署長, 「京東警高秘 제1208호 신간회 경동지회 설립 총회의 건」,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7, 1929.6.17.
27_ 「신간경동지회 설립」, 『조선일보』, 1929.6.18.
28_ 이균영, 앞의 책, 1993, 173-174쪽.
29_ 「신간경동지회 임시대회 개최」, 『동아일보』, 1929.07.23.
30_ 「신간 경동지회 임시대회」, 『조선일보』, 1929.07.24.
31_ 「엄중경계리에 신간경동대회」, 『조선일보』, 1929.12.05.
32_ 「근우경동지회 설립준비회」, 『동아일보』, 1930.4.3.; 「근우경동지회설치」, 『동아일보』, 1930.4.13.
33_ 「신간회경동지회 정기대회개최」, 『동아일보』, 193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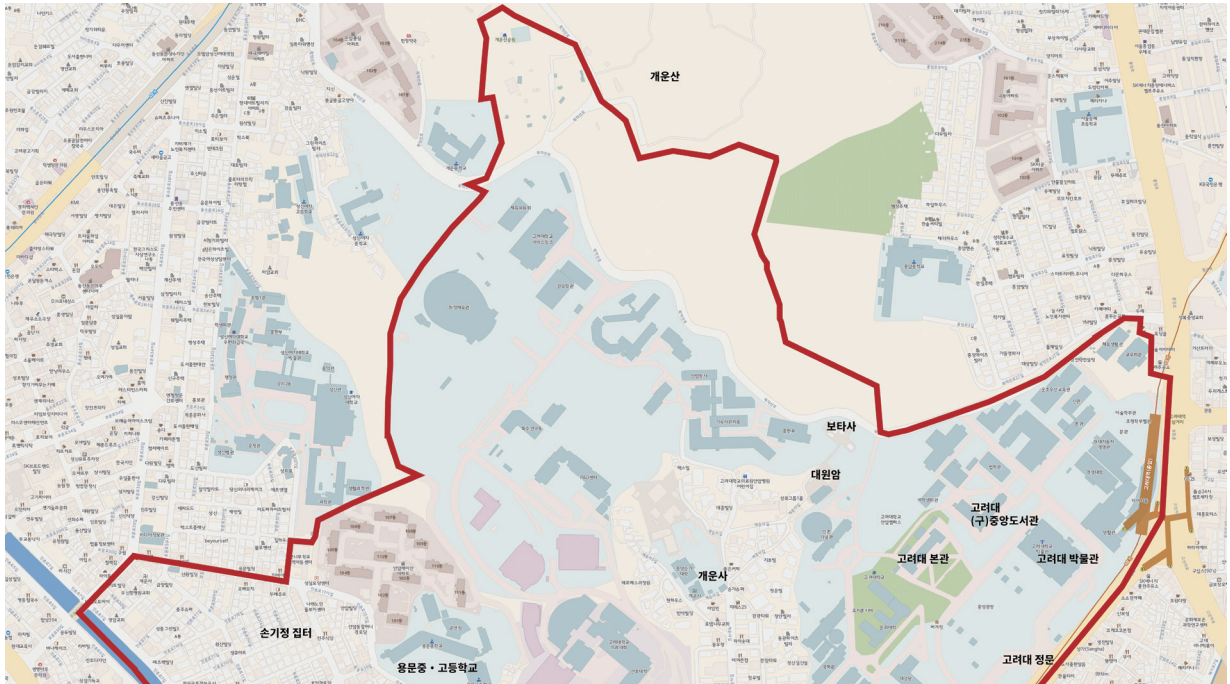
부 록

보문동 지도




보문파크뷰
자이아파트
보문동
한옥밀집지역
김재규 집터
박완서 집터
동망봉 산신각

안암동 지도




안양천
안양천 고수부지
안양천 고수부지
안양천 고수부지